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 주최 : 역사학연구소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2층 세미나실
- 일시 : 2009년 11월 21일(토) 10:00 -17:00

식 순

개회식; 10시20분

개회사; 소장

<제1부> 지도부와 조직, 지배층의 대응

10:30-12:00 진행 ; 신용옥(고려대)

발표 ; 이경원(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敎祖伸冤運動期 東學指導部の 儒教的 측면에 대한 考察 7

발표 ; 김양식(충북학연구소) ; 동학농민전쟁기 집장소의 위상과 평가..... 19

발표 ; 이상찬(서울대/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農民戰爭期 지배층의 대응-鄉約 실시를 중심으로..... 29

토론 ; 배항섭(고려대) 양진석(규장각)

*점심 및 휴식 12:00-13:00

<제2부> 일본측 자료와 연구의 확대

13:00-14:30 진행 ; 임송자(성균관대)

발표 ; 홍동현(역사문제연구소) ; 1894년 일본의 동학농민전쟁 인식-신문보도를 중심으로..... 39

발표 ; 강효숙(진실화해위원회) ;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병참부와 조선민중-황해·평안도를 중심으로-..... 51

발표 ; 박맹수(원광대) ;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73

토론 ; 왕현중(연세대), 윤대원(서울대)

*휴식 14:30-14:40

<제3부> 지방지와 기념물에 나타난 농민전쟁

14:40-15:40 진행 ; 김무용(진실화해위원회)

발표 ; 김태웅(서울대) 해방 이후 地方誌에서 19세기 농민 운동 인식과 서술..... 91

발표 ; 박준성(역사학연구소)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101

토론 ; 이영호(인하대)

*휴식 15:40-15:50

<제4부> 쟁점과 전망

15:50-17:00 진행 ; 홍순권(동아대)

발제 ; 김선경 농민전쟁 115주년의 인식과 쟁점

총평 ; 이영호 배항섭 박맹수

1 부

지도부와 조직, 지배층의 대응

발표 ; 이경원(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김양식(충북학연구소)
이상찬(서울대/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토론 ; 배항섭(고려대) 양진석(규장각)

敎祖伸冤運動期 東學指導部の 儒教的 측면에 대한 考察

이경원(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머리말

1. 1890年前後 東學布敎와 儒教的 實踐倫理의 활용
2. 伏閣上疏時期 東學指導部の 忠孝과 再次參禮聚會의 忠孝
3. 報恩聚會時期의 忠義와 斥倭洋倡義

맺음말

머리말

동학지도부가 1890년전후 전라도까지 포교지역을 넓혀 가자 수령들의 탄압도 더욱 심해졌다. 수령들은 동학을 서학의 여파라고 지목하면서 토색질하였다. 동학교도들뿐만 아니라 동학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스승 崔濟愚伸冤運動을 전개하여 동학의 공인을 얻고자 하였다. 신원운동은 1892년 10월 公州聚會를 시작으로 11월 參禮聚會, 1893년 2월 伏閣上疏 이시기 열린 再次參禮聚會 그리고 1893년 3월 報恩聚會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1,2년전으로 농민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신원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는 동학교단과 이와 다른 독자적인 세력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척왜양을 어떤 세력이 먼저 주장했는가에 따라 견해가 갈린다. 보은취회시기 金溝聚黨이 신원운동을 척왜양의 정치적 성격으로 유도했다고 보는 견해¹⁾와 공주취회부터 보은취회까지 동학교단이 척왜양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견해²⁾가 있다. 이 두 견해와 다르게 再次參禮聚會시기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진 변혁지향세력에 의해 척왜양운동이 추진되었다고 보는 견해³⁾가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신원운동기간의 척왜양은 주목하고 있지만, 신원운동기간 通文類에서 불거져 나오는 유교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연구는 신원운동기간 나타나는 유교적인 내용을 동학교도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유교적인 내용도 수용하고 받아 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원운동기 통문을 통해 동학지도부나 새롭게 나타나는 세력이 유교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려 한다.

먼저, 1880년대 중후반에는 충청도, 전라도지역까지 동학포교가 이루어졌다. 동학지도부

1)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44-82쪽. 조경달도 금구집회에 주목하였는데, 보은집회시기 교문중앙은 평화주의적 노선이었던 반면, 금구집회는 철저히 항쟁노선이었고 이것은 남접 변혁실천자들이 동학의 이단집단으로 명확히 성립한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조경달(박맹수 옮김), 2008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123~136쪽)

2) 박맹수, 1995 「최시형연구 -주요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59-218쪽

3) 배항섭, 2002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경인문화사, 159-231쪽

는 늘어난 교도를 관리하기 위해 통문을 만들었다. 이시기 통문에 나타나는 유교적 실천윤리의 내용이 崔時亨 등의 동학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려 한다.

또, 동학지도부가 포교지역을 넓혀 나가자 수령들의 동학탄압도 심해졌다. 수령들은 동학 교도를 서학의 여파라고 지목하면서 탄압하였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지도부는 최제우가 억울하게 서학의 혐의로 처형당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시기 유교적 측면이 최제우, 최시형 등의 동학사상이나 동학포교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 한다. 한편, 재차삼례취회세력은 忠孝를 강조하면서 倭洋의 제거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후 신원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려 한다.

다음으로, 전국각지의 동학교도들이 모였던 보은취회가 공주취회이후 신원운동전체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은취회의 충의, 척왜양창의를 통해 살펴 보려 한다.

1. 1890年前後 東學布教와 儒敎的 實踐倫理의 활용

최시형은 최제우 처형이후 경상도 북부, 강원도 산간지역의 지하포교시기를 거쳐 1880년대 중반이후 충청도, 전라도지역으로 포교를 확대해 갔다.⁴⁾ 전라도 지역의 동학포교는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시기 동학교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시기 동학포교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880년대 중반부터 1890년 전후한 시기 동학지도부가 내린 통문류를 살펴 보자.

1883년 최시형이 내린 통유십일조의 내용은 '忠君上 孝父母 隆師長 睦兄弟 別夫婦 信朋友 恤隣里 修身齊家 待人接物'이다.⁵⁾ 통유십일조는 삼강오륜의 유교적 전통사상과 최시형의 동학사상이 담겨져 있다. 통유십일조 항목 가운데 별부부, 신봉우는 삼강오륜의 내용인데, 이것은 동학경전의 삼강오륜의 내용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학경전의 삼강오륜 내용은 동학이 사학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대목이나, 서학을 비판하는 부분에 나타나 있다.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할 때, 정부와 유생은 동학을 사학 혹은 서학이라고 비난하였고, 이에 최제우는 동학에 있는 유교적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학을 비판함으로써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도덕가에서는 동학은 수심정기하여 인의예지 지켜두고 군자의 말씀을 본받아서 誠과 敬을 지켜내고, 오륜을 사람의 본성으로 삼고 있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였다.⁶⁾ 권학가에서는 서학은 오륜을 버리고 부모의 제사도 안지내면서, 자신만이 천당에 가기를 바란다고 비판하였다.⁷⁾ 동학경전의 삼강오륜 내용은 동학이 사학이 아님을 설명하거나, 서학을 비판함으로써 동학은 서학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상도, 강원도지역의 지하포교 시기를 거쳐, 충청도에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하자, 정부의 탄압도 심해졌다. 이 시기에도 동학을 사학, 서학이라고 하면서 탄압하였다. 이에, 동학지도부도 동학이 사학, 서학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하여 통문에 삼강오륜의 내용을 실었다. 통유십일조의 삼강오륜적인 내용은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학경전에 있었던 것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유십일조에는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삼강오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최시형의

4) 박맹수, 1993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동학의 역할」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 51~55쪽 ; 1995 위의 글, 129~141쪽

5) 「시천교종역사」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9 (이하 「사료총서」), 67~68쪽

6) 「용담유사」 도덕가 『동학사상자료집』 1, 144~145쪽

7) 「용담유사」 권학가 『동학사상자료집』 1, 135~136쪽

수행방법이 담겨져 있다. 통유십일조 항목 중 ‘충군상’, ‘효부모’, ‘목형제’, ‘홀향리’, ‘수신제가’, ‘대인 접물’은 최시형의 수행방법과 관련이 있다. 동학의 수행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修身正氣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심정기는 하늘님과 통할 수 있는 신비한 종교체험의 경지를 말하는데, 마음을 순수하게 정리하고 기운이 바르게 된 경지이다. 수심정기에 이르기 위한 수행방법은 첫째 하늘님을 믿어야 하고, 둘째 하늘님은 나의 몸에 모셔져 있으므로 안으로 향한 수행을 해야 하며, 셋째 心學임을 명심하고, 넷째 열세자 주문을 지극히 정성껏하는 것이다.⁸⁾ 두 번째 수행방법이 侍天主 관념인데, 최시형은 이 시천주의 관념을 모든 사람과 사물로 확대하였다.

최시형의 유훈에 의하면, “사람이 되어 직분이 백성에 처한 바에는 곧 임군이 하늘이라. 극진이 직분을 지켜서 위로 임군에 힘을 도와 충성을 다하며 아래로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를 화하며 골육과 화목하며 이같이 함을 떠나면 가시 씨 道가 아니라 삼가 직힘이 가함”이라고 하였다.⁹⁾ 즉 사람은 백성, 자식, 형제라는 각각의 직분에 처하여 국왕에게 충성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골육과 화목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였다. 최시형의 설교내용을 기록한 이기대전에 의하면, 수심정기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孝弟溫恭’, ‘待接人物’이라고 하였다.¹⁰⁾ 최시형의 내수도문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고 가축이나 나무도 아끼고, 어린 아이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때리지 말고 집안이 화순하는데 힘쓰는 것이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시형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따뜻하고 공손히 대하는 것이 곧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처한 직분에서 국왕, 부모, 형제, 이웃이라는 각각의 대상을 공경하는 것이 곧 시천주라는 뜻이다. 또 가축, 나무,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아끼고 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모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충위를 두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대하는 것 즉 ‘대인접물’하는 것이 경천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은 국왕과 백성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이웃간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에서 대인접물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이 통유십일조의 항목 중 ‘충군상’, ‘효부모’, ‘목형제’, ‘홀향리’, ‘수신제가’, ‘대인 접물’로 나타났던 것이다.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은 전라도지역에 동학이 포교되던 1890년 전후시기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동학지도부는 1889년 新定節目을 만들어 육임소와 육임의 기능을 정하여 각 지방 접주들과 교도들에게 하달하였다. 절목가운데, ‘忠孝卓異之行 則特施重賞事’, ‘有睦族救貧之友 則依忠孝人例施賞事’, ‘或有貧窮之友 隨宜救急事’라는 조항이 있다. 충효가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목족 구빈한 사람도 충효와 같은 예로 상을 준다는 것이다.¹¹⁾ 충효, 목족, 구빈은 앞서 보았듯이 통유십일조의 내용과 같이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정절목에서 충효, 목족, 구빈을 잘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시천주의 수행을 잘 한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인 충효, 목족, 구빈이 장려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천주의 수행방법가운데 충, 효와 같은 유교적 실천윤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신정절목에서 장려한 충, 효는 최시형의 시

8) 표영삼, 1987 「수심정기」 『신인간』 451

9) 신용하, 1978 「최시형의 「내척」·「내수도문」·「유훈」」 『한국학보』 12, 1978

10) 신용하, 1980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의 <<이기대전>>」 『한국학보』 21, 1980

11) 「해월문집」 『한국학자료총서9 -동학농민전쟁편-』, 309~311쪽

12) 조경달은 최시형의 통속도덕은 민중의 의식세계에 있었던 도덕관념으로, 당시 동학을 이단으로 간주하던 상

천주 수행방법으로, 국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대인접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이상에서, 1880년대 후반 전라도지역 동학포교의 내용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인 충효, 목족, 구빈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천주 수행방법에 충, 효 등의 기존의 유교적 실천윤리가 있었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전라도지역 동학포교의 내용으로, 신정절목의 ‘或有貧窮之友 隨宜救急事’이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1888년 戊子通文이 주목된다. 1888년 무자통문에서는 도인들간의 同歸를 강조하고 있었다.¹³⁾ 권학가에 의하면, 시운이 순환하여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는데, 성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군자들이 同歸一體하여 경천순천의 근본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⁴⁾ 권학가에서는 군자들의 동귀일체를 경천순천의 근본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무자통문에서는 동귀를 바탕으로 친족의 굶주림과 이웃의 곤궁함을 돌보지 않는 도인들을 지적하였다. 도인들은 같은 연원을 받았으므로, 형제간 처럼 의논해야 하는데 형이 굶주리고 아우가 포식하고, 아우가 따뜻하고 형이 차가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유가 생긴후에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면 평생 구제할 수 없으니, 도인들은 각기 접에서 조금씩이라도 여력을 내서 도인들이 항심을 가지고 무극지대원을 닦게 하는 것이 일평생의 흥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학지도부는 무자통문에서 도인들에게 동귀일체를 강조하여 도인간에 서로 구제하게 함으로서, 항심을 가지고 수도에 전념하라고 한 것이다. 이상에서, 전라도지역까지 포교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1880년대 후반 동학지도부는 동귀일체, 연원을 들어 도인들간에 서로 구제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도지역까지 동학포교가 이루어진후 동학교도들이 급격히 많아지게 되자, 동학지도부는 늘어난 동학교도들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1891년 通諭十條를 동학교도들에게 하달하였다. 통유십조의 10가지 항목을 요약해 보면, 明倫, 守信, 守業, 臨事至公, 貧窮相恤, 男女嚴別, 重禮法, 正淵源, 講眞理, 禁滯雜이다.¹⁵⁾ 전라도지역 동학포교가 이루어진후, 동학교도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동학에 대하여 잘 모르는 동학교도들이 생겨났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늘어난 동학교도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유십조를 하달하여 동학교도들이 수도할 때 지켜야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먼저, 첫 번째 조항에서 우리 도는 무극대도로서 삼강, 오륜, 인의예지, 효제충신을 다하여 斯道の 이치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탁명한 것은 우리 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동학을 잘 모르고 탁명한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러 군자는 義를 중요하게 여기고 綱을 세워 敬天, 尊師하는 한가지 생각에 성의를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조항에서는 동학지도부가 동학에 탁명한 자들을 경계하면서, 동학교도들에게 경천, 존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수도에 있어서 먼저 信 한 글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에 임할때에도 또한 먼저 心 한 글자를 근본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용담유사의 도수사에서는 세상의 人道 중에 믿을 신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신의도 예의도 염치도 없이 자포자기로 장난만 하는 자는 난도자의 행동이고, 스승이 가르치지도 않은 도의 범도를 자기 멋대로 행하니 이 역시

황에서 대다수의 민중을 동학으로 끌어 들일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시형의 통속도덕은 체제비판의 논리가 결여되어 있어서 민중을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조경달(박맹수 옮김), 2008 위의 글, 68~81쪽)

13) 「해월문집」 『한국학자료총서9 -동학농민전쟁편-』, 305~308쪽

14) 「용담유사」 권학가 『동학사상자료집』 1, 132~133쪽

15) 「해월문집」 『한국학자료총서9 -동학농민전쟁편-』, 320~326쪽

난법자라고 하였다.¹⁶⁾ 도수사에서 신의를 강조했던 것은 난도난법자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동학지도부가 수도에 있어서 믿을 신 자를 강조했던 것은 동학교도들의 난도난법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하늘이 생기고 만민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곧 士農工商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입도하여 그 업을 지키지 않고, 한가롭게 도로에서 방자한 것은 도인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향산이 없으면 향심이 없는데, 어찌 부정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어떻게 修身齊家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입도한 사람들은 각자의 업을 지켜 安分樂道 수신제가하라고 하였다. 도인들에게 사농공상의 직분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은 최시형의 동학사상과 관련이 있다. 최시형은 그의 유훈에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천도를 받드는 것으로, 하늘의 도가 한 사람 한 집 사는 도에 매어져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농공상은 하늘이 명하신 것이므로 각각 직분을 지켜 천지 지성하여 무식함에 이름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최시형은 사농공상은 하늘이 정한 직분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천도를 받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통유십일조 세 번째 조항은 도인들에게 각자 사농공상의 직분을 지키는 것 또한 수도의 한 부분임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조항에서는 천하의 일에는 공과 사가 있는데, 공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말이 없고 모든일이 열매를 맺게 되고, 사를 따르는 사람은 원망하는 말이 많아지고 모든일이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도인들은 마음이 도에 머물도록 하여 아침하지 말고, 아침하고 험뜯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 사가 없이 공에 이르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은 도인들간에 사사로이 행동하지 말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고급에 통하는 義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 이르러 더욱 나타난다고 하였다. 환난상구 빈궁상홀 역시 선현의 향약에 있고 우리 도에 이르러 더욱 중요하므로 같은 도의 사람끼리 相愛相資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1888년 무자통문에서 동귀, 연원을 바탕으로 도인들간에 서로 구제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남녀유별은 예부터 내려온 규약으로 세간 사람들도 남녀의 義가 구별되는 것을 아는데, 마땅히 도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도인들간에 내외구별을 중요하게 여겨 혹 섞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남녀 교도들간에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일곱 번째 조항에서는 무릇 도라는 것은 예법이 중요한데, 전도하는 것에 착오가 있어 祭禮가 같지 않고, 道法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自尊自恃가 있어 따로 따로 일어나는데, 자존의 마음이 있지 않도록 하고 무릇 예법의 절차에 따라 상이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은 예법을 지키지 않는 동학교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덟 번째 조항에서는 정연원으로 각읍에 접주 한명을 정하여 입도자는 반드시 본읍의 접주에게 도를 받게 하여 연원을 바르게 하라고 하였다. 수도 등의 절차도 모두 접주의 지도를 따르도록 하고, 접주는 사람을 전도할때에 그 사람이 어진가를 상세히 살필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은 새로 입도하는 사람들과 접주간의 연원을 바르게 하여 동학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홉 번째 조항에서는 道에 특별히 便長 4員을 차정하여 각처를 순행하게 하여 여러 접을 두루 살펴서 지목이 있는 자를 서둘러 온전히 편안하게 거접하게 하고, 의심스러운 자는 각별히 효유하라고 하였다. 편장은 일정하지 않게 수시로 출입하여 歸眞歸正하도록 효유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편장을 정하여 여러 접을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교도들을 바로잡도록

16) 「용담유사」 도수사 「동학사상자료집」 1, 125~126쪽

한 것이다.

열 번째 조항에서는 여러 집에서 불순하게 교인을 효유하는 것은 엄하게 벌하고, 편장이 각처로 순행할 때 효유하지 않고 반대로 어지럽게 협잡하는 폐단이 있으면, 다시 차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여러 집에서 불순하게 교도들을 효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편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차정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접의 책임자나, 편장 등의 임무를 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엄벌하겠다는 동학지도부의 방침으로 볼 수 있다.

2. 伏閣上疏時期 東學指導部の 忠孝과 再次參禮聚會의 忠孝

전라도 지역까지 동학포교가 이루어진 이후, 동학교도들이 늘어나게 되자 정부의 탄압도 심해졌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지도부는 1892년 10월 공주취회를 개최하였다. 공주취회의송단자에서는 배다른 학문이 괴이한 말을 만들어 산곡에 퍼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스승 최제우가 동학을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동학은 유불선 삼교의 장점을 취하여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동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는 학문으로, “敬天地, 忠君上, 隆師長, 孝父母, 和兄弟, 恤鄉隣, 信朋友, 別夫婦, 教子孫之道至矣”라고 하였다.¹⁷⁾ 이 내용은 수신제가, 대인접물을 제외한 1883년 通諭十一條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앞서 보았듯이, 통유십일조의 내용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기존의 유교적 세계관과 크게 상충하는 부분이 없었고, 충, 효 등의 유교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이에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으로 동학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지도부는 공주취회에서 동학은 스승 최제우가 서학에 대응하고자 유불선 삼교의 장점을 취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1892년 11월 삼례취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동학을 설명하였다.¹⁸⁾

1892년 12월 都所 朝家回通에서는 최제우가 하늘을 섬기는 방법으로 충, 효를 가르쳤다고 하였다.¹⁹⁾ 이것은 최시형의 수행방법 가운데 충, 효를 인용하여 동학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93년 2월 복합상소문에서는 동학경전의 내용으로 동학이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설명하였다.²⁰⁾ 인의예지는 선성이 가르친 바이지만 수심정기는 최제우가 만든 것으로, 공자의 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다고 하였다. 조금 다른 것은 동학은 성경신 삼단으로서 천지를 공경스럽게 받들고, 천지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듯이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동학경전을 인용하여 동학을 설명한 것이다. 도덕가에서는 “수심정기 하여 내야 인의예지 지켜 두고 군자 말씀 본 받아서 성경이자 지켜내야 선왕고례 잃지 않으니 그 어찌 험의 되며 ……”라고 하였다.²¹⁾ 수덕문에서는 “인의예지는 선성의 가르침이고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 논학문에서는 동학의 주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모셔있는 한울님을 부모처럼 섬기면 ……”이라는 내용이 있다.²³⁾ 이를 통해, 복합

17)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 60~67쪽

18)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 71~75쪽

19)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 86~91쪽

20)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1, 92~97쪽

21) 『용담유사』 도덕가 『동학사상자료집』 1, 144쪽

22) 『동경대전』 수덕문 『동학사상자료집』 1, 22~23쪽

23) 『동경대전』 논학문 『동학사상자료집』 1, 15쪽

상소문에서는 동학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동학이 유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학지도부가 공주취회, 삼례취회, 복합상소를 전개하는 동안, 전라도 삼례지역에서는 동학지도부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1892년 11월 삼례취회는 전라도 각 지역 동학교도들과 수원 동학교도들까지 참가하고 있었고, 수천명이 모인 취회였다. 이들은 1892년 12월에도 계속 모여 있었다.²⁴⁾ 1893년 1월에 全璜準은 倡義文을 만들어 各郡 衙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²⁵⁾ 1892년 11월 삼례취회이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활동했던 이 세력은 복합상소시기 邪道라고 지목하는 것을 바로잡을 것과 외국의 선교사와 상인을 攘斥할 것, 지방관의 압제와 탐학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⁶⁾

특히, 이 시기 동학교도들이 서양세력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주목된다. 삼례취회세력의 일부와 이들과 연계한 동학교도들은 복합상소전후 서울척왜양방문운동을 펼쳤다.²⁷⁾ 삼례취회세력의 일부가 척왜양방문운동을 전개한 것은 당시 동학을 서학의 여파라고 지목하면서 탄압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전라도 지역에 동학이 포교된후, 수령들은 동학교도들을 서학의 여파라고 지목하면서 탄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892년 11월 삼례취회의 송단자에 잘 나타나 있다. 삼례취회의송단자에서는 동학을 서학의 여파라고 하여 열읍의 수령들이 늘어세워 조사하고 잡아 가두고, 錢財를 토색질하여 죽음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척왜양방문을 주도했던 세력은 동학은 서학의 여파라는 지목에 대하여, 동학은 서학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즉 동학과 서학의 대립축을 세우고, 동학이 이단이 아님을 주장하였다.²⁸⁾ 서울척왜양방문시기 동학교도들은 서학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했을 때에도 있었다.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하자, 동학은 서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제우는 동학은 서학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서학을 비판하였다. 안심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도를 서학이라고 음해하여도, 나의 도는 서학이 아니라고 하였다. 서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명인이 없고, 동학의 仙藥을 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⁹⁾ 권학가에서는 서학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부모의 혼백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도 안지내고 오를까지 버리면서, 오직 자기 자신은 천당에 가기만 원한다고 비판하였다. 동학의 하늘님만 공경하면, 피질에 걸려 죽을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최제우는 동학의 선약 등으로 동학과 서학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제사, 오를 등의 전통적 관습으로 서학을 비판하여 동학이 서학이라는 비난에 대응하고 있었다.

서울척왜양방문에서도 서학을 비판하고 있었다. 2월 14일 서울 기포드(Gifford)학당에 패서가 붙었다. 권학가에서 전통적 관습으로 서학을 비판했던 내용과 같이, 기독교는 正大를 버리고 兼愛를 좇는다고 하면서 俎豆를 버리고 淫祠를 행하니 聖賢이 말한 父와 君이 없다고 비판하였다.³⁰⁾ 그리고, 패서에서 '우리 道의 근본은 하늘에서 나왔고'라고 한 것을 통해

24) 「빠리의방전교회 연보 1878~1894」 『교회사연구』 제4집, 278쪽

25) 「천도교남원군종리원사」 (박맹수, 1995 위의 글, 191쪽 재인용)

26) 「동경일일신문」 1893년(명치 26년) 4월 19일자 (정창렬, 1991 위의 글, 70~71쪽 재인용)

27) 배항섭은 서울척왜양방문은 19세기 변란세력의 분위기를 보여주기에 때문에 모두 동학교도의 소행으로 보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삼례에 모인 세력 혹은 이들과 연계된 집단이나 개인이 주도하여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배항섭, 2002 위의 글, 169쪽)

28) 박영은은 교조신원운동기 이단논쟁의 대립관계가 동학과 서학의 이항대립 즉 '동학↔서학', 동학과 유교의 이항대립 즉 '동학↔서학↔유교' 이중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였다.(박영은, 2004 「동학운동에서의 현대성 동학운동 관련 포교문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와 탈현대를 넘어서』, 역사비평사, 244~248쪽)

29) 「용담유사」 안심가 「동학사상자료집」 1, 93~94쪽

30) 「동학문서」 『사료총서』 5, 76~79쪽

‘우리 도’를 하늘을 섬기는 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서의 작성자가 동학교도임을 알 수 있다. 또 패서의 작성자에 ‘궁을선생’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패서의 작성자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궁을은 동학의 부적에 나오는데, 본래 정감록의 십승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궁을선생이라는 작성자는 동학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2월 18일 미국인 존스(H. J. Jones)의 집 교회당 패서에서도 기독교를 비판하였다.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천주를 부정하였지만, 동학교도들은 그들도 천주를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천주를 부정하지 않았다.³¹⁾ 주로 전통적 관습, 풍습 등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세를 비판하였다. 기독교는 상제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단지 기도로서 글을 짓고 찬미로서 법을 삼아서, 결코 정심 성의의 학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가 없고, 옷사람을 따르는 도가 없고, 죽어서도 곡읍 분상의 절개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혼인의 풍습도 처음에는 야합하다가 결국 개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충의의 갑옷과 인의의 방패로 3월 7일 토벌하겠다고 선언하였다.³²⁾

3월 2일 일본 영사관 앞에도 패서가 붙었다. 임진왜란에 쳐들어 온 것 때문에 지금까지 복수심이 있는데, 다시 침략할 틈새를 보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 스승님의 넓은 덕으로 너희들을 구제할 수도 있으니, 속히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³³⁾ 패서에서 ‘우리 스승님의 덕’이라고 한 것을 보아 동학교도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패서에서 ‘중국의 문화가 먼 오랑캐까지 통하였고’라고 한 것을 통해, 화이론적 세계관으로 일본을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안심가에도 나온다. 개같은 왜적놈들은 임진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하늘님으로부터 손가락 쓰는 문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³⁴⁾ 하늘님으로부터 조화를 받아 개같은 왜적놈을 멸망시키고, 사적을 후세에 전하여 大報壇에 맹세하고 汗夷 원수 갚아보자라고 한 것을 통해, 최제우가 일본을 화이론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서울척왜양방문에서는 동학의 시각에서 서학을 비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동학교도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천주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전통적 관습, 풍습 등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의 자세나 생활의 측면을 비판하고 있었다.

삼례취회세력의 일부는 복합상소전후 서울에서 척왜양 패서를 붙이는 한편, 삼례에 남아 있었던 일부는 다시 취회를 개최하였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은 掃破倭洋을 주장하면서 활동하였다.

무릇 사람의 일에는 어려운 세가지가 있습니다. 절개를 세워 충성을 다해 나라를 위해 죽는 신하의 어려움, 충효에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다 죽는 자식의 어려움, 정절을 지켜 우러러 받들고 아름답게 지아비를 따라 죽는 지어미의 어려움입니다. 有生有死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고 有事無事는 때가 정해진 것입니다. 無事安樂한 시기에 태어나 즐거우니 충효의 도가 쉽고, 有事患難한 시기에 충효에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臣子の 어려움과 쉬움, 쉬움과 어려움입니다. 태어남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군부의 어려움에 죽지 아니하고 죽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

31) 표영삼, 1992 「보은장내리 척왜양창의(상)」 『신인간』 504. 서울척왜양방문에 대해서는 표영삼의 이 글을 참고하였다.

32) 「동학문서」 『사료총서』 5, 58~59쪽

33) 「日本商旅館展見」(배항섭, 2002 위의 글, 165~166쪽 재인용)

34) 「용담유사」 안심가 『동학사상자료집』 1, 95~98쪽

는 기꺼이 군부의 어려움에 죽습니다. 죽음을 아끼는 자는 臣子の 義를 능히 이룰수 없고 기꺼이 죽는 자는 능히 충효의 절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왜양의 적이 심복에 들어와 대란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임진년의 맹세와 병자년의 치욕이 있는데 어찌 차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차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방의 삼천조 지역이 모두 금수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오백년 종사가 장차 麥離之難을 당하려 하는데 仁義禮智 孝悌忠信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적은 원한의 마음에 禍가 많이 있고, 방자한 독을 품고 있어 위기가 조석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지금의 형세가 불과 뿔나무와 어찌 다르겠습니까. 생들은 어리석은 백성으로 선왕의 법을 물려 받고 國君의 땅을 경작하여 부모를 봉양하니 백성과 신하에 있어서 구분에 귀천이 있으나 충효가 가히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국가에 변변치 못한 충성을 바치고, 忠良으로 국록을 영구히 보전하고 진퇴에 있어서 愛君忠國의 정성을 걱정하니 생들은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큰 집이 장차 기울려함에 하나의 나무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가 어렵고, 큰 물결이 장차 일어나려고함에 작은 배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등 수백만은 힘을 합쳐 왜양을 제거하는데 죽기를 맹세하고 犬報之義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同志協力하여 有忠有義之士를 뽑아 모아서 국가를 돕고자 합니다.³⁵⁾

위의 통문에서,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에 뜻을 세워 왜양을 제거하여 국가에 충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왜양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이 충효사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은 전라도지역 동학포교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에는 충, 효와 같은 유교적 실천윤리가 있었고, 이것은 전라도지역에 동학이 포교되었던 1890년 전후시기에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동학을 접했기 때문에,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사상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은 동학과 서학의 대립축을 세우고 서학을 비판했던 동학교도들의 신원운동방식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충효를 바탕으로 왜양의 제거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이다.

통문에서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에 뜻을 세워 왜양을 제거하여 국가에 충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충효는 재차삼례취회세력이 왜양을 제거하여 국가에 충성하는 이유가 되었다. 동학지도부가 시천주의 수행방법으로 충효를 설명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를 왜양의 제거라는 국가적 이해와 관련시켜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재차삼례취회세력이 자신들의 존재를 사회국가차원으로 일반화시켜 公論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이 이 통문을 환영에 네 번 정소하고, 전라도 53개 지역과 부산성문, 충청도지역까지 게시했던³⁶⁾ 것도 공론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3. 報恩聚會의 忠義와 斥倭洋倡義

보은취회가 시작된 1893년 3월 11일 보은 三門外에 報恩官衙通告가 게시되었다. 보은관

35) 「동학문서」 『사료총서』 5, 63~65쪽

36) 「동학당봉기일건」 『사료총서』 19, 126~128쪽 ; 『일본외교문서』(한국편) 5, 471~472쪽 ; 『승정원일기』 광서19년 기사 2월25일 무인

아통고는 재차삼례취회 통문과 같은 내용이다. 최시형은 11일 ‘衛道尊師’, ‘輔國安民’을 내용으로 한 통유문을 만들고 보은취회를 개최하였다.

1893년 3월 13일 각처 동학교도들은 보은 俗離面 帳內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3월 16일에 보은취회세력은 ‘東學人令’을 만들어 斥倭洋의 義理를 주장하였고, 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에 화가 미쳐 성인이 걱정이 있어 大道를 가르치니 무릇 우리 道人은 一心을 지켜온지 몇 년이 되었다. 忠孝에 뜻을 세우고 죽기를 맹세하여 변함이 없으니 齊家治國의 마음이 책임이 있는 자는 상응할 징조가 있다. (중략) 지금 國勢가 거꾸로 매달려 위급한데 그 해결을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비록 초야의 土民이나 先王의 緣을 물려 받아 祖先을 보전하고 國君의 땅을 경작하여 부모를 공경하니 臣民의 직분은 비록 다르나 義는 하나이다. (중략) 옳드려 바라건대 僉員道儒는 한마음 한뜻으로 妖氛를 掃淸하고 다시 宗社를 세워 다시 重光의 日月을 보고자 하니 어찌 士君子의 忠孝의 道가 아니겠는가.³⁷⁾

위의 자료를 통해, 먼저 동학인령에서는 재차삼례통문과 비슷하게 “忠孝에 뜻을 세우고 죽기를 맹세하여 변함이 없으니”, “士君子의 忠孝의 道”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은취회세력은 의를 세우고 왜양을 제거하여 국가에 충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재차삼례취회통문의 충효와 마찬가지로 의를 왜양의 제거라는 국가적 이해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왜양의 제거와 관련되었던 재차삼례취회의 충효가 보은취회에서 충의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보은취회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5개 도의 42개 군현 이만여명의 동학교도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보은취회의 창의를 공주취회이후 재차삼례취회를 거쳐 보은취회단계에서 신원운동이 최제우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국가적인 차원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측면에서 재차삼례취회를 거쳐 보은취회단계에서는 공론의 형성이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보은취회에서는 斥倭洋倡義의 기치를 내걸었다. 20일 탐지문에 의하면 보은취회의 大旗에는 斥倭洋倡義, 五色旗가 다섯방향에 세워져 있었고, 中旗에는 忠義 善義 尙功 淸義 水義 廣義 洪慶 靑義 光義 慶義 威義 竹義 振義 沃義 茂慶 龍義 楊義 黃豊 金義 忠岩 江慶 등이 쓰여져 있었다.³⁸⁾ 이를 통해 취회에서 전면적으로 倡義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은군수와 보은취회 참가자의 문답가운데서도 ‘主辱臣死의 義’의 처지에서 忠義는 하나이고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충의에 뜻을 세워 왜양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생령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방백수령들은 탐학무도하고 유세호가들은 무단무절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왜양을 제거하여 국태민안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다.³⁹⁾ 보은취회세력은 충의를 주장하여 신원운동을 최제우의 신원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전체로 일반화시켜 자신들의 근본문제인 수령탐학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37) 「취어」 『사료총서』 2, 39~42쪽

38) 「취어」 『사료총서』 2, 33쪽

39) 「취어」 『사료총서』 2, 37~38쪽

맺음말

최시형 등의 동학지도부는 경상도, 강원도 지하포교시기를 거쳐 1880년대 중반부터 충청도, 전라도지역에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정부의 탄압이 점점 심해졌고, 이에 대응하고자 동학지도부의 통문에 삼강오륜 등의 유교적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1890년 전후 전라도 지역 동학포교의 내용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이었다. 최시형은 시천주 관념을 모든 사람과 사물로 확대시켰고, 자신의 직분에서 待人接物을 실천하는 것이 곧 시천주 수행방법이었다. 즉 백성, 자식, 형제, 이웃 등 각각의 직분에서 국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을 구휼하는 것이 곧 시천주 수행방법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물에도 적용되었다. 전라도지역에 동학포교의 내용은 시천주 수행방법가운데 忠孝, 睦族, 救貧 등이 강조되었고, 충효 등의 유교적 실천윤리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1880년대 후반 동학지도부는 동귀일체, 연원을 들어 도인들간에 서로 구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라도지역에 동학포교가 이루어진후, 동학교도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학지도부는 늘어난 교도들을 관리하고자 통유십일조를 하달하였다. 동학지도부는 敬天, 尊師, 信, 士農工商, 相愛相資 등 수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동학에 탁명한 자들을 경계하고, 亂道亂法, 自尊自恃를 막고자 하였다. 淵源을 바르게 하고, 接, 便長 등의 동학의 조직체계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전라도지역 동학포교이후, 동학에 대해 잘 모르는 교도들이나 동학지도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교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학교도들의 증가로 정부의 탄압도 심해졌다. 이에 동학지도부는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92년 11월 공주취회, 12월 삼례취회에서는 최제우가 서학에 대응하고자 유불선 삼교의 장점을 취해 동학을 창시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 효 등의 유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으로 동학을 설명하였다. 1893년 2월 복합상소문에서는 동학경전의 내용을 인용하여 동학은 유교와 조금 다르다고 하였다. 조금 다른 내용은 동학의 수심정기인데, 수심정기는 천지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주취회부터 복합상소시기까지 동학지도부는 최제우가 서학에 대응하고자 유불선 삼교를 합하여 동학을 창시했다는 내용, 동학경전의 내용으로 동학이 이단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복합상소전후, 동학교도들은 서학을 비판하는 내용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삼례취회세력의 일부와 이들과 연계된 세력은 서울척왜양방문운동을 펼쳤다. 당시 동학은 서학의 여파라고 지목되어 탄압받고 있었다. 서울척왜양방문을 주도했던 세력은 동학과 서학의 대립축을 세우고 동학은 서학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최제우 동학포교의 내용이었다. 최제우가 동학을 포교했을 당시에 동학은 서학이라는 탄압받았다. 이에 최제우는 동학은 서학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서학을 비판하면서 대응하였다. 서울척왜양방문에서도 동학의 시각에서 전통적 관습, 풍습 등을 근거로 기독교인들의 자세나 생활의 측면을 비판하였다. 한편, 방문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력적 행동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삼례취회세력의 일부는 복합상소전후 서울척왜양방문 활동을 하는 한편, 삼례에 남아 있었던 일부는 다시 취회를 개최하였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로 왜양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전라도지역의 동학포교는 1890년 전후시기에 이루어졌고, 이때 동학포교의 내용은 최시형의 시천주 수행방법이었다. 수행방법가운데 충효, 목족, 구빈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동학포교가 이루

질때 동학을 접했기 때문에, 재차삼례취회세력은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활동했던 것이다. 서울척왜양방문시기 동학과 서학의 대립축을 세우고 서학을 비판했던 운동방식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충효를 바탕으로 왜양의 제거를 주장하였다.

최시형 등의 동학지도부는 시천주의 수행방법으로 충효를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재차삼례취회세력의 충효는 왜양의 제거라는 국가적 이해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이것은 재차삼례취회세력이 자신들의 존재를 사회국가적 차원으로 일반화시켜 공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차삼례취회의 충효는 보은취회의 충의로 이어졌다. 보은취회에서는 척왜양 창의를 기치를 내걸고 전국의 동학교도들이 모였다. 이것은 보은취회단계에서 신원운동이 최제우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국가적인 차원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학농민전쟁기 집강소의 위상과 평가

김양식(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1. 머리말
2. 집강소 연구상의 제문제
3. 새로운 집강소 이해를 위하여

1. 머리말

1920년 『천도교서』에서 집강소가 처음으로 언급된 이래, 집강소 연구는 1894년 농민전쟁에 관한 연구중 가장 많은 업적이 축적된 상태이다. 기왕의 집강소 연구는 크게 두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집강소에 관한 『동학사』 기록을 1차 자료로 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동학사』를 2차 자료로 보거나 부정하려는 경우이다. 집강소에 대한 이해의 관건은 『동학사』 기록을 어떠한 각도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집강소와 관련한 주요한 연구성과를 정리한 것이다.¹⁾

연구자(년도)	전주화약	설치시기	폐정개혁안	성 격
신용하(1985)	관련	5월	12개조 인정	농민 권력기관
정창렬(1991)	무관	7월 6일 公認	12개조 인정	자치 행정기관
노용필(1992)	무관	6월초 公認	12개조 부정	道政 협조기구
김양식(1996)	무관	7월 6일 공인	12개조 부정	치안기구
조경달(1998)	무관	6월초 공인	12개조 부정	치안기구

위 표에서 보듯 기존 연구는 집강소의 설치과정과 활동·성격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큰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다. 집강소의 설치과정은 그것이 전주화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화약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과의 협의과정에서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신용하)는 『동학사』의 기록에, 후자의 경우(정창렬·노용필·김양식·조경달)는 『전봉준재판판결문』과 『갑오약력』 등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가 심화될 수록,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측과 정부측과의 타협속에서 집강소의 설치과정을 찾으려는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80년대

* 본 발표문은 1993년에 발표한 「전주화약기 집강소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사학지』 26)을 토대로, 그 이후 집강소 연구성과(조경달)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 1) 신용하, 1985 「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설치」 『한국학보』 41.
 정창렬,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노용필, 1992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44.
 김양식, 1996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신서원).
 조경달, 1998 『異端의民衆反亂』(岩波書店); 박맹수 역, 2008 『이단의 민중반란』(역사비평사).

말부터 『동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비판이 제기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만, 설치과정은 자료 해석상의 차이로 6월초(노용일·조경달)와 7월 6일설(정창렬·김양식)로 크게 나뉘어 있다.

그리고 집강소의 활동과 성격은 집강소가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는 대전제하에, 그 내용이 『동학사』의 12개조 폐정개혁안이었는지, 추진방법에 있어서 지방행정력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학사』에 제시된 폐정개혁 12개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도 좌우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노용필은 『동학사』를 전면 부정하고 정부측의 甘結과 曉諭文 및 전봉준의 집강소 앞 通文 내용에만 근거하여, 집강소가 정부측의 협조기구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에 김양식과 조경달은 집강소를 치안기구로 보면서, 폐정개혁을 주도한 자치기구로 도소를 주목하였다.

이상이 최근의 집강소에 대한 연구경향이나, 연구 시각과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왕의 연구는 집강소의 설치과정과 활동에 있어서 아직 많은 합의점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성격규정에 있어서도 농민 통치권력기관에서부터, 단순히 도정 협조기구에 불과했다고 보는데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성과로 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를 분리시켜 보고, 집강소 설치과정을 전주화약 이후 정부측과 농민군측과의 타협속에서 찾으려 하는 점 등은 일반적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학사』에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역사적 실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집강소 활동과 그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측과 농민군측과의 타협에 따른 집강소 운영은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역학관계와 이에 따른 운동의 전이과정을 소홀히 다루어, 『동학사』의 기록을 확대 평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연구경향도 있었으며 집강소가 설치 운영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해석차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자료에 대한 비판과 자료간의 엄밀한 대조가 부족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지영의 『동학사』를 2차 자료로 취급하면서, 당시의 1차 자료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그 속에서 『동학사』의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지적은 일반론적인 문제제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 『동학사』를 맹신하거나 전면 부정함으로써 범한 오류를 극복하고, 또 『동학사』를 중심으로 한 연역적인 연구방법을 지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집강소 연구상의 제문제

1) 자료 이용상의 문제점

집강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까지 널리 이용된 자료는 『동학사』·『갑오약력』·『오하기문』·『수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다른 어느 자료 보다는 집강소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자료에 대한 비판과 사실에 대한 철저한 고증 없이 연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학계에서 집강소 연구상의 고전처럼 인식되어 널리 이용된 『동학사』 기록은 집강소의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기존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

렇지만 이미 『동학사』를 1차자료로 볼 수 없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던 만큼,²⁾ 집강소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신빙성을 두는 연구자세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남아 있는 1차자료들은 대부분 전해들은 내용이거나 후대에 기록한 것들로서 오류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왕왕 발견되는 문제점의 하나는 특정자료에 매몰된 나머지, 그 기록을 침소봉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다.

종래 자료 이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예를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아래 자료는 1894년 7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전주에서 있었던 전봉준과 김학진의 회담에 관한 『갑오약력』의 기록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강소의 설치과정과 성격이 달라진다.

“6월 관찰사는 전봉준 등을 감영으로 請邀하였다. 이때 수성군졸들은 각자 총창을 가지고 좌우에 정렬하였다. 전봉준은 峨冠麻衣한 채 당당히 들어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관찰사는 전봉준과 官民相和之策을 의논한 뒤 각군에 집강을 두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東徒들은 각 고을에 할거하며 공해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書記·省察·執事·童蒙과 같은 직임을 두었는데, 완전한 관청을 이루었다. 동도들은 날마다 民財를 토색하였고 소위 畝率는 단지 명위만 있어 행정을 할 수 없었다. 심한 경우 동도들은 읍재를 축출하기도 하였고, 이서들은 모두 東黨에 들어가 목숨을 보전하였다.”³⁾

이 기록은 본문에 6월초로 되어 있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차이를 낳고 있다. 신용하와 노용필·조경달은 원문대로 6월초로 해석하고, 이이화와 정창렬은 7월의 오기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노용필과 조경달은 이 기록을 6월초로 해석하여, 6월초와 7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전봉준과 김학진 사이에 전주회담이 개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조경달은 6월초 1차 전주회담에서 집강소 설치에 합의한 뒤 7월 6일 2차 회담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갑오약력』 하나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전봉준과 김학진과의 전주회담은 7월 6일 한번 뿐이었고 이 회담에서 집강소문제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시 기록은 이용상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고찰없이 특정 사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예는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是月望間 琿準開南等 大會于南原 衆數萬人 琿準傳令各邑布中 邑設都所 樹其親黨爲執綱行守令之事 於是道內軍馬錢糧 皆爲賊有.”⁴⁾

2) 『東學史』에 대한 자료비판은 盧鏞弼, 1989 「吳知泳의 人物과 著作物」 『東亞研究』; 李離和, 1989 「吳知泳 <東學史> 내용검토」 『민족문화』 12; You-ng Ick Lew, 1990 "The Conservative Character of 1894 Tonghak Peasant Uprising: A Reappraisal with Emphasis on Chon Pong-jun's Background and Motivatio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7.

3) 鄭碩謨, 「甲午略曆」 『東學亂記錄』 上, 65쪽.

4) 『梧下記聞』 2, 갑오 7월조, 61쪽.

이 기록은 종래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소위 ‘남원대회’를 알려주는 자료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是月望間’이 6월 15일경인지 7월 15일경인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⁵⁾ 그러나 이 기록이 『오하기문』 7월 조라는 점, 6월 15일경 전봉준 일행이 玉果를 거쳐 光州로 향하고 있었던 점, 김개남과 전봉준부대가 각각 6월 25일과 7월 2일경 남원으로 진입했다고 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이달 망간은 6월이 아닌 7월 15일경이다.

그렇다면 6월 말에서 7월 중순에 이르는 동안, 각지를 순행하던 전봉준은 7월초 남원 진입 ⇒ 7월 6일 전주에서 김학진과의 회담 ⇒ 7월 15일경 ‘남원대회’, 집강소 설치 전령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었다. 따라서 7월 15일경 ‘남원대회’와 집강소 設置令은 전주회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黃玟은 『오하기문』에서 이 부분을 綱目體로 서술하여,⁶⁾ 위 기록 다음에 전주회담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7월 15일경의 상황은 7월 6일 전주회담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같은 검토없이 농민군의 집강소 설치만을 강조한 나머지, 위 기록을 전주회담과 분리시켜 분석하였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위 기록에 근거하여 6월에 이미 집강소가 전라도 50여 고을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주회담과 관련해서 볼 때 이는 재고되어야 한다.

이같은 예를 통해서 볼 때, 자료에 대한 치밀한 고증과 상호 비교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그 정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어, 특정한 자료에만 근거하는 경우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같은 자료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속에서, 집강소의 설치조건과 그 과정 및 조직·활동 등을 보다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집강소 해석상의 문제점

집강소는 어디까지나 전주화약 이후 정부측과 농민군측의 타협과정에서 설치된 산물이었다. 집강소가 설치 운영된 시기는 기본적으로 농민군측과 정부측과의 사실상 휴전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측의 타협과 일정한 양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같은 기본적인 시각은 집강소의 설치과정·기능 및 설치지역과 시기를 규정하는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집강과 집강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집강이란 직책은 1894년 농민전쟁기에 새로 두어진 집강 외에, 기존 향촌사회에 존재하던 집강과 동학조직상의 집강이 있었다. 동학교단은 1883년 3월에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이라는 6임제도를 제정하여 포교사업을 하았는데, 이들 역시 농민전쟁기에 큰 활약을 하였다.⁷⁾ 따라서 집강이란 용어가 각 자료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바, 그것이 어떠한 집강을 지칭하고 그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집강과 집강소 해석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이화는 7월 15일경(1990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8, 344쪽), 정창렬은 6월 15일경(앞의 논문, 211쪽), 노용필은 6월 중순경(앞의 논문, 114~15쪽)으로 보고 있다.

6) 『梧下記聞』은 기본적으로 編年體 형식이나, 종종 記事體와 綱目體로 기술된 부분도 있다(李離和, 1991 「黃玟의 <梧下記聞>에 대한 內容 檢討」 『書誌學報』 4, 13쪽).

7) 『天道敎書』 2편, 34쪽.

(1) 집강(소)의 기능

1894년 당시 집권층은 농민전쟁의 수습방안으로써 집강의 역할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혹은 정부측에 의해 농민전쟁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구상되기도 하고, 혹은 보수세력에 의해 농민군을 토벌하는 방안으로 모색되기도 하였다.⁸⁾ 1895년 11월 지방제도 개혁시 면장을 집강으로 일원화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⁹⁾

전주화약 이후 농민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측의 첫 방안은 면리 집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면리 집강의 주요기능의 하나가 교화와 치안에 있었던 만큼, 사회통제책을 강구하던 정부측 입장에서는 집강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었으며 실제 면리에는 집강들이 임명돼 있었다.

이러한 면리 집강의 존재는 종래 집강소 연구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강소 해석상의 쟁점 하나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5월 20일 전후 전라감사 김학진의 효유문에 나오는 “爾等所去面里 各置執綱 如有爾等冤鬱之可言者 該執綱具由訴營門 以待公決事”에서,¹⁰⁾ 김학진이 말한 집강의 존재이다. 이는 김학진이 내놓은 첫 농민전쟁 수습방안이었다. 이 기록은 집강소의 설치 계기와 시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되었고 그 해석 결과도 다양한 실정이다.¹¹⁾ 발표자가 보기에 이 효유문상의 집강은 기존 향촌사회에 면리 단위로 존재하던 집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을 조속히 귀가시켜 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유지하려는 김학진의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첫 수습방안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제도적인 틀내에서 그 방법을 찾았을 것이며, 그것이 곧 향촌사회의 풍기를 단속하고 시비를 살피는 집강들을 통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었다. 특히 당시 집권층은 사회혼란과 농민전쟁을 향약과 오가작통제를 통해 수습하려고 했던 만큼,¹²⁾ 그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면리 집강을 적극 활용하려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리 집강안은 농민군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김학진은 6

8) 申榮祐, 1991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醴泉·尙州·金山의 事例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9) 『韓末近代法令資料集』 1, 602~605쪽, 鄉約辦務規程 참조.

10) 이 曉諭文은 金堤에 5월 19일자(『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114쪽), 茂朱에 5월 22일자로(『隧錄』, 37~39쪽, 甘結) 발송되었고 泰仁에 5월 22일경(『兩湖電記』, 5월 22일 전보), 求禮에 6월 3일 각각 도달되었다(『梧下記聞』 2, 39~41쪽). 종래에는 발신일을 수신일로 착각하여 5월 중순(노용필, 앞의 논문, 103쪽), 또는 15일경(정창렬, 1991 앞의 논문, 195쪽) 에 동일 발송된 것으로 보았으나, 전주 監營에서는 위 김제와 무주 예와 같이 5월 20일 전후 시차를 두고 효유문을 보냈다.

11) 신용하는 농민군에 의해 郡 집강이 이미 설치되는 가운데 面里 집강을 새로 임명토록 김학진이 제의한 것으로(앞의 논문, 78쪽), 이이화와 정창렬은 농민군이 이미 임명한 면리 집강을 김학진이 인정한 것으로(1990 앞의 논문, 344쪽; 1991 앞의 논문, 196쪽), 노용필은 김학진이 농민군으로 하여금 면리 집강을 임명토록 제의하여 이를 계기로 집강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103~104쪽). 발표자는 종전의 연구에서 기존 면리 집강으로 보았으나, 그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면리로 귀향한 농민군들이 면리단위로 집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 집강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강소의 집강과는 다른 것으로, 기존의 면리 집강과 같은 성격의 집강으로 실제 농민군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12) 吳永敎, 1991 「19세기 사회변동과 五家作統制의 전개과정」 『學林』 12·13합집; 申榮祐, 1991 앞의 논문, 308~68쪽 참조.

월 7일에는 부랑배 단속과 같은 치안기능을 담당할 집강을 농민군측에서 직접 뽑도록 하는 요지의 새로운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¹³⁾ 김학진은 면리 집강을 활용하려는 당초의 방안에서 크게 후퇴하였지만, 여전히 執綱案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수습방안은 기존의 통치관념과 제도적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집강은 향촌사회의 교화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향촌자치기구의 대표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동학조직과 동학농민층을 인정하고 이들을 제도적인 틀내로 끌어들이 자치기구화한 다음 이를 통해 사회안정을 꾀하려 할 경우, 정부측은 집강이란 명의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통치관념과 제도적 관행과도 모순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집강소의 기원을 기존 향소의 집강제도에서 찾으려는 지금까지의 견해나,¹⁴⁾ 전주화약 이후 정부의 입장에서 수습방안으로 구상된 집강소가 농민군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는 시각¹⁵⁾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렇다면 농민군의 폐정개혁기구인 집강소가 이미 5월에 설치되었고, 이를 정부측에서 사후에 追認하였다는 종래의 통설¹⁶⁾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통설의 근거는 대부분 5월 20일 전후의 김학진 효유문과 淳昌 사례¹⁷⁾ 및 ‘太守의 일을 행하는 집강을 임명하였다’는 『梧下記聞』 5월조의 기록이다.¹⁸⁾ 그러나 5월 20일 전후의 김학진 효유문에 나오는 집강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방식대로 면리 집강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농민군 집강을 새로 임명 또는 추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5월 하순에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순창은 종래 자료 이용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는 분명 『오하기문』 6월조에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월조로 파악되고 있다.¹⁹⁾ 더욱이 5월 21일경 순창군수는 농민군이 귀화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²⁰⁾ 전봉준과 김개남이 이끄는 농민군이 순창에 들어왔던 6월 8일경 순창군수 李聖烈은 휴가차 귀가하여 관아에 없었다.²¹⁾ 순창군수가 집강소 설치를 허용한 시기는 적어도 6월 7일 김학진이 농민군으로 하여금 집강을 뽑도록 제의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오하기문』의 기록은 5월조로 되어 있어 각 고을에 집강이 임명돼 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과연 이 기록이 5월 하순경의 상황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5월 하순 전봉준은 농민군의 불법행위를 적극 금지하는 등 농민군을 절제시키면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군 지도부가 수령의 역할을 담당

13) 金星圭, 『草亭集』 3, 韓國人文科學院(1990), 四諭道內亂民文, 228~29쪽.

14) 노용필, 앞의 논문, 95~98쪽.

15) 洪性讚, 앞의 논문, 68~69쪽.

16) 신용하와 이이화는 5월중에 전라도 대부분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았고, 정창렬과 노용필 및 조정달은 5월 하순부터 지역에 따라 집강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6월 7일자 ‘四諭道內亂民文’을 계기로 군현 단위의 집강소체제가 김학진에 의해 사실상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았다. 조정달을 제외한 네 사람 모두 농민군에 의해 주체적으로 설치된 집강소를 김학진이 사후에 追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달은 김학진이 제안하여 집강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17) 『梧下記聞』 2, 갑오 6월조, 42쪽.

18) 위의 책 1, 갑오 5월조, 104쪽: “又於每邑 就治設接 謂之大都所 差一人接主 行太守事 謂之執綱 不論官之有無也 都所又稱大義所.”

19) 정창렬, 앞의 논문, 201~202쪽; 노용필, 앞의 논문, 104쪽.

20) 『兩湖電記』, 5월 21일 전보.

21) 金在洪, 『嶺上日記』, 6월조, 15쪽.

하는 집강소를 임명할 개연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위 자료에 근거하여 농민군의 폐정개혁기구인 집강소가 5월에 이미 설치되었다는 종래의 설은 잘못이다. 집강소가 설치되는 계기는 5월 하순경부터 6월 초순 사이 전봉준과 김학진의 교섭과정에서 찾아져야 하며, 그것도 김학진이 6월초에 제의한 집강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집강소 조직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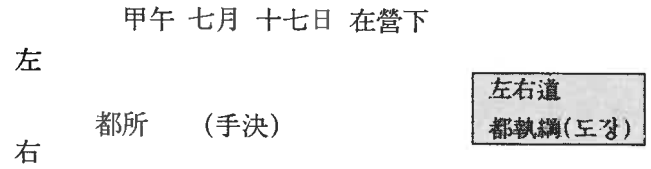
당시 자료상에는 包·接·接所·都所·都會所·道所·義所 등과 같은 용어가 산견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는 이들 명칭을 집강소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²²⁾ 그러나 이들 명칭은 일단 집강소와는 구별해서(때로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아야만 한다.

동학조직은 기본적으로 包接制에 근거하였다. 접은 인맥 중심의 동학 기본단위이며, 또는 그 접이 淵源하는 大接主 휘하의 여러 접이 모여 이루어졌다.²³⁾ 그리고 接所는 기본적으로 그 接率들이 모이는 곳이며, 都所=都會所는 여러 포접이 모이는 장소 내지 운동본부이다.²⁴⁾ 義所는 1894년 1차 농민전쟁기에 농민군의 총본부를 '濟衆義所'라고 한 것이나, 9월 재봉기 이후 전봉준 등이 東徒 倡義所 명의로 고시문을 발한 사실,²⁵⁾ 그리고 崔時亨이 주도하는 북접교단이 9월말 이후 전에 일컬었던 法所와 道所를 창의로 개칭하고 무력투쟁에 나선 것으로 보아,²⁶⁾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의소는 곧 동학농민군이 무력투쟁을 전개할 때 그 본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같은 용어는 집강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같은 문제가 파생되는 원인은 전주화약 이후부터 9월 재봉기 이전까지의 농민군 조직과 활동을 집강소만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타의 농민군 개별 또는 전체 조직체를 집강소로 확대 해석하거나, 이 시기 모든 농민군의 활동을 집강소 활동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집강소는 그 시기 농민군 조직과 활동의 부분이었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집강소의 조직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산견되는 包·接·接所·都所·都會所·道所·義所를 일단 집강소와 분리하여 분석한 다음, 집강소와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대도소는 집강소보다 상위 조직체계로 대도소≥집강소의 관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전라감영 안에 전라좌우도소가 설치되고 그 안에 도집강 송희옥이 근무하는 집강소가 있었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²⁷⁾

22) 신용하, 앞의 논문, 69~70쪽; 정창렬, 앞의 논문, 200쪽.
23) 金龍德, 1974 「東學軍의 組織에 대하여」 『韓國思想』 12, 236~46쪽 참조.
24) 1892년 東學教壇은 報恩 帳內에 都所를 정한 뒤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였고(『天道敎書』 2편, 52~53쪽), 1893년 3월 보은집회 때는 그 본부를 都會所 또는 昌義所라고 하였다(『聚語』 『東學亂記錄』 上, 114쪽).
25)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膺書」 『東學亂記錄』 下, 380쪽.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3쪽.
27) 전주 대도소에서 무주 집강소 앞으로 보낸 7월 17일자 통문(<수록>) 발송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3. 새로운 집강소 이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전주성 철수 이후의 농민군 조직과 활동은 지나치게 집강소만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농민군 조직을 집강소로 획일화시켜 확대 해석하거나, 이 시기에 나타난 모든 농민군의 활동을 집강소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집강소는 실제 이상으로 과대포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894년 5월부터 9월 재봉기까지의 농민군 조직과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정부측과의 타협을 통해 집강소를 적극 추진한 세력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세력도 있었다. 도내의 치안유지에 주력한 층이 있었는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경투쟁에 앞장섰던 부류도 있었다. 농민군 조직도 대도시 단위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던 상태였다. 이런 여러 상황으로 보아 정부측과의 타협을 통해 집강소를 이끈 전봉준의 이념과 노선은 농민군 전체로 보면 일부분이었다.

그 때문에 당시 기록도 지역적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기록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는 특정 사료, 특정 지역의 사례를 일반화시키거나 자신의 논리만을 정당화시키려는 근거로 활용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 집강소가 설치 운영되던 시기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첨예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하층민농으로 구성된 농민군과 민보군(民堡軍)을 조직한 양반부민 사이의 계급대립과 투쟁이 점차 현저해지고, 6월 21일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이 보다 노골화되고, 중앙권력이 민씨정권에서 개화파정권으로 바뀌어 갑오경장이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농민군 내부의 주체적 조건과 급변하는 국내외의 객관적 정세는 농민군 지도자들의 현실인식과 투쟁노선을 분화시키고, 그것을 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강소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전봉준이 전라감사 김학진과 타협을 하고 집강소체제를 7,8월간 유지한 이유가, 첫째 일본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민족적 위기에 따른 도내의 치안유지와 안정 필요성, 둘째 일·청군의 동향과 농민군 힘의 한계, 셋째 군국기무처의 개혁정책과 대원군의 정계 복귀에 있었던 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각지에서 봉기한 많은 농민군은 전봉준의 지도노선에 반대, 보다 직접적인 계급투쟁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5월에서 8월 농민군의 투쟁노선은 전봉준 주도의 타협적인 온건노선과 농민군 일반의 비타협적인 강경노선으로 분화되고 있었다. 전자는 정부측과의 타협을 통해 집강소체제를 도출해낸 반면, 후자는 정부와의 타협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반봉건·반침략투쟁을 지향하였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라도내 집강소를 총괄하는 도집강은 좌우도소에 소속되어 있고 좌우도소와 집강소가 동일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당시 농민군조직의 전체상을 놓고 볼 때 좌우도소는 농민군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이 이끄는 보다 큰 조직틀로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도소와 집강소가 동일시된 것은 7,8월 좌우도소 운영체제가 집강들을 중심으로 한 집강소체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소와 집강소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같은 사실은 순천에 있던 嶺湖大都所의 조직이 嶺湖大接主에 김인배, 嶺湖都執綱에 鄭虞炯이었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쪽과의 타협을 통해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 주요기능이 치안유지였던 점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여기서 타협과 치안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다만, 평가에 앞서 전체가 되어야 할 점은 그 주도권을 농민군쪽에서 잡고 있었다는 점, 농민군이 정부의 타협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하였고 타협의 결과 농민층이 합법적으로 폐정개혁을 주도하고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등 정치적 주체로 나선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1945년 해방 직후 지방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주요기능의 하나가 치안유지였던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집강소가 비록 타협의 산물이고 치안기구였지만, 실제 그것은 농민군 투쟁본부인 도소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농민군의 합법적 활동공간을 확대하였다. 사실상 농민군이 주도하는 집강소는 이중권력하에서 두 세력이 만나는 매개체이자 접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집강소는 도소와는 별개로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 역사상 농민들이 최초로 투쟁을 통해 얻은 정치적 성과물이자 민중 주체의 치안 권력기구였던 것이다.

끝으로 전주화약 이후부터 집강소가 설치·운영되는 시기는 ‘전주화약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집강소체제라는 용어 자체는 성립 가능하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시기구분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조정달은 ‘도소체제’라는 용어가 집강소체제보다 훨씬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농민전쟁 전시기를 거쳐 농민군의 투쟁본부가 도소였던 점, 지역 분산적인 도소가 하나의 체제로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집강소와 도소는 일단 별개의 문제이지 동일선상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점 등을 놓고 볼 때, 오히려 부적절하다. 또한 농민군 입장에서만 접근시 가능한 용어일 수도 있겠으나, 청일전쟁과 갑오경장 등 5-8월 전체를 포괄하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용어는 아니다.

1894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시기는 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전주화약을 맺고 철수한 점, 7월 6일 전주회담에서의 대타협으로 집강소체제가 성립된 점을 놓고 볼 때 ‘전주화약기’로 시기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1차 전주화약, 후자는 2차 전주화약으로, 두 화약 모두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문제는 전라도 외의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는 5-8월 농민전쟁의 중심축이 전주화약에 있었다는 점, 그 때문에 전라도 외의 지역도 정부와 큰 충돌없이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가능했으며, 투쟁공간이 확대·확산됨으로써 9월에 재봉기할 수 있는 에너지 비축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1894년 5~8월 시기는 ‘전주화약기’로 구분하되, 집강소와 도소를 중심으로 농민군의 활동상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農民戰爭期 지배층의 대응 - 鄉約 실시를 중심으로

이 상 찬(서울대/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1. 호남지역 사례
2. 호서 지역의 사례
3. 관동 지역의 五家作統과 鄉約

1. 호남지역 사례

1) 1894년 나주 지역의 향약

나주 목사 민중렬은 수성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을 방어, 공격, 해산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동시에 또한 향약을 실시하여 농민군 해산을 유도하고, 농민전쟁 이후의 농촌사회를 수습하려고 하였다.

민중렬은 1893년 12월 나주부사 부임과 동시에 향약을 마련하여 189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향약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향약을 講修하였다. 藍田의 옛 규약에 따라 德業相勸, 過失相規, 患難相恤, 疾病死喪相救助하게 하였다. 그리고 善惡籍을 두어 선한 자는 善籍에 쓰고 악한 자는 惡籍에 썼다. 매월 초1일이면 각리의 리정은 면 약정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면 약정은 도향약장에게 보고하여 상벌의 뜻을 시행하였다. 규약을 정하고 도장을 찍어 향약절목을 각면에 나누어 주었다.”¹⁾

藍田의 옛 규약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전통적인 향약과 비교할 때 ‘禮俗相交’ 대신 ‘疾病死喪相救助’가 들어가 있다. 都約長은 진사 羅東綸, 副約長은 유림 林炳幹 奇周鉉, 直月은 李炳壽였고 각면의 約正과 직월들은 모두 문학을 갖춘 謹飭한 유림들로 선임하였다고 한다.²⁾ 18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2-3 개월이 되어 吏, 民, 胥가 서로 기뻐하고 점점 복고의 풍이 기대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전라감사 김문현의 권유에 따라 각 고을마다 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김문현의 향약 실시 권유는 1893년 閔泳駿이 ‘호남에서는 향약, 영남에서는 鄉飲酒禮’를 시행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었다고 보여진다.³⁾

농민군에 대한 토벌이 시작되면서 민중렬은 1894년 10월 이 향약을 고쳐 실시하였다.

1) <<錦城正義錄>> 甲編.

2) 나주에서 민중렬 정석진 이원우 등을 도와 농민군 토벌에 참여하였던 세력은 『동학당정토인록』과 『갑오군공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민군 토벌과 1896년 의병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들은 김창균 박근옥 김재환 손상문 양인환 엄효진 장길한 박상수 유기연 등이다. 좌수 朴祥壽, 鄉都有司 유기연 등이 향약 시행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3) 민영준과 김문현의 향약 시행에 대해서는 李離和, 1990, <東學農民戰爭에 나타난 儒林의 對應>.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碧史李佑成教授停年紀念論叢 下 참조.

“10월 26일에 閔公은 향교에 飭帖을 보냈다. 다시 鄉約을 수정하여 成冊하도록 하였고 각 면의 約長들도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各里의 民戶를 成冊하여 향교에 전부 모아놓고 등본을 한권으로 만들어 참고로 열람할 수 있도록 대비케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관군[王師]이 남하하는 날 玉石이 함께 타버리는 탄식을 걱정한 것이다. 귀화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새롭게 되도록 (스스로 다시 태어나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역시 협박때문에 따라간 자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약장 진사 羅東綸과 士人 奇東觀, 羅景集, 李炳壽 등이 그 임무를 專掌하였다.”⁴⁾

이 때에 시행된 향약의 목표는 두 가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옥석(향약참여자와 동학농민군)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농민군의 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관군이 도착했을 때 향약정책에 의해 옥석이 구분되었는지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귀화 유도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四邑作統의 실시

1895년 1월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실시한 四邑作統⁵⁾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4개의 읍을 한 統으로 묶어 東匪餘黨의 재기에 대비하고, 東匪餘黨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보건대 지금 사나운 불꽃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남은 무리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 풀과 뿌리를 斬除하는 것을 잠시도 늦출 수가 없다. 다만 防守와 剿討의 요체를 생각해 보니 城堞과 기계가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衆心이 굳지 못한 것과 軍紀가 분명하지 못한 것에 걱정이 있다. 부득불 列邑을 약속하여 作統할 것을 정하여 方略을 講立하고 綱과 維를 서로 재서 대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라지를 제거하고 양민을 안정시키는 것이므로”⁶⁾

이 4읍 작통은 5가 작통을 훔내낸 것으로 군사적 목표아래 행정 단위를 다시 편제한 것이다. 민종렬이 초토사로 있는 동안 실제로 작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全州는 營下邑이므로 작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를 제외한 52개 읍을 4개씩 1통으로 묶어 도합 13통이 되었다.⁷⁾

4읍작통의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⁸⁾

1. 흑시 賊警이 있으면 기미에 따라 서로 알려 작은즉 각자 읍이 스스로 힘을 다해 禁戢하고 큰즉 統內 4읍이 서로 알려 협심하여 剿除한다. 만약 그것이 凝結하여 도모하기

4) <<錦城正義錄>> 갑편.

5)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奎 17105)을 보면 책의 첫머리에 ‘開國五百四年正月日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이라고 되어 있고 책 끝에 ‘招討使閔(手決)’이라고 되어 있다. 호남초토사 민종렬이 1895년 1월에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奎 17105), <關辭> 참조.

7) 礪山 益山 高山 珍山/ 南原 雲峰 求禮 長水/ 茂朱 錦山 鎭安 龍潭/ 長城 茂長 高敞 靈光/ 金溝 泰仁 興德 井邑/ 淳昌 任實 谷城 玉果/ 光州 潭陽 同福 昌平/ 羅州 南平 務安 咸平/ 順天 樂安 典陽 光陽/ 綾州 寶城 長興 和順/ 古阜 扶安 金堤 萬頃/ 臨陂 沃溝 咸悅 龍安/ 靈巖 康津 海南 珍島/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作統秩> 참조.

8)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條約> 참조.

어려울 때는 巡營과 招討營에 馳報하고 부근 統邑에 알려 빨리 接應하고 힘을 합쳐 토벌을 의논할 것.

2. 각기 읍은 스스로 수성군을 精鍊하여 수비를 講政함으로써 급할 때에 서로 應變할 것.
3. 수성군은 제멋대로 경계를 넘지 말 것. 제멋대로 砲殺을 행하지 말 것. 제멋대로 民兵을 일으키지 말 것. 제멋대로 侵掠하지 말 것. 제멋대로 私嫌을 팔지 말 것. 제멋대로 義擧를 빙자하지 말 것.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안정시키고 백성이 살 곳을 정하게 하되 만약 이 규율을 어기면 초토영으로부터 廉探하게 하여 군율로써 시행할 것.
4. 토적 방략은 預先設機하고 臨時相通하여 실효를 도모할 것.

3) 1895년의 鄉約과 五家作統

호남초토사 민중렬의 4읍작통 실시와 거의 동시에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는 향약과 오가작통을 실시하고 있었다. 1894년 12월에는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를 중심으로 하여 金星圭가 향약과 오가작통 규칙을 각각 따로 만들었고, 관찰사가 주도하여 군수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둘을 동시에 실시하였다.⁹⁾

이때의 鄉約¹⁰⁾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 회복, 농민군 餘黨의 토벌, 농민전쟁의 재발 방지 등을 목표로 하여 시행되었다. 또한 오가작통은 농민군 가담자의 적발과 처벌을 목표로 하여 12개조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統籍을 작성하여 호주의 신분, 직업, 동네 직분 등 등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이사한 사람들에 대한 소상한 파악, 농민군에 대한 직접적인 수색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만들어 統首를 두고, 다섯 통을 한 連으로 만들어 連長을 두며 리에는 里正을 둔다고 하였는데 連과 連長의 존재가 특이하였다.

농민전쟁이 끝나면서 양반을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관찰사가 그 시행을 주도하였던 향약과 오가작통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은 오통법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모이게 하기 위하여 먼저 호구를 철저히 조사하여 토착민과 타향에서 흘러들어 온 사람들이 서로 숨겨주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따르지 않았고, 문서만 계속하여 시달되는 데 그쳤다.”고 하였다.¹¹⁾

이도재는 오통법, 향약을 시행하려 하면서 김성규 이외에도 기우만 등에게도 의견을 구하였다. 이도재가 기우만에게 편지를 내어 동학당 토벌 계획을 물었는데 기우만은 “괴수놈만 처단하고 협박에 못이겨 따라간 자는 勿施”하며 “억센 무리들이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으니 무엇보다 대오를 통솔하여 약속을 정하고 덕을 베풀며 예로써 어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것”¹²⁾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도재는 1895년 봄 奇宇萬을 무안 현감에 임명하려 하였는데¹³⁾ 이것은 오통법 시행과 관계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기우만은 1895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이 참조된다.

신영우, 1991,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318-322, 344-349.

金容燮, <光武改革期の 量務監理 金星圭의 社會經濟論>,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0) 이에 관한 자료가 규장각 소장 <<座目>> (규장각 古 5129-24) 4책 중 제 2책 <鄉約章程>인 것으로 보인다. 이 <鄉約章程>은 본문 첫 페이지에 ‘北一約長’이라는 印이 찍혀있고 ‘開國五百三年十二月’로 되어 있어서 1894년 12월 北一面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자료임을 보여 주고 있다.

11) <<梧下記聞>> 二筆.

12) <松沙集> (독립운동사자료집 3).

년 봄 鄉飲酒禮를 직접 거행하기도 하였다.¹⁴⁾

관찰사가 중심이 된 향약은 1904년에도 시행되었다.¹⁵⁾ 관찰사가 도약장, 군수가 부약장이 되도록 규정되었던 1904년의 향약은 일진회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시기 유림들은 일진회를 ‘東匪餘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학 농민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1894년 민중렬과 이도재가 실시한 향약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서 설명하게 될 제천지역의 향약과도 실시 계기가 같은 것이었다.

1904년의 향약은 중앙에 京約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읍을 단위로 하여 논의, 시행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지방 지배 세력들은 여전히 향약 시행을 주장하여 지방관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임병찬과 같은 인물이 예로 들어질 수 있겠다. 일진회가 발호하자 林炳瓚은 관찰사 李容植에게 편지를 보내 ‘향약을 실시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용직이 이를 받아들여 관찰사가 도약장이 되고 임병찬은 대신 약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관찰사가 바뀌면서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1905년 정월에는 “동민들로 하여금 먼저 5가작통하여 총기를 준비”하도록 하였다고 한 데서 향약과 함께 오가작통을 동시에 실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2. 호서 지역의 사례

1) 1894년 제천 지역의 향약

제천에서는 1894년 6월과 190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향약이 시행되었다.¹⁷⁾ 1894년에 시행된 「鄉約節目」의 체제는 鄉約序, 鄉約凡例, 德業相勸 2조, 患難相救 8조, 過失相規 4조, 禮俗相交 5조, 附言 등 7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보통 향약 조목은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의 순서인데 1894년의 제천 향약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患難相救가 두번째에 놓이고 있다. 患難相救를 德業相勸의 다음에 두는 이유는 “지금 특히 人心이 옛스럽지 않아서 시급히 먼저 경계(방비)할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鄉約序 참조).

뿐만 아니라 患難相救가 8개조로 되어 있어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며 범례에서까지 “뜻밖의 일을 당하였을 때는 옆 동네에 비밀히 알린 다음 各統에서 매일 5명씩 돌아가며 나와서 교대로 排立할 것”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적당 출현에 대비하여 무장을 갖추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총, 창, 화살, 돌쇠뇌 등을 집집마다 갖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매일 1개 통씩 교대로 무장한 밀통군 5명을 내어 밤새도록 경비를 선다는 점이다. 밀통군이 창을 가지기는 하지만 적당에게 해를 입히

13) <<梧下記聞>> 二筆

14) 동학 난리 뒤에 선비의 풍습이 거의 침체되므로 선생은 사방 학자들과 더불어 禮를 익히고 講을 마련하여 이목을 새롭게 하니 <松沙集>.

15) 규장각 소장 향약절목(규 古5129-38, 經古 170-H993) 참조. 향약절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뒷부분에 첨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6) 1904-5년 임병찬의 향약실시에 대해서는 <<騎驢隨筆>> 107면 참조.

17) 『堤川鄉約』(규장각 소장, 想白 古 301.35-C472h). 표지를 보면 원래는 “甲午六月日鄉約節目”이었는데 “乙巳月日”에도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894년 6월에 시행된 향약을 1905년에 그대로 다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05년에 “鄉約任員座目”을 추가하고 있다.

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격보다는 방어, 수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세 번째는 인근 각동과의 밀접한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뜻밖의 사태에 대한 이러한 대응 조치는 농민군에 대응하는 수성군 조직에 관련된 것으로 반농민군 활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것으로 생각된다¹⁸⁾.

이러한 것은 1894년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제천 지역에서 1894년 6월에 향약을 시행하는 것이 농민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1894년의 향약은 1904-5년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는데 이 때에도 동학 여당이 다시 일어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향약이 시행되었던 것이다.¹⁹⁾ 1894년과 1904년 제천 지역의 향약은 동학 교도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894년의 제천 향약은 관찰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근래 巡營의 지시에 따라 향교에서 논의하여 향약조목을 정하였다. 향약조목을 1통씩 써서 8面の各里에 반포하였다.”²⁰⁾ 관찰사의 지시에 의해 조직되는 동시에 관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읍의 도약장은 반드시 관에서 主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¹⁾ 1894년의 제천향약은 관찰사가 주도하였지만 제천과 그 부근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약 기구는 邑의 도약장, 面約長, 洞의 都約長, 統首, 五家로 이어진다. 향약 직임은 邑에 都有司 都約正 副約正 直月 司書 副直月 掌義 司正 執禮 讀笏 相禮 등을 두었고 各面에는 約長 直月 司正 執禮 讀笏 相禮를 두었다. 1905년의 것이기는 하지만 참고가 될 수 있을

18) 「患難相救」의 8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조와 8조는 생략).

- 2조 防守之節은 隣近洞과 相應相孚하는 計策만한 것이 없다. 各洞 作統 가운데 매일 密通軍을 5명씩 돌아가며 뽑는다. 그리고 만약 어느 洞이 盜賊이나 뜻밖의 변고가 있으면 각각 四方의 隣近洞으로 급히 달려가 그 동의 도약장에게 물래 알린즉 그 도약장은 한편으로는 이어서 근처 洞에 알리고 한편으로는 各統에 말해서 각자 徧족한 창을 가지고 追從 賊黨의 去就를 쫓아가도록 한다. 그런즉 賊黨은 감히 도망하려고 하지 못할 것이다.
- 3조 이 동네 저 동네를 물론하고 전하여 서로 告引하고 賊勢가 出去한 것을 타 各統은 徧족한 창을 가지고 일제히 뒤를 밟아 쫓아갈 것.
- 4조 密通軍 五名은 반드시 1통씩 돌아가며 매일 교대로 排立하되 밤에도 衣帶를 풀지 않으며 손에 徧족한 창을 가지고 밤새도록 서로 오가며 그 동네의 경계 유무를 譏察할 것.
- 5조 各洞이 하나같이 약속하는데 도적을 대하여 서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삼가하며 다만 도적의 去就와 蹤跡을 관망하여 앞에서는 대응하고 뒤에는 쫓은 즉 지나가는 各동은 漸漸 挾力하여 함께 나아가 各洞이 이와같이 단속하면 도적이 감히 틈을 엿보지 못할 것이다.
- 6조 총과 창과 몽둥이, 뽕나무활 쑥화살 돌쇠뇌돌 등의 물건은 집집마다 쌓아두어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한다.
- 7조 患難이 急迫해질 때 各統中에 만약 晏然하고 나오지 않는 자가 있으면 洞約長이 자세히 조사, 적발하여 즉시 도적과 같은 죄를 줄 것이다. 만약 감추어둔다면 즉시 面約長에게 고하고 官家에 보고하여 俾爲洞約長과 統首를 別般 嚴處하게 할 것.
- 19) “동학당의 남은 무리들이 일진회라고 명칭하고 왜적에게 붙어서 머리를 깎고, 왜옷을 입고, 때를 타서 덤벼며, 대신이나 감사 목사 수령을 잡아가기를 썩은 쥐처럼 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세력을 타서 물결처럼 달려가 몇 달 동안에 온 나라에 남은 곳이 없을 것 같았다.” <從義錄> (獨立運動史資料集 1)
- 20) 近因巡營門關飭 自校中有所爛商而條約已定 各書一通 頒布於八面各里
- 21) 鄉約凡例 첫째 조항이 “擇有風力望重人爲一邑都約長 則必自官爲主幹事”로 되어 있다.

것이다.

2) 향약과 1896년 의병의 관계

이 향약은 앞에서 설명한 전라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학 농민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柳麟錫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실시되었으며 유인석 의병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1894년 제천 향약 禮俗相交 항목을 보면 그 네번째 조항에 “每年 3월과 9월에 유림과 품관에게 발통하고 술과 음식을 간단히 마련하여 향음주례를 연다. 술과 음식에 드는 비용은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마련하고 만약 일이 있으면 중지한다”²²⁾고 하였다. 그런데 1895년 5월 15일 제천 長潭에서 실제로 향음주례가 실시되었던 것이 확인된다.²³⁾ 5월 15일의 이 향음주례는 1894년의 향약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동학교도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갑오개혁에 대한 대응의 측면도 있었다. 大講禮 거행 시 “마침 관리가 새로 제정한 문패와 명령장을 가지고 오자 徐敬庵이 성내어 관리를 꾸짖으며 명령지를 찢고 문패를 불태웠다”고 하였다.²⁴⁾ 물론 이 때는 개화파가 득세하고 있을 때라서 서경암의 반발 사실을 군수 金益鎭이 박영효에게 보고하자 박영효가 크게 호통하여 더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이 때의 참가자 5,6백명 중 88명의 명단이 현재 밝혀져 있다.²⁵⁾ 그런데 명단이 밝혀진 향음주례 참가자 88명 중에서 유인석 의병에 참여한 사람 16명이 다음과 확인된다.

유인석(주인), 朴世和(賓), 鄭寅協(次遵), 서상렬 吳寅泳 朴胄淳(이상 執禮), 안승우(讀笏), 李肇承(相禮), 李範稷(瑟工 陳器), 李弼熙(司正), 柳毅錫(贊首有司), 元徹常(設位), 裴時綱(錄名), 崔烈(具饌), 李正奎(司尊), 朴齊達(奉邊豆 堂上), 鄭華鎔(舉牌).²⁶⁾

이들이 의병부대에서 맡은 일은 다음과 같다.

유인석 : 12월 15일 대장

朴世和 : 문인 尹應善과 모모를 보내 의병을 도움.²⁷⁾

鄭寅協 : 직임 불명

서상렬 : 11월 28일 舉義 시 軍師

吳寅泳 : 황해도 지역 길 안내, 중군참모.

朴胄淳 : 12월 15일 대장소 참모.

안승우 : 11월 28일 軍務都有司, 12월 15일 전군, 중군,

李肇承 : 12월 15일 종사.

李範稷 : 11월 28일 거의 참여, 호서소모관으로 천안군수 金炳塾 처단.

22) 每年春三秋九 發通儒品 略備酒食 設鄉飲酒禮 而酒食之費 衆議磨鍊 若有故 則停退爲之事

23) “드디어 원근의 士友에게 발통하여 (1895년) 5월 15일 長潭에서 향음례를 행하니 의관을 갖추고 모인 자가 5,6백명이었다. 그 다음 날 大講禮를 행하였다.” <從義錄>

24) <從義錄> (獨立運動史資料集 1)

25) 김상기, 1990, <갑오 을미 의병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26) ()는 향음주례 시 職任. 88명 중에서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의병에 참여하였을 것이나 <從義錄> 등 <<獨立運動史資料集>> 1에서 확실하게 확인되는 인명만 정리하였다.

27) 1905년 9월 문인 윤운선과 함께 南峴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잡힌 적이 있고, 1910년 ‘합방’ 시 순절하였다.

요동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관군에게 잡혀 죽음.

李弼熙 : 11월 28일 거의시 대장.

元徹常 : 11월 28일 거의 참여.

裴時綱 : 직임 불명.

崔烈 : 司饋.

李正奎 : 대장 從事.

朴齊遠 : 직임 불명.

鄭華鎔 : 12월 15일 종사.

향음주례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하여 의병부대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향음주례에 참석하였던 유림들이 전부 거의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율로만 본다면 오히려 소수가 거의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유생들이 處義三事に 따라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1896년 거의를 모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유인석이 문인들에게 處義三事を 말하였는데 이 때 모인 사람 17명 중 거의론자는 3명뿐이었다.²⁸⁾

1894년과 1904년의 향약은 제천의 영향을 받아 인근 지역에서도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웃 고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감동되어 곳곳마다 향약을 마련하여 규약과 상벌의 모든 절목은 다 제천을 모범으로 하니 內四郡(堤川 丹陽 靑風 永春, 필자)과 원주 등지에 일진회가 적은 것은 이 힘이었는데 ... ”²⁹⁾라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3. 관동 지역의 五家作統과 鄉約

강릉부에서 농민군을 몰아낸 1894년 9월 7일 이후 이회원과 좌수 최동집을 중심으로 한 강릉부의 지배세력은 향사당에서 향회를 열어 농민군 방비책을 의논하는 한편, 영동 각면에 전령을 보내 농민군이 다시 쳐들어 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五家作統을 실시하였고³⁰⁾ 수성군(민보군)에 관한 규칙(11개조의 條約)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11개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에 수성군 200명을 두되 무사와 포수 2종으로 하고 이들은 한 달에 正租 15斗를 급료로 받았다. 각면에도 軍丁을 두되 각통에서 20명씩 내도록 하고 이들의 경비는 각통에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各面 各里의 沿路에 把守幕을 지어 지키며, 군기를 수선하여 준비해 두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목된다. 면 지역은 ① 영동의 15면, ② 영서 각면, ③ 各驛 各津 各峽里 不受還處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알맞는 방어 체제를 갖추도록 한 것 또한 주목된다. 영동의 15면은 面 洞 戶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이용하고 각 호마다 총검을 준비하여 밤마다 순찰을 돌도록 하였다. 영서 각면은 知事

28) 舉義掃清 : 李弼熙 安承禹 李範稷

去而守之 : 유인석 朱庸奎 吳寅泳 朴胄淳 朴貞洙 崔炳軾 崔烈 李肇承 鄭華鎔 洪璇杓 洪德杓 李正奎.

自靖 : 梁斗煥 및 모모.

29) <從義錄>

30) 각 면의 5가작통은 10통으로 양초를 나누어서 대장 2인을 뽑아 9월 13일 점고토록 하고 여기는 자는 군율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人 頭民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비하였으며 各驛 各津 各峽里 不受還處 등의 지역에서는 5가 작통을 실시하고 20호를 1대로 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³¹⁾

강원도 지역의 오가작통과 조약 역시 전통적인 오가작통과 향약을 바탕으로 하여 농민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반영하여 각면동리를 전투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
- 31) 1. 各 饒戶는 市上에서 쌀을 팔 때 반드시 入鼎米로써 내다 팔 일.
 2. 武士와 砲手를 기르는데 二百名으로써 定數하여 근무시키되 매달 守城 砲手와 武士는 五十名씩으로 하고 入番料는 每名 한달에 正租 十五斗 頒給한다. 料米는 舊砲廳 所屬 七百石과 近年加屯 地林谷 彦別里 琴山坪의 新起畚 卜租를 收刷하여 충당할 것.
 3. 各面에서는 軍丁을 每統 二十名式으로 把定한다. 各 鎗銃을 가지고 今月 十七日 大點考를 하며 이번 달의 一時적인 犒軍경비는 邑에서 마련하지만 (이후의) 供饋止宿之節은 各其 統이 스스로 담당할 일.
 4. 境內 東西南北, 嶺陁處의 防守之節은 各기 嶺底附近의 里로부터 各面 各里의 沿路에 把守幕을 지어 지키고 만약 意外의 患이 있으면 곧바로 馳通하여 一境이 通聞하도록 한다. 그리고 행동이 殊常한 자가 있으면 往來之弊를 嚴束禁斷하게 할 일.
 5. 軍器 雜物 中 銃과 弓矢가 부숴져서 쓰지못하면 급히 改備하고 改備하는 데 드는 物力은 一鄉의 公論을 따라 區處할 일.
 6. 中軍은 一鄉 中 可堪人으로 擇差하여 武備를 嚴束하며 號令을 발하고 시행할 것.
 7. 邑村間에 만약 離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面, 里로부터 摘發하여 집을 허물고 가지고 가는 什物을 빼앗아 읍중에 納하여 軍務에 補用할 일.
 8. 軍務에 所用되고 또한 武士와 砲手 兩兵에게 급여로 지불되는 錢穀은 이서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一鄉의 望重知事한 사람 2인을 擇差하여 吏校를 검속하게 하되 다만 문서로써 舉行할 일.
 9. 嶺東의 十五面은 各洞, 每戶마다 各 劍銃을 준비하여 일정한 規模를 이루면 各기 洞을 지키며 밤마다 巡警한다. 만약 근처 里에 뜻밖의 變이 생기면 힘을 합쳐 서로 救할 일.
 10. 嶺西 各面의 知事人과 頭民은 招致曉諭하여 安民하고 백성들이 離散에 이르지 않게 하며 安接하게 할 것.
 11. 各驛 各津 各峽里 不受還處는 五家作統하고 二十戶로 一隊를 지어 頭民이 領率하여 와서 순서를 기다릴 것.

박준성,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참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5,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신서 43 수록.

2 부

일본측 자료와 연구의 확대

발표 ; 홍동현(역사문제연구소)

강효숙(진실화해위원회)

박맹수(원광대)

토론 ; 왕현종(연세대), 윤대원(서울대)

1894년 일본 언론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 『시사신보』와 『국민신문』을 중심으로 -

홍동현(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2. 동학농민전쟁 이전 '동학당' 인식
3. '청일개전론'과 동학농민전쟁 인식
4. '조선개혁론'과 동학농민군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2여년 동안 가장 많이 떠돌았던 유행어는 아마 '잃어버린 10년'일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잃어버린 10년'란 용어만큼 민중사 연구의 현주소를 잘 표현하고 있는 용어는 없는 것 같다. 즉, 80년대 '실천 활동에 대한 학문적 응답'으로써 제기되고 그 실천적 주체로서 민중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민중사학은 최근 10년 동안 극심한 연구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인 변화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인해 대중운동이 퇴조하는 한편 그 역동성의 상실이 지적되어 왔다.(목표의 해체 -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방향성을 아직 재정립하지 못했음")¹⁾ 이는 결국 그러한 사회적 정세 속에 민중사 연구가 퇴조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논리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즉, 민중사학이 "80년대 변혁 분위기 속에서 실천 활동에 대한 학문적 응답"²⁾으로 제기되었다는 그 태생적 한계(발명 또는 구성된 민중, 실천적 존재로서 민중)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동학농민전쟁 연구 또한 지난 100주년을 기점으로 민중사학의 연구 침체와 함께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이에 관한 연구는 '1894년 봉건모순과 민족모순을 극복하여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반봉건 반제운동'이었다는 관점에서 민중을 역사 속에서 발명하고자 했던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는 민중사학이 "스스로를 새로운 변혁의 주체로 정립하여 나아가는 주체적 자기창출의 존재"인 민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중의 '저항'과 '반란'에 주목했던 것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³⁾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민족적 계급적 현실의 극복에 있어서 1894년 농민전쟁은 하나의 모범과 역사적 교

1) 허영란, 「민중운동사 이후의 민중사 - 민중사 연구의 현재와 새로운 모색」 『역사문제연구』15, 역사문제연구소, 2005, 310쪽.

2) 이영호, 「해방 후 남한 사학계의 한국사 인식」, 『한국사 23: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1』, 한길사, 1994, 197쪽.

3) 김성보는 민중사학이란 70년대 실천적 지식인에 의해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통일적 극복이라는 변혁운동의 실천적 존재로서 발견된 '민중'을 기반으로, "역사를 민중의 주체성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의 전망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문 경향"으로 규정하였다(김성보, 「'민중사학' 아직도 유효한가」 『역사비평』 1991년 가을호),

훈을 보여줄 것이다”⁴⁾라는 이영호의 언급은 동학농민전쟁의 지난 연구경향과 그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천 활동에 대한 학문적 응답’으로써 실천적 존재인 ‘민중’을 1894년 농민전쟁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 틀은 결국 농민전쟁이 갖는 의미를 획일화하고, 이로 인해 실제적 존재로서 민중의 모습들이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기의 욕망을 지니고 있는 실제적 민중이 그들의 삶과 연계하여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즉 자기 욕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농민전쟁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란 지배층(엘리트)의 언어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속에 이미 지배층에 의해 전유된 채 존재하는 ‘민중’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과제가 남는다.⁵⁾ 이를 위해서 지배층이 남긴 기록에 대한 ‘결을 거스르는’ 의식적인 독해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⁶⁾

본 글에서는 실제적 존재로서 ‘민중’에 다가가기 위한 前 작업으로서, 1894년 당시의 기록이었던 일본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894년 농민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로서 일본 신문은 당시 문명인(근대인)으로 자부해 온 일본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던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시선 속에서 타자화 되는 민중, 그리고 지식인에 의해 전유(포섭)되어 가는 민중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속에는 문명국 일본이 미개국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들어가 있다. 따라서 조선을 야만, 미개라는 시선에서 동양평화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문명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문명국의 책무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일본 신문 가운데 『時事新報』와 『國民新聞』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두 신문은 이시기 일본에서 발간된 신문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신문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조선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신문에 비해 문명국의 책무로서 일본의 역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신문은 농민전쟁을 바라보는 일본의 이중적 시선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근대적 지식인이 민중을 바라보는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논문 구성에 있어서 우선 농민전쟁 이전 동학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1894년 이전 관련 기사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 농민전쟁에 대한 초기 보도를 통해 이들이 동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 보도를 중심으로 전주화약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농민전쟁과 농민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민군의 전주성 점령 이후 청일 兩軍의 출병에 직면한 조선정부는 출병 명분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여 兩軍의 동시철폐를 요구하였다. 일본이 조선출병을 결정한 것은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청과의 전쟁을 통해 조선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주화약으로 인해 그러한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일본은 또다시 조선개혁론을 내세워 조선의 철폐요구를 거부하였다.

일본 언론들도 전주화약을 기점으로 농민전쟁에 대한 보도 경향을 달리하고 있었다. 즉,

-
- 4) 이영호, 「총론: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역사비평사, 1991.
- 5) 허영란은 민중을 하나의 주체가 아닌 다성적 존재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민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말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민중사 연구의 주요 과제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정한 지역적·문화적 맥락에서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일상생활과 그들의 행위를 민중사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허영란, 앞의 논문, 316~317쪽).
- 6)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27쪽.

전주화약 이전 시기에는 청일개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동학당 난’이라는 사건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주화약 이후에는 문명국 일본의 책무로써 조선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농민전쟁보다는 농민군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일본인, 그리고 근대적 지식인으로써 일본 언론이 농민전쟁과 농민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각각 청일개전론과 조선개혁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살펴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전쟁 이전 ‘동학당’ 인식

1894년 3월 김옥균 암살 사건을 둘러싼 조선, 청, 일본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조선에 대한 일본여론의 적대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⁷⁾ 그런 가운데 일본신문에서 동학농민전쟁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은 4월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4월 8일 『시사신보』는 「전라도 고부군에서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고부민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첫 보도인 것으로 보인다. 1894년 2월 15일 고부에서 봉기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난 뒤에서나 기사화 된 것이다. 이는 ‘김옥균 암살사건’에 여론이 집중되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이때까지 고부민란을 조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여러 소요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즉, 최근 들어 조선 관리의 ‘虐政暴壓’으로 인해 전국에서 민란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개성부 민란에 이어 고부에서 또 민란이 일어나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신문이 고부민란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은 4월 말 동학당과 연계성이 전해지면서부터이다. 『시사신보』에서 고부민란을 단순히 민란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다른 신문들은 고부민란을 동학당이 폭동을 재기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즉, 『국민신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신문이 고부민란을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당의 소행으로 인식하고 이를 일체히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⁸⁾ 이들이 고부민란을 동학당의 소행으로 인식한 것은 시기적으로 4월 25일 무장기포 소식이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5월 말에 와서야 비로소 무장포고문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포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참이 지난 후로 봐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8일 『시사신보』는 「전라도의 반란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전라도 고부군의 민란은 아무튼 진정되지 않고, 정부도 매우 고전하고 있다. 특히 동학당은 이 틈을 타 전주 습격의 격문을 전라도 각지에 붙여 민심은 더욱 흉흉하다」

고부민란 당시 이를 이끌던 전봉준은 항쟁의 확산을 위해 백산으로 진을 옮기기 직전 2월 20일 경에 전라도 각 읍에 “君子들은 한 목소리로 義氣를 내어 나라를 해치는 적을 제거하여 위로는 종사를 돕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를 바란다”라는⁹⁾ 격문을 띄운 바가 있었다.¹⁰⁾ 당시 고부민란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던 巴溪生이라는 일본인은 이 격문이

7) 일본 신문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을 일본의 ‘국가적 수치’로 받아들여 연일 대서특필하였으며, 몇몇 재야 논객들은 조선과 청에 대한 응징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우의 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45쪽).

8) 『國民新聞』과 『賣讀新聞』은 4월 27일 ‘고부의 대소란’을 전하면서 수괴 최시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東京朝日新聞』도 4월 22일 동학당원 ‘최차효(최시형 오자)’가 두령이며, 대부분 ‘동학당의 再亂’으로 인식하고 있다.

9) 이복영, 「남유수록」(『사료총서』 4), 1894년 2월 20일.

전라도 58주의 동학당을 향해 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시사신보』가 기사화하면서 고부민란과 동학당의 연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이어 『시사신보』는 「동학당 폭동의 공식보도」를 통해 “전라·충청 양도의 동학당이 또 폭동을 일으켜 부사 이하를 살상하고 또 경성으로 쳐들어오려는 모양”이라고¹¹⁾ 동학당에 의한 봉기를 공식적으로 전하였다. 또한 “앞서 전라도 고부군의 민란이 있어 아직 진정되지 않고 지방관도 이를 진무할 힘이 없어 보이고 지금 전라도의 동학당이 이 틈을 타 쫓겨 사태가 자못 심각하다”고¹²⁾ 하여 고부민란 이후 동학당이 합류하여 민란이 더욱 확산되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오직 『시사신보』만 고부민란이후 동학농민전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을 뿐 다른 신문에서는 고부민란을 ‘동학당 재개’로 보도하고 있었다. 즉, 일본 언론들은 동학당과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1893년 복합상소와 보은·금구집회를 주도했던 동학당이 또다시 고부에서 폭동을 재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사신보』 또한 고부민란 소식을 전하면서 “동학난과 같은 경우는 충청과 전라 兩道에 걸쳐 한 때는 전국을 흔들어 놓았다”거나 “작년 봄에 동학당이 경성에 난입한다는 풍문이 있어 내외의 경계를 삼엄히 했으나, 올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내왔다”며 1893년 전개된 동학의 복합상소운동과 보은·금구 집회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언론에서 고부민란 이전부터 동학당의 움직임에 주시해 왔음을 의미한다.

1893년 동학이 주도한 광화문 복합상소와 보은·금구집회는 교조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다고는 했지만 정면에 내세운 명분은 ‘斥倭洋’이었다.¹³⁾ 동학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반역이 아닌 ‘倡義’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측면도 있었으나, “倭洋이生等(동학교도)이 斥和를 한다는 이유로 國父를 위협하여 東學人을 소탕하도록 強請하였다”고 하여 동학교도들 사이에 ‘斥倭’ 분위가 고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¹⁴⁾ 이러한 동학교도들의 동향에 대해 일본 공사관은 “동학당이 무리가 많은 거사에 의지하고, 또 단결력이 강함으로 혹 폭력에 호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저히 조선정부의 힘으로는 이를 진압하고, 아울러 외국인 보호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⁵⁾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군함과군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 거류민에게 동학당의 거동에 대한 정

10) 전봉준이 고부민란을 이끌면서 각 읍민의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보낸 격문이 동학 조직의 기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각 군현단위의 봉기를 호소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격문을 발한 이후 3월 3일 박원명의 효유로 인해 고부민란이 해산되기까지 동학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점과 당시 전봉준이 고부집주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전라도 각 지역 동학조직에 발한 기포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부민란 당시 이를 관찰하고 있었던 일본인은 이 격문이 전라도 58주의 동학당을 향해 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巴溪生, 「전라도고부민요일기」, 『총서』 25권, 23쪽), 3월 20일 이전부터 각지의 동학도들이 무장으로 집결하기 시작했고, 또한 무장기포이후 충청도 지역 동학조직(徐包)의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고부민란과 2월 20일 격문을 동학조직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교조신원운동기 ‘남집’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이후 ‘사발통문 거사계획’ 등의 연장선에서 인식했을 때 2월 20일 격문을 전봉준의 영향하에 있던 동학조직에 발한 기포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김인걸, 「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1894년 농민전쟁 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84쪽 ~ 94쪽).

11) 『시사신보』, 「東學黨、暴動を再開」, 1894년 5월 12일(이하 1894년 생략).

12) 『시사신보』, 「全羅道の東學黨」, 5월 15일.

13) 교조신원운동기 ‘斥倭洋’의 전개와 성격에 대해서는, 배항섭(「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와 홍동현(「1894년 ‘東徒’의 농민전쟁 참여와 그 성격」 『역사문제 연구』 20, 2008)을 참고 바람.

14) 개항 이후 斥倭는 민중들 사이에 깊이 각인되어 온 일반적 정서였다. 이에 대해서는 배항섭, 「개항기(1876~1894) 민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27, 1994. 참고 바람.

15) 『일본외교문서』 26권, 415쪽(최덕수,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선인, 16쪽, 재인용).

보수집,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 등을 하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일본언론에서는 원세개가 동학당을 후원한다는 청국의 개입설을 보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본내 대외 강경론자들은 동학당을 토벌하기 위해 즉각적인 군대파견까지 요청하기도 하였다.¹⁶⁾

이처럼 일본 언론은 1893년 교조신원운동에서 보여준 동학의 조직과 동원력에 주목하여 여타 민란과는 달리 조선 정부에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학당의 동향에 주시하고 있었다.¹⁷⁾ 특히 『국민신문』의 경우엔 「朝鮮國의 黨派」를 소개하면서 '東學黨=鎖國派', '開國黨=獨立派' 또는 '日本派', '事大黨=支那派', '閔黨'으로 분리하고 동학당을 그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다. 즉, 동학당은 쇄국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雜術派와 儒學派, 佛敎派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잡술과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파의 수령은 대원군인데 이 부분을 조선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이상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 언론들이 동학당을 단순히 종교집단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1893년 전개된 복합상소나 보은·금구집회를 교조신원을 통해 동학을 공인받고자 한 것이 아닌 정부를 위협하는 내란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 집권세력인 민씨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또한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결집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1893년 한번의 내란시도가 실패로 끝났으나 언제든지 이들 세력에 의한 정부전복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일본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언론은 고부에서 민란이 발생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하자 1893년 한 차례 시도되었던 동학당에 의한 내란시도가 또다시 발생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동학당의 재개'로 보도했던 것이다.

3. '청일개전론'과 동학농민전쟁 인식

동학당의 재개로서 고부민란 소식을 전한 이후 일본언론은 연이은 관군의 패배소식과 함께 점차 확산되자 이를 동학당에 의한 '騷動' 또는 '大騷亂'으로 보도하는 한편 확산 동향과 그 원인 그리고 이번 '소동'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여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학당 소동의 확산과 관련해서 『시사신보』는 전라도 뿐 아니라 충청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전라도 지역 난민과 충청도 지역 난민의 합류 가능성과 이들이 경기 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여 경성위기설을 제기하였다. 『국민신문』 또한 관군의 연이은 패배 소식과 함께 동학당의 북진과 경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거류 일본인들의 동요를 함께 전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학농민군이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여 전주로 향하고 있었으며, 전라도 각 지역의 농민군의 합류로 인해 그 세가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신문이 관군 전사자가 200여명에 달한다거나, 전라도 북부지역이 대부분 유린당했다 등의 보도는 다소 과장되어 있었다. 이는 경성위기설을 조장하여 거류 일본인 보호를 위한 군대파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본 언론은 동학당 진압에 나선 조선 군대의 무기력한 모습을 지적하며 위기설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다. 즉, 조선정부가 동학당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16) 강창일,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우익 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43쪽.

17) 1893년 복합상소 이후 일본영사 스키무라는 조선 거류 일본인에게 "동학당의 거동에 관한 어떠한 정보라도 이를 탐지하면 조속히 영공사관에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으며(『일본외교문서』 26권, 428쪽), 일부 낭인들은 동학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각처를 돌아다니며 정탐활동을 전개하였다(강창일, 위의 책, 44쪽).

18) 『國民新聞』 「朝鮮國의 黨派」, 1894년, 2월 14일.

오히려 민가에 피해를 입힌다거나¹⁹⁾ 도망하는 자가 속출한다거나, 전의를 상실하여 병기를 지닌 채 적에게 투항²⁰⁾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군이 연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학당'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한 병사들의 '무전취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인민의 곤란함'²¹⁾과 '일신의 안전을 꾀하기에 급급한' 지방 관리, 그리고 적을 보자마자 두려워 도망하거나 병량미의 부족으로 배부르게 해준다는 선전에 유혹되어 적에게 투항하는 장위영 병사²²⁾ 등을 전하면서 이를 동학당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즉, 동학당 세력이 비록 크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통솔하는 자가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소동에 그치고 말 것이었지만 규율 없는 관군의 '난폭함'으로 인해 오히려 동학당이 점차 민망을 얻어 확산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정부의 위엄이 실추되고 기강이 땅에 떨어져 발생한 일시적 '소동'에 불과한 동학당의 난이 더욱 확산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자 일본 언론은 그 발발 원인과 목적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국민신문』은 “조선 8도의 수령들이 왕왕 虐政을 일삼고 苛斂을 진행하여 지방 細民들이 그 弊를 견디지 못하고 원한이 쌓여 결국 사사로이 난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때 ‘崔의 一派’가 다시 동학당을 다시 이끄니 동서에서 이에 호응하였다고 하여 수령의 학정으로 인한 백성들의 思亂 의식, 이와 결합한 동학당의 재개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그 목적은 배외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민씨 일족에게 책임을 물어 왕의 측근에 있는 간사한 무리를 내쫓는 것에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배외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²³⁾

한편 『시사신보』는 이번 동학당 난의 발발 원인보다는 확산 배경으로 조선의 후진성을 지적하면서 이후 확산에 따른 파장에 더욱 주목하며, 「조선 동학당의 소동에 대하여」라는 사설을 보도하였다.²⁴⁾

「조선에 있어서 동학당 소동은 이전 紙上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그 세력이 자못 커 소위 百姓一揆 같은 종류라서 일시적인 소동으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조선정부의 위엄이 서지 않아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그 당에 대한 양상을 들어보면, 특별히 통솔하는 자가 없이 완전히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그 세력이 더욱 커지는데 현 정부에 대해 불평을 품고 있던 士人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여 오합지졸을 통솔하기라도 하면 너무나 큰 일이 되며, 혹은 鷄林八道를 風靡하여 결국 정부를 무너뜨릴지도 모를 일이다. <중략> 만약 그 세력이 크게 창궐하여 정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자신조차 위급한 상황에 빠져 한 나라를 제어할 힘을 잃고 마치 무정부 상태에 빠져 다른 強國이 이번 기회를 틈타기라도 한다면 어쩔 것인가. <중략> 그 소동이 더욱 심해 자국의 힘으로 진압할 가능성이 없게 되면 우리 병력을 빌려 진압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조선 정부는 긴급한 상황에 이르러 청국에 원병을 청할 것이다. <중략> 만약 중국의 군대로 조선의 내란을 진압하고 정부의 자립을 돕기에 이르면 저들 半島國의 全權은 더욱 청국의 수중으로 들어가 조선의 독립을 저해하고 그

19) 『시사신보』, 1894년 5월 16일.

20) 『시사신보』, 1894년 5월 29일.

21) 『시사신보』, 1894년 5월 16일.

22) 『시사신보』, 1894년 5월 29일.

23) 『국민신문』, 「東學黨의 目的」, 5월 27일.

24) 『시사신보』, 「朝鮮東學黨의 騷動에 就いて」, 5월 30일.

결과는 동양에서 우리 국권의 진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임은 명백하다」

즉, 조선정부는 무능하기 때문에 일시적 소동에 그칠 동학당 난을 진압하지 못할 것이며, 혹 의식 있는 士人이라도 합류하여 통솔하게 되면 정부전복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조선은 또다시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더욱 예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국익에 상당한 손실이므로 일본이 먼저 병력을 파견할 것을 일본 당국에 촉구하였다. 『국민신문』 또한 사설을 통해 일본이 앞으로 조선을 부식하여 동양 권력의 평 균을 유지하는데 동학당은 큰 방해물이 될 것이며, 또한 청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영국이 개입하여 청국으로부터 ‘은척’을 얻었듯이 일본 또한 이번 기회에 청국보다 먼저 조선에 출병하여 조선내 주도권을 장악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⁵⁾

이처럼 일본 언론이 조선의 일대 소란에 주목한 것은 이를 주도하고 있던 동학당, 그리고 그 원인과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란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청국과 일본 간 조선을 둘러싼 주도권 장악이라는 시선으로 ‘동학당 난’을 주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조선출병을 위해 동학당 난은 위협적인 상황이어야 했으며, 또한 ‘난폭한 난민’으로부터 거류 일본인의 보호라는 명분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후 농민군의 전주성 입성과 청군 차병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조선의 소란을 ‘위급한 상황’으로 보도하며, 청일 간의 개전까지 주장하였다.

우선 『국민신문』은 6월 5일 전주성 점령과 홍주의 석성 점령 소식을 전하고²⁶⁾ 그 다음날 곧바로 동학당의 경성 임박설을 제기하면서 “동학당의 세력이 날로 창궐하여 조선이 위급한 상황”이므로 “독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길 촉구”하였다. 『시사신보』 또한 동학당의 전주성 함락 소식을 접하자, 즉시 “이번 소동은 단순히 조선의 내란일 뿐 아니라, 일이 커지는 데 따라서는 일청 양국 간의 관계에 까지 영향을 주어 동양문제를 일으킬 만한 결과”도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급무로써 거류인민의 보호를 위해 일본군대를 즉시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⁷⁾ 그리고 그 다음날 연이어 호외로 조선의 청병 차병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앞으로 “동양 천지에 대파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여 일본의 출병과 함께 청일의 개전을 시사하였다.²⁸⁾

한편 6월 6일 『국민신문』은 「조선출병사건과 경시청의 주의」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 경시청에서 신문사의 발행인을 소환하여 조선출병에 대해 일체 개제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조선출병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일본의 조선출병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에 앞서 일본 참모본부는 전주성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 5월 30일 조선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치지(伊地知) 소좌의 복명을 받고 사실상 출병을 결정하였다. 이후 조선의 청병차병 소식을 접한 6월 2일 일본정부는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선파병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6월 5일에는大本영을 설치하여 국내통치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때 일본정부는 ‘(재조일본) 영사관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병사를 파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사실상 청국과의 개전을 전제로 기선을 제압하는데 있었다.²⁹⁾

25) 『국민신문』, 「兵を朝鮮に出すべし」, 5월 31일.

26) 『국민신문』 (1894년 6월 5일자)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전주성과 홍주의 석성 점령과 함께 ‘조선내란지의 약도’를 게재하여 동학농민군의 점령지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27) 『시사신보』 1894년 6월 6일.

28) 『시사신보』, 1894년 6월 8일. 『시사신보』는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조선의 청병차병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9)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15~17쪽.

일본의 조선출병이 결정된 이후 일본 언론들은 외부세력의 동학당 개입을 기사화하며 본격적으로 동학당 난을 단순한 소란이 아닌 정부 전복을 시도한 정치 변란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시사신보』는 동학당 난 초기 보도에서 ‘士人’의 개입을 우려한 바 있는데, 일본군의 출병이 결정된 시점에서 김옥균의 동생 金珪均이 탈옥하여 동학당에 가담했다거나³⁰⁾, 전주합락 이후 士民이 동학당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³¹⁾ 결국 오합지졸인 동학당이 의식 있는 외부세력의 가담으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신문』은 동학당의 선동세력으로 조선 거류 외국인과 조선 고관을 의심하면서³²⁾, “이전에 민씨 일족을 처치하려다 도망한 이들”을 지목하고 있다.³³⁾ 이는 『국민신문』 5월 31일자 「병사를 조선에 보내야한다」라는 사설에서 일본의 農民一揆는 계급의 助力을 얻을 수 없어 대사건으로 발달하지 않으나 조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란이 내란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는데³⁴⁾ 같은 맥락에서 동학당 난이 결국 민씨 세력과 反민씨 세력 간의 정치적 다툼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봐왔듯이 3월 20일 무장에서 1차 봉기가 발발하자 이들 신문들은 일제히 1893년 ‘斥倭’운동을 주도했던 동학당 세력과 연계하여 보도하였다. 이들은 이전부터 동학당을 종교집단이 아닌 정치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지방 관리의 침탈에 비롯된 단순히 오합지졸에 의한 일대 ‘소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이를 진압하지 못하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출병을 촉구하였다. 이는 곧 청국과의 개전을 전제한 것이었다. 결국 이들은 1차 봉기 당시 동학농민전쟁을 문명화 되지 못한 ‘미개한’ 조선의 부패와 무능함, 이로 인한 난폭한 난민의 확산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³⁵⁾ 일본의 출병이 결정된 시점에서는 민씨 세력 타파에 초점을 맞춰 反민씨세력이 개입된 일대 정치적 내란으로 비화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었다.

4. ‘조선개혁론’과 동학농민군 인식

淸日 兩國은 6월 8일을 전후해서 선발부대를 각각 아산과 인천에 상륙시키고 연이어 후속부대를 출병시키면서 군사적 대치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일본 언론에서 ‘조선은 각국의 전장’이 될 수 있다고(되어야 한다고) 예견하고 있던(원했던 바와 같이)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한편 청일 양군의 출병으로 당황한 조선정부는 출병의 명분이 되었던 ‘동학당의 난’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6월 11일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즉, 조선정부는 농민군이 제시한 27개조 폐정개혁안을 수용함으로써 농민군의 전주성 퇴각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즉시 양국에 통보하여 철병을 요구한 것이다. ‘亂民의 난폭함’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던 일본은 농민군의 전주성철수로 인해 최소한의 명분마저 사라지자 또 다른 명분을 찾기에 부심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공사에게 조선 상황을 “고의로라도 평화로운 상태와는 반대가 되도록”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³⁶⁾ 즉, 일본정부가 일본군 주둔의 명분을 확보

30) 『시사신보』, 6월 8일.

31) 『시사신보』, 6월 9일.

32) 『국민신문』, 「煽動者とは誰ぞや」, 6월 9일.

33) 『국민신문』, 「東學黨中の猛士」, 6월 9일.

34) 『국민신문』, 「兵を朝鮮に出すべし」, 5월 31일.

35) 『시사신보』, 1894년 6월 5일. “이번 난민의 난폭함이 일본인에 대해 어떤 위해를 끼칠지 모르며 저들 정부의 관군도 군대이기는 하나 그 실상은 무뢰한이 흥기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이다.”

하기 위해 조선의 상황을 가능한 급박한 것으로 왜곡 선전하고자 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시가 신문 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다. 다만 조선정부의 철병요구 이후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또다시 조선의 무능(미개)함을 강조하며 ‘동학당 잠복설’을³⁷⁾ 주장하였다.

우선 『시사신보』는 조선정부의 동학당 진정 통보를 전하면서 이는 조선정부가 “억지로 평온을 가장하여 일본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동학당의 목적이 “전횡하는 지방관을 살육하여 평소의 울분을 씻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늘 흑리의 학정에 시달려 불평이 가득 찬 농민들은 가는 곳마다 이를 환영하여 세력이 날로 커진 것”이고, 또한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관군은 “동학도 토벌의 명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민의 사재를 약탈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채우기 바쁠” 뿐이며, 심지어는 “적군에 투항하는 자가 많다고 할 정도”로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농민군이 진정되었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진압되었다고 해도 “이 나라의 內亂은 뼈 속까지 깊이 만성병과 같아” 다시 재발할 것이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는 거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군대를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³⁸⁾ 즉, 오합지졸에 불과한 동학당 난이 확산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무능함 때문이므로 자력으로 ‘國難’을 진정시켰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며, 또한 진정되었다고 해도 조선과 같이 미개한 나라에서 ‘동학당 난’과 같은 ‘내란’은 항시 잠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란’의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제거될 때까지 일본 군대를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연이어 「조선의 문명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명국 일본의 책무’로써 조선의 내정개혁을 실행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³⁹⁾ 더 나아가 『시사신보』는 “대개혁에 대한 인민의 반대를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병력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여 일본의 경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했으나 조선정부는 그 방해물리치고 단행할 힘이 부족하므로 그 반대세력, 즉 동학당 진압을 위해 일본 군대의 주둔이 필요하며 이는 조선의 문명진보를 돕기 위한 조처라고 하여 동학당에 대한 일본군의 무력사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⁴⁰⁾ 하지만 “동학당도 일시적 잠복이라 해도 진압할 필요가 없어진 이상 우리(일본) 정부는 조선정부와 선후책을 잘 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⁴¹⁾ 하여 동학당에 대한 무력 진압보다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동학당이라는 것도 본래 지도층도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며, “그저 숫자만 믿고 지방의 관청을 습격하여 관리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일삼던 순수한 민란”으로⁴²⁾ 이번 ‘내란’이 “반드시 폭도들의 닷만도 아니”므로 청국의 內治 간섭으로부터 확실히 독립하면서 제반 정부를 개량하여 일대 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³⁾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문명국으

36) 『동학당 변란사 한국군대보호에 관한 일청교섭관계』1, 『주한일본공사관기록』3, 123쪽 ; 최덕수, 앞의 책, 23~24쪽 참조.

37) 『시사신보』는 「東學黨の潛伏」(6월 27일)에서 동학당 난은 “민중이 학정에 고통 받던 나머지 한꺼번에 봉기하여 난을 일으킨 것”으로 이들 난민들은 “세력이 기울면 집으로 돌아가 원래의 양민”으로 되돌아가지만 화산과 같아서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분화하여 힘 있는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진압이 아닌 잠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며, 따라서 일본병사를 철병할 수 없다는 논리로 동학당 잠복설과 일본군 주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38) 『시사신보』, 「韓廷の策略に誤らるゝこと勿れ」, 6월 16일.

39) 『시사신보』, 「朝鮮の文明事業を助長せしむ可し」, 6월 17일.

40) 『시사신보』, 「日本兵容易に撤去す可らず」, 6월 19일.

41) 『시사신보』, 「速に韓廷と相談を遂ぐ可し」, 6월 30일.

42) 『시사신보』, 「朝鮮問題の關係廣し」, 6월 27일.

43) 『시사신보』, 「速に韓廷と相談を遂ぐ可し」, 6월 30일.

로 만들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義兵'이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국왕을 대신하여 정부를 일소"하여 조선의 문명국화를 서둘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청일 양국 간의 개전까지 시사했던 일본 언론들은 출병 근거가 되었던 위협적인 상황이 사라지자 '잠복설'을 제기하며 일본군의 철병을 반대 한 것이다. 즉, 이번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었던 조선 정부의 무능함(미개)을 개혁하여 문명화해야 한다는 조선개혁론을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은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대원군과 친일 개화파를 내세워 내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물론 이는 청일 개전을 전제로 조선을 침략전쟁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⁴⁴⁾ 아산만의 청국함대를 기습하고 뒤이어 성환·평택 전투에서 기선을 제압한 일본은 8월 1일 '조선의 자주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청국과의 개전을 선언하였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과 청일 개전소식은 농민군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농민군 진영에서는 무기고를 탈취하거나 농기를 수집하여 직접 군기를 마련하는 등 무장을 강화하여 만약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농민군 진영은 시세를 관망하는 한편 도소를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농민군이 관망적 태도를 보였던 것은 대원군의 집정과 개혁초기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의 일부내용이 수용되었기 때문이었다.⁴⁵⁾

한편 조선의 '문명화'를 내세워 조선의 내정개혁을 주장하던 일본 언론은 이후 동학당 난에 대해서 '순수한 민란'이라던가, '東徒는 양민이다'라고 하여 문명화의 대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즉, "東徒는 暴民이 아니라 단지 貪吏暴官에 대하여 일어난 良民"이므로⁴⁶⁾ 조선이 문명국이 되면 자연히 진정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원군의 섭정 소식을 전해들은 동학당은 모두 흩어져 돌아갔으며, "오직 이들 세력을 善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가의 手腕 如何에 달려 있다"고⁴⁷⁾ 하여 일본에 의한 조선의 내정개혁으로 인해 동학당이 진정되었음을 전하였다. 이후 조선의 내정개혁이 진행되는 기간인 8월~9월 사이 동학당 관련 기사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몇몇 지역에서 동학당이 재발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있을 뿐이다.

동학당 관련 기사가 이들 일본 신문지상에 다시 보도되기 시작하는 것은 평양전투 이후 농민군이 재봉기를 준비하던 9월 중순 이후부터이다. 9월 초 『시사신보』는 전라도 지역 동학당의 동향을 전하면서, 이는 "개혁의 실상을 오해"하고 있어 서정개혁의 내용을 설명하며 그 의혹을 풀려고 하지만 동학당이 의혹을 충분히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여⁴⁸⁾ 이들 '반대세력'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무력사용을 시사하였다. 이후 『시사신보』는 9월 25일 「동학당의 습격」이라는 제목 하에 호외로 보도한 이후 동학당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신문』 또한 9월 27일 동학당 50여명이 대구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동학당의 동향에 주목하였다. 이시기 동학당 관련 신문 보도들의 특징은 우선 경상도 지역 동학당 동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부산간 병참선로의 군용전선에 대한 동학당의 전선주 파괴 내지는 군용전선 절단행위로 인해 청일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⁹⁾ 이로 인해 일본은 대구병참부에 "또 다시 절단하

44) 최덕수, 앞의 책, 29쪽.

45) 고석규, 「집강소기 농민군의 활동」,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역사비평사, 1995, 132~134.

46) 『국민신문』, 「東徒は良民也」, 7월 4일.

47) 『국민신문』, 「朝鮮の東學黨」, 8월 29일.

48) 『시사신보』, 「大院君、反亂鎮靜のため領袖を赦免」, 9월 9일.

49) 9월 30일까지 이 지역 동학농민군의 전선주 파괴 및 군용전선 절단행위가 적어도 15건에 달하였다고 한다.

는 자가 있으면, 책임 있는 불태우고, 그 주민을 격살할 정도의 위세를 보여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동학당의 선제공격에 위한 일본군의 보복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사신보』는 아산에서 패주한 청병 수십명이 동학당에 합류하여 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특보로 보도하고 있는데⁵⁰⁾, 이는 청일전쟁의 연장선에서 일본군에 의한 동학당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10월 18일 조일공수동맹을 근거로 청병과 결탁한 ‘비도’에 대한 토벌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형식은 조선이 일본군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었다.⁵¹⁾ 10월 27일 일본은 각 토벌대에게 “동학당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치할 것을 요한다. 향후 모두 살육할 것”이라는 살육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일본군에 의한 농민군 토벌이 본격화되었다.⁵²⁾ 일본 언론들은 청일전쟁의 연장선에서 농민군을 ‘적’ 또는 ‘폭민’으로 간주하거나, 조선의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방해하는 ‘폭도’=‘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군의 농민군 토벌을 정당한 것으로 보도하였다.⁵³⁾

5. 맺음말

그동안 1894년 농민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일본군의 농민군 인식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가츠오에 의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다. 그에 의하면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에 동원되었던 병사들은 대부분 시코쿠 지역 출신 소작인, 인력거꾼, 낱팜팔이 등 빈농, 빈민(민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농민군을 야만인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조선의 문명화와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하였다고 한다. 또한 시코쿠 지역 어느 양식 있는 지식인은 농민전쟁 지도부를 조선 국민 중의 선각자로 평가하고 농민군 토벌에 대해서 “어찌 후세에 한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인이 죽으면 천인이 원망할 것이며, 천인이 죽으면 만인이 원망할 것이다”라고 하며 당시 농민군 토벌을 지휘했던 이노우에를 거론하며 비판하였다고 한다. 전자는 동 시대 ‘민중’이 ‘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었던 논리인 ‘문명’ 속에 간혀 있는(타자화) 민중을, 후자는 당시 일본군에 의한 자행된 조선 민중 학살에 대한 어느 지식인의 비판 글을 소개한 것이지만, ‘선각자(근대)’로 포섭하고자 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1894년 당시 농민군을 탄압하고 이를 정당화했던 논리를 비판하고자 한 것도 아니며, 일본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조선 민중 학살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적 존재로서 ‘민중’에 다가가기 위한 前 작업으로서 1894년 당시 근대적 지식인이 어떠한 시선으로 농민전쟁과 그 속에 존재하는 농민군(민중)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사신보』와 『국민신문』의 동학농민전쟁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근대적 지식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농민전쟁과 농민군의 한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문명국(근대국가) 일본의 시선으로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존재로서 미개국 조선

(강효숙,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인문학연구』 6집, 2005),

50) 『시사신보』, 「東學黨の動搖、淸人の煽動」, 10월 11일.

51) 강효숙, 앞의 논문, 41쪽~43쪽.

52) 강효숙, 앞의 논문, 참조.

53) 임오군관 당시 후쿠자와는 폭도를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출병은 문명을 위해서 적을 문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 하였다. (高城 幸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 諭吉)의 정치평론에 나타난 조선정략론 -『時事新報』 조선관련 논설(1882~1900)을 중심으로-」 『한국정치』 13, 2004, 60쪽).

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동시에 문명(근대)적 지식인의 시선으로 문명화를 저해하는 문명의 적으로써 민중의 존재를 규정하였다. 즉,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미개국 조선이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농민전쟁을 '소란' 또는 '내란'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또한 조선을 개혁하고 문명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해시켜야 하는 계몽의 대상으로서 농민군을 '양민'으로, 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문명의 적인 '폭민'으로 인식되어졌다.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 병참부와 조선민중
- 황해·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

강 효 숙(진실화해위원회)

들어가는 글

1. 조선정부의 관문(關文) 통달
2. 인마 징집과 관련하여
3. 임금 문제
4. 통화문제
5. 기타 조선민중의 갈등
맺는 글

들어가는 글

청일전쟁은 조선에서 시작되어 청국으로 확대되어 갔고 더불어 일본군의 병참기지도 인천-서울, 부산-서울, 원산-평양에서 점차 서울-의주 그리고 중국으로 확대되었다. 일본군의 조선 병참화는 조선정부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비합법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조선민중은 처음에는 개인이나 소수에 의한 일본군 병참부 습격, 군용전선절단 등의 소극적이고 비조직적인 형태의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조선민중에 대한 진압이 점차 강화되자 조선민중의 항일투쟁 역시 점차 적극적 그리고 조직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반외세 투쟁, 즉 조선민중의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과의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일본 학계의 경우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는 청일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 졌으며, 1968년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의 『日清戰爭の研究』에서 시작되었다.¹⁾ 이후 일본 측의 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동학 농민군과 일본군의 갈등을 다룬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²⁾

※ 본고의 일자표기는 양력으로 통일하였다.

1) 中塚明,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1968.

2) 구양근, 「東學農民軍의 戰鬥課程의 檢討 -第二次蜂起と日本軍との交戦を中心に-」, 『學術論文 5』, 朝鮮獎學會, 1975; 井上勝生, 古河講堂 旧標本庫 人骨問題調査委員會 『古河講堂 旧標本庫 人口問題報告書』, 北海道大學文學部, 1997; 井上勝生,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の彈壓」, 『近代天皇制の形成・確立に關する基礎的研究』, 北海道大學文學部, 1999; 井上勝生,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軍」, 『近代日本の内と外』, 吉川廣文館, 1999; 조경달, 『異端의 民衆反亂 -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 강효숙,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青木書店, 2002.5;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6;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9;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년 겨울호;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 -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동북아역사재단총서 48, 동북아역사재단, 2009.5; 차경애, 「清日戰爭 당시의 戰事見聞錄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 《명청사연구》 제28집, 명청사학회, 2007.

일본 근대사에 있어 최초의 본격적인 해외침략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은 제1차 동학농민전쟁을 좋은 기회로 삼은 일본정부가 일으킨 전쟁으로, 일본 학계는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외교사적 측면, 대외인식 그리고 당시의 국제관계 등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4년에 『日清戰爭の社會史』³⁾가 발간된 이후 전쟁과 일반 민중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 즉 군속 및 전쟁에 징병된 자식을 둔 지역 주민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남겨진 가족들의 삶, 부대가 행군한 행군 연도 주민들의 인식, 군부대 내의 질병사를 포함한 전사, 그들에 대한 기념 및 기억 등에 관한 연구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민중의 삶 속에 있어서의 전쟁, 즉 민중 사회속의 전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한국 측 연구로는 차경애의 「청일전쟁 당시의 전쟁전문록을 통해서 본 전쟁지역 민중의 삶」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 측의 청일전쟁 관련 전문록을 자료로 청일전쟁 속에서 보여지는 조선뿐만 아니라 청국 민중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본고는 지금까지 제2차 동학농민전쟁 당시 비합법적으로 시작된 일본군의 조선병참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조선민중과 일본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894-95년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일본군의 기록을 근거로, 일본군이 원만한 인마·식량징발을 위해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군의 진군연도 지역의 지방관청에 관문을 통달시킨 것을 비롯하여 의주에 이르는 일본군 병참부 주변의 조선민중에 대한 인마징발·임금·통화문제 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⁴⁾ 지역적으로는 청일전쟁의 현장과 바로 연결되는 황해·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황해·평안도 지역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연구로는 구양근,⁵⁾ 한우근,⁶⁾ 박종근,⁷⁾ 송찬섭,⁸⁾ 정은경⁹⁾ 등의 연구가 있다.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조선민중과 일본군의 갈등을 다룬 연구로는 구양근의 「東學農民軍の戦闘課程の檢討 -第二次蜂起と日本軍との交戦を中心に-」, 박종근의 『日清戰爭と朝鮮』¹⁰⁾ 그리고 강효숙의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¹¹⁾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조선민중의 항일투쟁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조선민중과 일본군 병참부의 관계를 살피기에는 부족한 감이 적지 않다.

3) 大谷正原田敬一 편, 『日清戰爭の社會史』, フォーラムA, 1994.

4) 본고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황해·평안도 지역 조선민중의 항일투쟁 전개, 즉 황해·평안도 지역 조선민중의 일본군 속영지 방화, 군용전선파괴 등의 소극적인 항일투쟁이 어떻게 적극적·조직적인 항일투쟁으로 전개되고, 그에 대한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발표한다(「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한국근현대사연구》 2008년 겨울호, 한국근현대사학회).

5) 이 논문은 당시의 일본 측 신문자료를 사용하여 일본군의 황해·평안도 농민군 「토벌」 등이 중심이다.(구양근, 「東學農民軍の戦闘課程の檢討 -第二次蜂起と日本軍との交戦を中心に-」, 《學術論文 5》, 朝鮮獎學會, 1975.)

6) 한우근, 「동학농민의 봉기와 전투 -강원·황해도 지역의 경우」, 『한국사론』 4, 1978.

7) 박종근, 『日清戰爭と朝鮮』, 靑木書店, 1982.

8) 송찬섭, 「황해도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4.

9)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895.11.

10) 박종근, 『日清戰爭と朝鮮』, 靑木書店, 1982.

11) 강효숙,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서울이남지역의 일본군 병참부와 관련한 연구로는 야마무라 켄(山村健)의 「日清戰爭期韓國の對日兵站協力」이 있는데 그는 방위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당시 조선정부와 서울 이남의 조선민중은 일본군 병참부에 협력적이었다고 평가를 한 바 있다.¹²⁾

참고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방위연구소 자료는 『史料 千代田史料』(이하 『千代田史料』)와 육군성 자료이다. 『千代田史料』는 청일·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군이 메이지(明治)천황에게 보고했던 서류 및 기록 등의 도서류를 모은 자료이다. 소화 초기에 시종직(侍從職)에서 도서료(圖書寮)로 이장되어 있었던 덕분에 종전 후 구 일본군에 의해 소각처분 되지 않고 보존된 것으로 일본 궁중에 남은 유일한 군사 기록물이다. 1959년 방위연구소에 기증되었고 현재 방위연구소 전사부에서는 『千代田史料』라 칭하고 있다.¹³⁾ 이 자료는 각 자료집마다 목차가 있고 활자화 되었으며 1차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1894-95년 당시의 1차 자료와의 비교 및 비판이 필요하다. 육군성 자료는 초서체의 1차 자료가 중심을 이루며, 『千代田史料』와 마찬가지로 조선관련 내용이 별도의 책자 및 별도 내용으로 철해져 있지 않다. 청일전쟁 관련 자료 속에서 일일이 관련 내용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집에 목차가 없다.

이상의 일본군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일전쟁 당시 일본병참부와 조선민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황해·평안도 지역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재조명이 될 것이며 총체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1. 조선정부의 관문(關文) 통달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조선병참화는 조선정부의 허가 내지 동의없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1894년 6월에 이미 제물포항-일본군 주둔지 사이에 병참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7월 중순에는 군용전선 가설대 파견하였고 점차 부산-서울 사이에 병참부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도로수선대 및 병참수비대를 파견하였다.

서울이북지역에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파견된 것은 7월 24일 편성된 임진진독립지대의 북진에서 시작된다. 당시 다른 일본군 부대가 충청도 성환을 향하여 남진한 것과는 반대로, 의주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향하고 있던 청군을 의식한 일본군의 북진이였다.¹⁴⁾ 1894년 7월 31일, 500명이 넘는 임진진독립부대가 임진진에 나타나자 조선민중은 매우 동요하였다. 그로 인해 일본군은 양식을 징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매일 가까이는 20리 반, 멀리는 30여리의 개성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

12) 山村健, 「日清戰爭期韓國の對日兵站協力」, 『戰史研究年報』 제6호, 방위연구소, 2004. 117~133쪽.

13) 방위연구소 도서관에는 『千代田史料』를 비롯하여 후생성 복원국이 정리하여 보관하였던 자료, 방위연구소가 직접 수집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 메이지유신 이후의 육군관계자료 54,000책, 해군관계자료 37,000책, 戰史관련도서 등 약 59,000책을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새로이 공개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자료의 일부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www.jacar.go.jp/index.html)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참고, 강효숙,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관련사료 해제」, 《한국근현대사연구》 2008년 겨울호, 한국근현대사학회).

14)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이하 방위연구소), 『明治 27年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部, 7.1-7.29』, 193쪽. 병력은 종전의 임진진에 파견되어 있던 1중대를 훨씬 넘어선 보병 제21연대 2개 대대(2중대 결), 기병 1소대(24기), 포병 1중대(1소대 결), 제1 야전병원의 반부로 이루어졌다.(참고로 1중대는 221명)

다.¹⁵⁾

조선민중은 이처럼 갑자기 나타난 일본군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의 징발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임진진의 일본군은 이러한 조선민중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해, 7월 25일,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조선 내의 청군 축출을 의뢰한 것을 근거로 일본군이 진군 연도에서 편리하게 양식 등을 징발할 수 있도록 조선정부로 하여금 각지에 관문을 통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관리를 파견하여 일본군의 징발을 돕도록 강요하였다.¹⁶⁾ 8월 7일 일본군 평양분견대가 조직되어 파견되었을 때 그들의 급양은 행진연도의 조선관리에게 청구하여 변통하였다.¹⁷⁾

조선정부의 관문 통달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군은 일찍이 7월 24일 당시의 인천 병참사령관이었던 다케노우치 세사크(竹内正策)가 직접 조선정부의 김가진과 안경수를 만나 인마징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 바가 있었다.

제1 조선정부는 지방장관 및 지방인민에게 엄명을 내려 일본군대가 필요로 하는 바, 그 사용에 제공될 인마 징수에 있어 조선민중인 자는 노력하여 편의를 주고 결코 도주하지 말 것. 관리는 이 일을 잘 도와 주선할 것. 만약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국법으로 엄벌에 처할 것.

제2 조선정부는 오늘부터 상당 수의 관리와 육군무관을 병참감에 파견하여 크게 인마징용의 사무를 도울 것.¹⁸⁾

7월 24일은 일본군이 무력으로 조선왕궁을 점령한 다음 날이며 서울에 집결한 일본군이 아산의 청군을 향하여 남진한 날이다. 조선정부는 일본군에게 둘러싸인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 측의 의도대로 조선의 외무독변 김윤식이 재한일본공사 오도리 케스케(大鳥圭介. 이하 오도리)에게 충청도 아산의 청군 축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로 전 날이다.¹⁹⁾ 즉, 조선정부의 공식적인 청군축출 요청 이전에 이미 일본군의 비합법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정부는 8월 10일 일본군의 급양요구를 받아들였다.²⁰⁾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이하 무츠)는 7월 23일에 있었던 일본군의 조선왕궁 무력점령사건 이후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침범한 사실을 인식하고, 일본의 조선내정간섭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정부의 간섭이 발생할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오도리 공사에게 조선이 일본의 동맹국임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육군사관을 초빙하여 조선군 훈련에 종사하게 하도록 훈령하였다.²¹⁾ 그는 또 청일개전 후에 조선정부가 청일양국의 교전을 타인의 일처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였다. 즉 그러한 상황이 자칫 타국의

15) 방위연구소, 『第5師團 陣中日誌』, 『千代田史料 5』, 3-4쪽.

16) 방위연구소, 『第5師團 兵站監督部, 明治27.7.28.-8.31.』, 185-186쪽.

17) 방위연구소, 『混成旅團 第9旅團 第5師團 報告』, 261-262쪽.

18) 山村健, 「日清戰爭期韓國の對日兵站協力」, 121-122쪽.

1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국사편찬위원회, 1986, 315쪽;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247쪽.

20) 山村健, 「日清戰爭期韓國の對日兵站協力」, 123쪽.

21)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212-213쪽.

비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본군의 조선파견 명분을 없애고 결국엔 다른 나라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한 무츠 외무대신은 8월 13일 오도리 공사에게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여 청국과 교전하게 할 것을 엄중히 훈령하였고,²²⁾ 이에 대해 오도리 공사는 8월 14일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일·청간의 전쟁선포에서 우리 육해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선을 전쟁지역에 포함시키는 일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7월 24일부의 다음의 신청에 따라 조선과 공수동맹을 체결하기를 바람.(밀줄 필자)

- 1) 이 동맹의 제의는 청군을 조선 영토 밖으로 축출하여 조선국의 독립을 확고한 기반 위에 유지하고 일본과 조선 양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일본군은 청국에 대하여 공수 양면의 전쟁을 담당하고 조선국은 일본군대의 식량공급과 활동을 위한 가능한 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훈령을 요청함.

8월 14일 오후 7시 50분 발신

무츠 대신²³⁾

이상에서 조일공수동맹의 기반과 일본군에 대한 조선정부의 식량공급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기초가 7월 24일에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인천 병참사령관 다케노우치가 조선정부의 김가진과 안경수를 만나 강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밀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 측은 조선을 전쟁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조선과 공수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끌어들이어 청일전쟁을 ‘조·청·일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²⁴⁾

8월 25일 오도리 공사는 무츠 외무대신에게, 「조일공수동맹 약정초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²⁵⁾ 다음 날 8월 26일 일본 측의 의도대로 조일공수동맹이 체결되었다.²⁶⁾ 그 사이에 오도리 공사는 무츠 외무대신에게 몇 번이고 조일동맹 체결을

22)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 215-216쪽.

23)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60쪽. 한글 번역본에 원 자료(영문)의 “term”이 “약정”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신청”으로 번역, 사용함.

24) 필자는 일찍부터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또 하나의 청일전쟁’ 혹은 청일전쟁을 ‘조청일전쟁’으로 주장해 왔다. 그 근거로는 일본군대사 측면에서 볼 때 일본군의 철저한 농민군 탄압 배경이 청일전쟁의 병참지보호 성격 및 농민군의 러시아집경지역으로의 도주 방지가 주목적 이었던 것에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1895년 2월 23일 제정된 일본군의 「점령지 인민 처분령」은 청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군이 농민군을 탄압하는 과정을 그대로 성문화한 내용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은 일본군에게 있어 전쟁의 현상이었고 조선민중은 일본군에게 있어 점령지의 인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청일전쟁’이 아닌 ‘조청일전쟁’을 의미한다. 선전포고 가운데 전쟁 상대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본정부의 청일전쟁 선전포고 초안 6점 가운데 1894년 7월 31일 각의를 받아 기안한 3점의 초안에 전쟁 상대국이 ‘청국 및 조선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 육군성 자료의 제목에서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철 1」, 「비밀 일청조사건 제정보철」, 「비밀 일청조사건 제5사단 혼성여단 보고철」, 「청조사건 제상보철 1, 비밀 육군성」, 「청조사건 제상보철 2, 비밀 육군성」 등에서도 ‘일청조’ 내지 ‘청조사건’으로 칭하여 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일본군의 또 다른 자료에서는 농민군과의 많은 싸움을 ‘전투’로 표현하였고 농민군을 ‘적’으로 간주하고 생포한 농민군에 대해서는 ‘포로’라는 전쟁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본군이 제2차 동학농민전쟁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강효숙,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제2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청일전쟁에 있어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진압」;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민중탄압 -일본군의 ‘비합법성’을 중심으로-」).

25)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72-273쪽.

26)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75쪽.

재촉하였다. 조일공수동맹의 체결로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인마 등의 징집이 한층 편리하게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조선정부는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동맹이 아니었던 까닭에 조일공수동맹 관계를 외국사절에게 통고하기를 주저하였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자세에 대해, 9월 8일, 오도리 공사는 무츠 외무대신에게 조선정부가 스스로 통고하기를 끝내 거부하면 본인이 통고해도 좋을지를 물었고, 다음 날 무츠 외무대신은 자신이 통고하겠다고 답하였다. 동시에 동맹약정에 관해서는 일본정부가 정부 관보에 공포할 터이니 마찬가지로 조선정부로 하여금 필히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라고 하였다.²⁷⁾ 오도리 공사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에 “이의 없음. 조선정부 역시 정부 관보에 공포할 것임”이라고 회답하였다.²⁸⁾ 조선정부가 일본정부의 강요에 의해 주저하면서 관보에 동맹약정의 전문을 발표한 것은 9월 16일이었다.²⁹⁾

이와 같이 하여 조선정부의 관문은 7월 24일부터 일본군이 진군하는 연도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에 통달되었고 조일공수동맹에 의해 일본군의 인마·식량징발 등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관문이 통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식량이나 인마징발은 민중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특히 인부징발의 경우에는 청군의 모집에는 응하는 조선민중은 많았으나 일본군의 사역은 오히려 기피하였고, 일본군의 모집에 응한 인부들 역시 야행이나 며칠간의 숙박에는 복역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복역시켜도 도중에 도주하거나 숨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³⁰⁾

이처럼 제도적으로는 조선정부의 관문통달이 이루어졌고 조일군사동맹이 체결되어 조일 양 정부 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부딪히는 조선민중과 일본군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존재하였다.

2. 인마 징집과 관련하여

9월 14일을 전후한 평양전투 당시 청일 양군은 27,000여명에 달하였다. 이후 청군은 의주가도를 따라 청국으로 물러났고 승리를 거둔 일본군이 전력을 가다듬은 후 북진을 시도하였는데 9월 26일 평양에만 제5사단을 중심으로 15,000여명의 일본군이 체재하고 있었고 제3사단은 9월 28일경 평양에 도착하였다. 10월 14일 이전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본군은 27,000명 이상이 된다. 이 인원 대부분이 의주를 경유하여 청국으로 행진한 1894년 10월 25일이다.

약 27,000명의 일본군이 중국을 향하여 북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황해·평안도 지역의 인마 등의 징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월 하순 제5사단은 서울 용산을 출발하여 임진진-개성-평산-서흥-봉산-황주(혹은 용산-임진진-개성-연안-해주-재령)를 경유하여 평양을 향하여 북진하였다.

27)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85쪽.

28)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88쪽.

2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4, 297쪽.

30) 川崎紫山, 『日清陸戰史』, 동경, 춘양당, 99쪽.

제5사단은 진군연도의 대부분의 조선민중이 난을 피하여 이산한 까닭에 필요한 만큼의 인마를 징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식 등의 운반에 큰 장애가 발생하여 진군이 지체되었다. 따라서 제5사단은 오도리 공사에게 서울근방의 우마를 징발하여 전방에 보내도록 요청하였다.³¹⁾ 오도리 공사는 즉시 서울근방의 인마를 징발하여 9월 3일 전방으로 보냈으나 인부는 도중에 모두 도망하고 말았으며, 평산 이북 지역에서는 징발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일본군은 히로시마(廣島, 이하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이하 병참총감)에게 양식 등을 운송선에 실어 대동강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인천의 일본 거류민에게는 황해도 해주에 양육하는 군량을 군대가 있는 황주로 운반하는데 조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³²⁾

개성 이북에서도 일본군은 인마징발 등의 문제로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해주-봉산 병참로 주변의 조선민중의 분위기는 험악하여 공사관 서기 쓰기무라(杉村濬, 이하 쓰기무라)에게 순사 10명을 빌려달라고 조회하기에 이르렀다.³³⁾

한편, 원산에서 평양을 향하여 출발한 일본군 약 1만 명은³⁴⁾ 선·후발대로 나누어 진군하였는데, 선발대의 경우 험악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부식물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소와 병졸은 각자 7일분의 양식만을 휴대하였다. 보병 제18연대 제1대대의 경우는 양덕에 6일간 머물면서 물자징발에 종사하였는데, 성천부에서는 곡물 징발을 위하여 조선민중이 성천부 밖으로 곡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양덕병참부는 원창으로 하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압제적인 수단을 써서” 간신히 조선민중 45명을 모을 수가 있었다.³⁵⁾ 제18연대 제1대대는 “...이번 전쟁은 쌀과 소금으로 지낼 것. 단, 평양에 나아가면 충분히 급양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참고 각오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보병 제18연대의 한 지대장은 “...급양상의 일은 대단히 박약하다. 나는 15일, 16일은 휴대식량으로 전투를 하고자 한다. 평양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양식이 없을 것이다. 양식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 각 부대에서 각자 적당한 수단을 쓰라”고 훈시하였다. 삭령지대의 경우는 “스스로 징발”하면서 평양을 향하여 진군하였다.³⁶⁾

이와 같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진군한 일본군은 양덕에 1부대를 체제시켜 집중적으로 식량을 징발하는 한편 지대장의 훈시에 따라 각자 “적당한 수단”으로 식량 등을 징발하면서 평양으로 진군하였으나 생각대로 징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양전투에 승리해야만 식량문제가 해결될 상황이었다.

9월 14일, 15일의 평양전투에서 패한 청군은 의주가도를 따라 압록강을 넘어 청국으로 도주하자 일본군이 점차 평양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평양주변의 조선민중은 약 27,000명의 청·일 양군에 의한 평양전투를 피해 거의 이산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군은 우마나 식량징발을 할 수 없었고 청군이 남긴 쌀이나 보리, 그리고 후

3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6』, 36쪽.

32)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6』, 65-66쪽.

3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6』, 70-71쪽, 92쪽. 11월말 이후 해주, 봉산에서는 농민군이 끊임없이 일본군과 투쟁하였다.(강효숙, 「황해평안도의 제2차 동학농민전쟁」)

3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7』, 118쪽.

3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50』, 833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6』, 31-32쪽.

3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49-50쪽, 55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6』, 270쪽.

송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9월 26일 평양에 모여든 일본군은 제5사단 전원과 제1군 사령부의 장교 등 인부를 합쳐 약 15,000명에 달하였다.³⁷⁾

평양부근에서 대열을 가다듬은 일본군은 사단을 4개로 나누어 10월 3일부터 북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감독부는 순안과 숙천의 병참사령관에게 인력이 미치는 한 인마와 양식을 징발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때로는 강행 수단을 사용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음. 요는 우리 군대가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³⁸⁾

일본군은 북진에 앞서 박천이북 연도지방의 물자징발과 구성이북의 도로수리 그리고 압록강의 도하점 수색을 목적으로 한 선발대를 파견하였다.³⁹⁾ 그러나 선발대는 이르는 곳 마다 조선민중들이 피난하여 물자징발을 할 수 없었다. 병참감은 부사에게 조선관리를 파견하여 조선민중을 설유하여 운반에 힘쓰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관리는 비협조적이었다. 정주에서는 4, 5일 사이에 6, 70명의 조선민중을 모았으나 조선민중은 습관적으로 원거리 숙박을 기피하였고 강제로 사역시키면 도주하여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휴대식량 외에 정미 2일분을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⁴⁰⁾

10월 14일 이전, 평양이북에 체재하고 있던 일본군은 27,000명 이상이었고 말은 65두 이상 이었는데⁴¹⁾ 이에 필요한 운반력은 다음과 같았다. 즉 당시 평양-의주 간의 육로는 500여리로 50리 혹은 60리마다 병참지를 설치할 경우는 약 10개의 병참지가 필요했다. 진군하는 인마가 1일에 필요로 하는 양식은 석수로 계산하면 약 250석으로 계산할 경우, 각 병참지는 매일 전군대의 1일분의 양식을 운반하려면 1일분에 대한 2배의 운반력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1일분, 즉, 250석에 대한 운반력은 인부일 경우 1,250인(1인의 부담량 2두), 차량일 경우는 250량(1량 1석을 적재)이 필요했다. 각 병참지에서 요하는 운반력은 그 수의 2배, 즉 인부 2,500인 혹은 차량 5,00량이 되며, 이것을 10개의 병참지로 계산하면 총 25,000명 혹은 5,000량의 차량이 필요했다.⁴²⁾

당시 평양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제1군의 진군 일정표는 다음과 같았다. (【그림 1】 조선에 설치된 병선로>를 참고)

<표-1, 제1군 진군 예정표(1894.10.11 - 10.23)>

일자	제1병참 양식종열	제2병참 양식종열	제3사단 제1제단	제3사단 제2제단	제5사단 제1진군대	제5사단 제2진군대	예비포창
----	--------------	--------------	--------------	--------------	---------------	---------------	------

37)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44쪽. 제3사단의 경우, 9월 12일 인천에 입항하자마자 즉시 상륙하여 다음 날 13일부터 점차 인천을 출발하여 서울, 고양군, 이천점, 금천, 남천, 서흥부, 검수를 경유하여, 사령부는 같은 달 28일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나머지는 봉산과 황주 사이에 체재하였다;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 5』, 1074-1076쪽.

3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9-10쪽.

3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5』, 40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110쪽.

40)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73-674쪽.

4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8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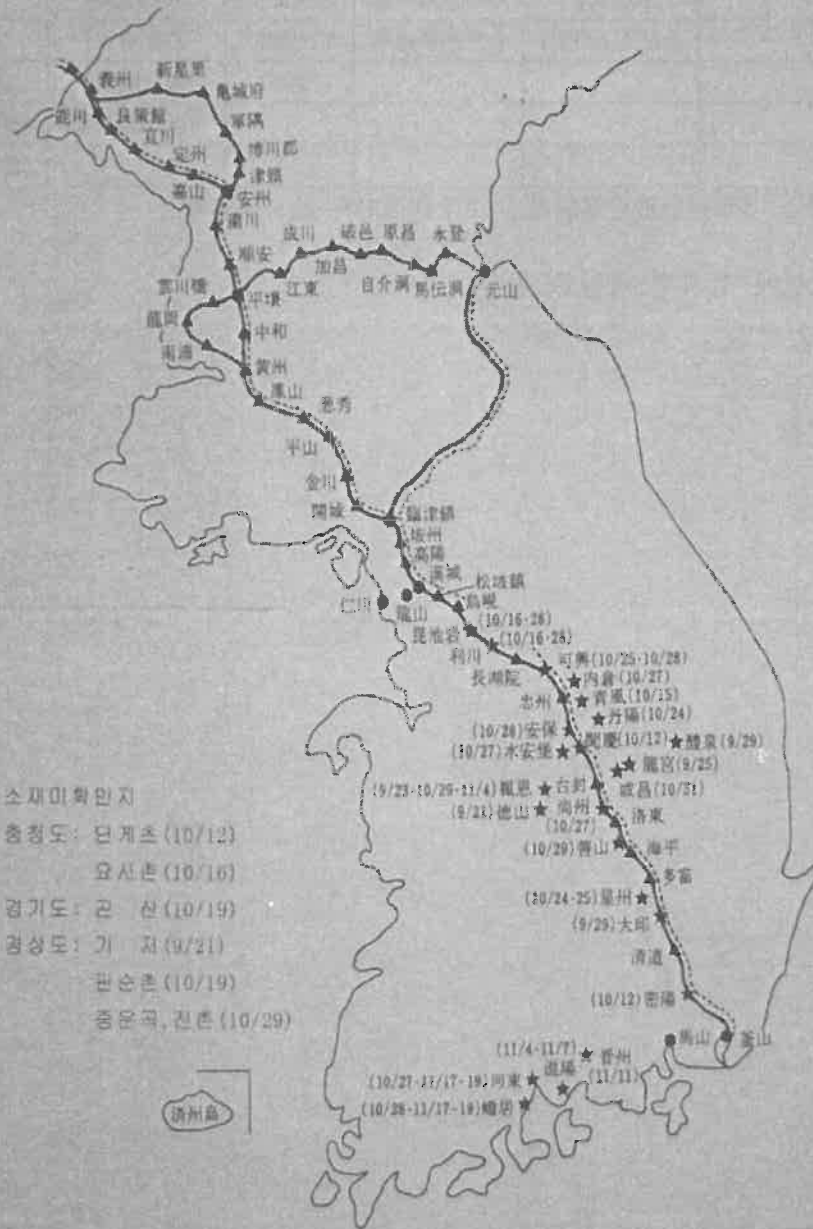
42)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89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143-144쪽.

11일	속천(肅川)						
12일	안주(安州)						
13일	가산(嘉山)	속천(肅川)					
14일	가산(嘉山)	안주(安州)	박천(博川)	안주(安州)	속천(肅川)	순안(順安)	
15일	정주(定州)	안주(安州)	군우(軍隅)	가산(嘉山)	안주(安州)	속천(肅川)	순안(順安)
16일	선천(宣川)	가산(嘉山)	구성(龜城)	가산(嘉山)	안주(安州)	속천(肅川)	속천(肅川)
17일		정주(定州)	구성(龜城)	정주(定州)	가산(嘉山)	안주(安州)	안주(安州)
18일			신성리(新成里)	선천(宣川)	정주(定州)	가산(嘉山)	안주(安州)
19일			원창(院倉)	서림진(西林鎭)	선천(宣川)	정주(定州)	가산(嘉山)
20일			소찬관(所弗館)	소찬관(所弗館)	철산(鐵山)	선천(宣川)	정주(定州)
21일					용천	철산(鐵山)	선천(宣川)
22일						서림진(西林鎭)	서림진(西林鎭)
23일							소찬관(所弗館)

(참고 : 방위연구소, 「軍前進豫定日割表」, 『千代田史料 2』, 688쪽.)

【그림 1】 조선에 설치된 병참로 등

【그림 1】 조선에 설치한 명장료, 군용전선 및 초기의 동학농민군합력
 (1894년 8월 29일~11월 12일) (명장선로— 군용전선— 명장지▲ 전투지★)



(참고 : 강효숙, 「第2次 東學農民戰爭と日清戰爭」, 《歷史學研究》, 青木書店, 2002.5, 21쪽 재인용)

이 진군표에 기재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제3·제5사단의 총 인원은 25,245명(쌀 151석 4두 7승)이었고 마필은 5,860두(보리 293석)였다.⁴³⁾ 이상의 일본군은 의주가를 따라 북진하려 하였으나 의주가도 연변의 조선민중들은 피난하여 거의 마을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일본군은 양식은 충분히 집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마를 징발할 수 없어 양식을 운반할 수 없었고 10월 6일 여단 이외의 모든 부대가 북진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⁴⁴⁾

이처럼 일본군은 이르는 곳마다 운반력 부족으로 양식을 운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전투선상의 기아가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일본군은 해운을 이용한 양식 운반을 서두르게 되었다. 즉 철도와 압록강을 건너는 연안에서 상륙지점을 한군데 선정하여 그곳에 다량의 군량을 집적하기로 하고, 제1군 병참감 시오야(塩屋方國. 이하 제1군 병참감)는 함대사령관 이토우(伊東裕亭. 이하 함대사령관)에게 해상운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⁵⁾

일본군은 육로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하였다. 10월 6일, 참모부는 오도리 공사와 평양의 오무라(小村) 외무서기관에게, 조선정부로 하여금 양식운반의 책임을 지고 인부와 우마를 징수케 하여 병참의 수용에 임하게 할 것을 통보하였다.⁴⁶⁾ 같은 날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하 야마가타) 역시 오도리 공사에게 “압록강으로 진군 중, 조선정부의 협력”을 전보로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군대는 압록강을 향하여 전진 중임. 그러나 연도의 인부, 우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에 미치지 못하여 군량운반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일부 전진을 일시 중지하기에 이룸. 이런 경우에 이른 것은 필경 조선정부의 책임과 진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특히 동맹군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따라서 차체 인마징집에 충분히 힘쓰게 하여 연도 각지의 병참사령부에서, 사람일 경우는 1,500[명], 우마일 경우는 1천두를, 군량 운반을 위하여, 의정부는 책임을 지고 차출할 뜻을 엄중히 통고하고, 또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리를 속히 연도에 파견할 것도 아울러 통고해 주기 바람. 단, 인마의 운임은 군대에서 지급함.⁴⁷⁾

10월 8일 고무라(小村) 외무서기관은 야마가타의 명을 받아 오도리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였다.

야마가타(山縣) 대장으로부터 각하게 다음과 같이 전보를 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 우리 군대는 인부가 부족하고 한전이 결핍되어 일보도 전진할 수 없어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조선정부와 엄담하여 다음 4개조를 평양감사에게 電訓하여 속히 결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1, 평양 및 그 이북의 각 병참부에 인부 1,500명씩을 제공하게 할 것. 2, 인부 모집에 응한 자는 그 수에 따라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것. 3, 일본은화를 조선은화와 마찬가지로 조세 납부나 인민 상호의 거래상 지장 없도록 통용시

43)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督部 明治27.9.4-明治27.12.31』, 99쪽, 103쪽.

4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53-54쪽, 70쪽.

4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53-54쪽.

4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 194쪽.

47)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1988, 280쪽.

키고, 만약 거부하는 자는 엄중히 형벌에 처할 것. 4. 한인부의 모집 또는 감독에 관계하는 관리로서 그 貨錢의 일부를 사유하는 자는 엄중한 형벌에 처할 것.⁴⁸⁾

이와 같이 야마가타는 오도리 공사에게 조선정부에 대하여 각 병참부에 1,500명의 인부를 낼 것과 동시에 일본군의 사역에 응하는 인부에게는 조세의 일부 내지 혹은 전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전부족으로 인한 일본은화 유통을 강제적으로 요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10월 10일 야마가타 1군 사령관은 평양감사에게 각 병참사령부에 매일 인부 1,500명(우마일 경우는 1000두) 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각 병참사령관에게는 각 지방의 관리와 엄중히 담판하여 우마의 징발을 재촉할 것을 훈시하였다.⁴⁹⁾

일본군은 조선민중을 징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의 매일 운반에 종사하는 한편, 양식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물자 징발에도 전력하였다. 징발 종류로는 정미, 나락, 대맥, 조, 팥, 대두, 소두, 우마, 돼지, 닭, 계란, 간장, 기름, 무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일반민중의 일상적인 식품이기도 하였다.⁵⁰⁾ 이외 땀감과 탄이 있었는데 땀감의 경우는 관림을 벌채하거나 조선관리와 협의하여 관사를 부셔서 땀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징발구역은 병참선로 주변의 수 십리에 까지 확대되었고, 관리가 도주한 곳은 지방의 유력자를 관리 대리로서 삼아 피난한 조선민중의 귀가와 양식 징발을 재촉하였다.⁵¹⁾

한편, 복원(영변부 근처)의 관사에 약 300석의 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일본군은 그것을 박천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관리 1명을 인질로 박천에 끌고 가서 다음 날 병졸 11명을 동반하여 그 반을 운반하였다.⁵²⁾ 이와 같이 일본군의 강력한 징발이 이루어지자 10월 8일 안주에서는 조선관리가 일본군을 방문하여 “만약 부대가 징발을 그만두면 반드시 가능한 한 그 요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⁵³⁾ 이는 일본군이 직접 징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려한 조선관리의 결단으로 이해된다.

이리하여 어느 정도 양식문제가 해결되자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결빙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군은 10월 14일 이후, 숙천과 평양 사이에 체재하던 일본군은 의주가도를 따라, 안주에 있던 일본군은 박천과 구성을 경유하는 구성가도를 따라 북진하기 시작하였다.⁵⁴⁾ 황주에 있던 제3사단 일부는 10월 17일부터 2제단으로 나뉘어 의주로 북진하였다.⁵⁵⁾

청국의 대고산, 대동구 등의 근해가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3월 말까지 결빙하여 완전히 해운이 끊어지므로, 일본군은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의주 주변에 제1군을

48)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642-643쪽.

4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10월 10일, 143쪽.

50)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87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600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5』, 1087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6』, 686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89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602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844쪽 등.

5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90-92쪽.

52)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5』, 44쪽.

5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6』, 91-92쪽.

54) 방위연구소, 『監督部』, 『千代田史料 2』, 690쪽; 방위연구소, 『監督部』, 『千代田史料 45』, 1092쪽.

5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5』, 1537-1538쪽.

위한 6개월간의 군량을 집적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용천부근의 이호포에 양육점을 발견하여 10월 12일부터 양육에 착수하였고 23일경부터는 별도로 대동구에서도 양육할 계획을 세워 남부병참사령관 이토 히로요시(伊藤裕義, 이하 남부병참사령관)에게 운송선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⁵⁶⁾ 제1군의 경우 겨울 동안에는 바다를 통한 운반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평양에서 육로를 이용한 운반이 절대적이었다.

「제1군의 군량 공급계획」에 의하면 제1군의 인마 총계는 사람 4만명(인부 제외), 우마 9천두로 1일에 쌀 240석·대맥 450석이 필요하였고, 6개월의 분량은 쌀 43,200석, 대맥 81,000석으로 합계 124,200석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부식을 더하여 14만석이 되었다. 10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이것을 모두 운반하려면 40일이 필요하고, 하루에 운반해야 하는 양은 3,500석으로, 육로로는 1일 250석, 바닷길로는 1일 3,250석을 운송해야 한다.⁵⁷⁾ 이 시점에서 일본군이 가장 고려한 것은 육로 수송의 힘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일이었다.

10월 14일, 병참총감은 “...지방에서 징발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여 징발하는 방침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⁵⁸⁾ 10월 31일, 시오야(塩屋) 제1군병참감은 “정미를 중심으로 징발에 노력할 것. 또한 된장 및 소고기의 소금절이의 제조는 장려할 것”을 훈령하였다.⁵⁹⁾ 조선 각 지역에서의 물자 징발에 노력하라는 명령이다.

결빙으로 인해 새로운 운반문제가 등장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고용해 온 일본 인부는 모두 짐을 지는 힘이 약하여 1인이 4, 5관⁶⁰⁾ 밖에 지지 못하지만 한인부는 수십관목을 등에 지고 大行李의 행진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한인으로 하여금 격려심을 일으키게 하고 [일본군에 대한] 두려움을 풀게 하여 각자 그 주거지에 안주하게 하면 우리 운송력에 도움을 받는 것이 적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⁶¹⁾ 일본군의 조선 인부의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여전히 피난한 조선민중들이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평양으로부터의 후송 부족으로 군량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어 제6여단의 경우 안주에 20일 이상 주둔한 채로 복진할 수 없었다.⁶²⁾

피난하였던 조선민중들이 점차 귀가하면서 인부징집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는 임금 감소와 화폐 문제가 인부징집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임금 문제

1894년 9월 14·15일의 평양전투 직후, 서울의 경우 조선인부의 임금은 1일 80전 이었고,⁶³⁾ 평양의 경우는 60전(한전 300문)이었다.⁶⁴⁾ 10월 14일, 재복진 당시의 임금

5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200쪽. 10월 25일에는 제1군의 양향 운반을 위하여 이호포-대동강-인천 사이에 12척, 이호포의 양육선으로는 합계 5척, 기진포 양육용으로 소중기선 3척을 배정하였다.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429쪽). 같은 날 겨울용 양육지로서 진남포와 기진포를 예정하였다(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431쪽).

57)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217-219쪽.

5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194쪽.

5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25쪽.

60) 관(貫)은 무게의 단위로 한 관은 한 근의 열 배에 해당되며 약 3.75kg이다.

6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5』, 1074-1076쪽.

62)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714쪽.

은 정주 병참사령부는 1일에 60전과 급식을 추가하였고,⁶⁵⁾ 안주는 80전, 숙천은 60리를 1엔으로 계산하여,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⁶⁶⁾ 참고로 일본인 상용인부의 경우, 히로시마에서 온 인부에게는 식료를 관급하고 1일 40전을 지급하였고, 조선에서 고용한 일본인부는 식료를 스스로 준비하고 주야를 통하여 1엔을 지급받았다.⁶⁷⁾

그런데 10월 20일경의 「임부 임전 규정」에 따라 인부임금은 일률적으로 1일 60전으로 감액되었고, 10월 21일 정주 병참사령관에게 전해진 「임부 임전 규정」을 보면 “한인부의 임전은 하물 송부 시 1일 60전, 리 수에 따를 때는 1리 20전. 고로 1일 사용하면 60전이 됨. 예를 들면 1일 왕복 60리 일 때는 60전임. 그것을 무리하여 1엔 20전을 지불하지 말 것”으로 개정되었다.⁶⁸⁾ 11월 11일 또 다시 제1군 병참사령관 이름으로 “2, 1일 고용 한인의 식사를 관급하고 있는 자는 노력하여 그것을 폐할 것. 4, 한인부의 급여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감할 것”이라는 훈령이 전해졌다.⁶⁹⁾ 같은 달 22일에는 각 병참사령부에 “一, 인부 1명 1일 사용비 금 50전. 一, 짐말 1두 1일 사용비 금 1엔. 一, 소 1두 1일 사용비 금 1엔. 단, 리정을 계산하여 사용할 때는 인부는 10리 금 15전, 우마는 금 30전으로 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이 명령은 10월 24일부터 실시되었다.⁷⁰⁾

급식은 점차 폐지되었고 임금은 지역에 따라 1일 10전~50전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같은 달 29일에는 의주 병참감부로부터 평양 병참감지부에, “한인부 및 우마의 임전은 부담량 1개(쌀 2두짜리 한 가마, 약 3.6Kg)에 대해 10리당 금 10전 이내로 하고, 1일 고용은 1인에 대해 50전, 우마 1두에 금 1전 30전 이내로 개정함...이 일을 평양감사에게 전하여 그로 하여금 병참 소재지에 엄달하게 하고 인부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증케 하라”는 전보가 발송되었다.⁷¹⁾

불과 5일 만에 10리당 15전 하던 것이 10전으로 또 다시 감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개정 내용은 평양병참감지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평양감사에게 전해졌고, 평양감사가 직접 그것을 각 병참사령부에 그 내용을 전하게 하고, 또한 감급으로 인한 인부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인부임금의 감급이 평양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평양감사로 하여금 인부 감소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게 하는 것으로, 일본군에 의한 징집이 아닌 조선 관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조선민중이라는 도식이 그려지며, 외부적으로는 조선관리와 조선민중이 일본군에 대해 대단히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이다.

당시 가산에 있던 제6여단은 4개 부대로 나뉘어 11월 14일부터 북진을 하였는데, 11월 13일 당시 안주 이남에는 약 15,000명의 일본군 등이 있었다.⁷²⁾

6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2』, 635쪽.

6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7』, 102쪽. 참고로 500문 = 100전 = 1엔이다.

6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333-334쪽.

66) 일본의 1리는 한국의 10리로 약 4Km이다.

67)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5』, 261쪽.

6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337-338쪽.

6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199쪽.

70)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408-409쪽.

7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543쪽.

72) 방위연구소, 『平壤兵站支部』, 『千代田史料 9』, 245쪽. 참고로 11월 13일 이후 안주 이남의 병참부수비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관리를 통한 임금 감액에 대해서도 조선인부들의 불평은 높아만 갔다. 12월 1일 평양병참부 부관은 의주병참감부에 “2, 당지는 지난 달 임전을 10리 15전으로 줄였음. 때문에 크게 그 수가 줄어 감사가 진력하고 있지만 그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음. 만약 이것을 10전으로 줄이면 그 불평을 다스리기 어려움. 3, 은화 지불의 증가에 따라 상양은 크게 하락하고 물가는 오히려 폭등하여 10리 10전으로는 그들 한 몸의 음식을 해결하는데 지나지 않아 처자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거의 없음. 잘 고려하시어 답을 주시기 바람”이라고 보고하였다. 일본군조차도 심한 감급으로 인하여 조선인부의 생활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의주병참감부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원래 군량 등의 운반은 조선정부의 책임에 속하므로 평양 감사와 엄담하여 각 병참지에 적어도 인부 2,000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⁷³⁾ 다음 날인 12월 2일 각 병참사령관과 감독부장에게 다음의 「규정」을 통달하였다.

각 병참사령부에서 매일 사용하는 인부 및 짐소, 짐말의 임전은 다음의 각항을 표준으로 하여 사용할 것. 만약 표준 금액에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병참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음.

- 1, ... 판독불가 ...
- 2, 한인부 및 짐말 1일 고용 임전은 1인에 있어 금 50전, 우마 1두에 대해 1인으로 함.
- 3, 인부 20인 이상에 1인의 조장을 두고, 그 임전은 10리 15전, 1일 70전으로 함.
- 4, 임전은 은화로써 지불할 것. 단, 가능한 1인에 대해 한전 30문 이내를 지불하여도 됨.
- 5, 청국에서 사용하는 한인부 및 짐말은 제1항의 임전을 1리 15전으로 함.
- 6, 전 모든 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실시함.⁷⁴⁾

이처럼 조선인부의 임금 감액이 실시되자 숙천 병참사령부는 용역에 응하는 자가 전혀 없어 수송을 할 수 없다고 의주 병참감부에 보고하였다. 그에 대해 의주 병참감부는 “임전을 반액으로 하여도 각지에서 2,000명 이상을 내도록 평양감사가 보증했으므로 다른 부사들과도 엄담하라. 어찌되었든 운반력을 만드는 것은 사령관의 책임이다”라고, 여전히 강한 자세를 취하였다. 용천 병참사령부는 12월 19일이 되어도 응하는 자가 없자 부사와 엄담하여 부사가 직접 각 면을 순회하여 2,000명의 인부를 모집하기에 이르렀다.⁷⁵⁾ 그러나 이에 응하는 조선민중은 없었다. 결국,

대로써 안주에 제3사단의 보병 제19연대 일부가 머물렀다. 선천병참부에는 보병 제7연대 제3대대의 본부와 2중대, 가산과 정주병참부에는 보병 제7연대 제3대대의 1중대, 차배관(車輦館)과 양책관(良策館)병참부에는 보병 제7연대 제3대대의 또 다른 1중대가 파견되었다. 이호포(耳湖浦)와 용천병참부 수비대로써는 보병 제21연대 제1대대 제3중대가 있었고, 의주에는 대소가교종열, 보병 제21연대[1대대 결], 기병 1분대, 포병 제3대대, 공병 제2중대, 야전병원 1개가 주둔하고 있었다(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9』, 460쪽; 『千代田史料 2』, 81쪽, 88쪽; 『千代田史料 9』, 437-438쪽). 11월 21일, 「제1 輜重감시대」에서 안주·숙천·순안·평양에 각 1대대가 병참수비대로서 파견되어 1895년 1월 18일 의주로 복진하였다.(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8』, 17쪽; 『千代田史料 54』, 1894년 1월 18일). 1895년 1월 1일 이후 안주 이남의 병참수비대로서는 후비보병 제6연대가 배치되었고, 1895년 2월 9일 경까지 평양부근의 대동강·대령강에는 후비공병중대가 잔류해 있었다(『千代田史料 54』, 22쪽; 『제1군 병참감부 진중일지』, 186쪽).

7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10-11쪽.

7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34-35쪽.

7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131-132쪽, 341쪽.

다음 날 의주 병참감부는 각 병참사령부와 각 부대에 “...1일에 60전을 최상한으로 하며 각 부대장은 이를 증급할 수 있으며 그 실시 기간은 오는 28년 1월 1일로 한다”⁷⁶⁾는 명령을 내려 각 부대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같은 달 21일 의주 병참감부는 용천부사에게 “...만약 23일 중에 각 병참지에 2,000명 이상의 인부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인부를 각지에 배부하게 되므로 근방의 인민을 물러나게 하여 그 숙사를 준비할 것. 그 취지에 따라 며칠 내로 귀지에 일본인부 수천 명을 송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는 일본인부 수용을 위해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라는 통보로, 즉 용역에 응하던 집집을 비우라는, 조선민중에게 있어 생활과 직결되는 협박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천우, 소찬관, 울산, 이호포, 양책관의 각 병참사령관에게도 통보되었다.⁷⁷⁾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군의 강압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안, 선천 등에서는 29일이 되어도 조선민중들이 이산한 채로 좀처럼 응역하지 않았다.⁷⁸⁾ 이호포의 경우 12월 28일 이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그 수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다수의 병참지도 마찬가지였다.⁷⁹⁾

인부문제가 다소 해결된 시기는 1895년 1월 11일 이후이다. 해빙 계절까지 정미를 평양에 격납해 두고 그 전송을 1895년 1월 11일자로 정지하라는 명령 때문이다.⁸⁰⁾ 이것은 인부의 응역상태가 좋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미 전송이 중지되어 전송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다. 대동강 하구의 결빙은 인천으로부터의 해송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후 1895년 2월 하순까지 인천-의주간은 물품뿐만 아니라 보충 인마 역시 육송에 의지하게 되었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부는 설날(1895년 1월 26일)을 전후해서는 아예 응역하지 않았다.⁸²⁾ 소찬관의 경우 1895년 2월 조선민중이 전혀 응역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의주의 인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의주 또한 3월에는 조선민중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고 도망하는 자가 많았다.⁸³⁾

4. 통화문제

일본군이 조선인부를 사역함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 통화문제이다. 임금을 한전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전을 운반하는 또 다른 인부가 필요하였다. 즉 전술한대로 하루에 조선인부가 받는 임금을 400문으로 가정하면 1일에 500명을 고용할 경우에 한전의 무게는 200관(375Kg)이 되는데 이것을 운반할 인부가 별도로 필요했던 것이다. 조선인부의 하루 부담량은 쌀 2두(1두=약 18Kg) 짜리 한 가마였으므로⁸⁴⁾ 약 20명의 한전 종열부대를 편성해야만 하고 또한 그 인부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했다.

7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1374쪽.

77)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131-132쪽.

7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558-559쪽.

7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1』, 6쪽, 105쪽.

80)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糧餉部 平壤支部』, 34쪽.

8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1』, 273쪽.

82)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糧餉部 平壤支部』, 39쪽.

83) 방위연구소, 『第1軍 兵站監部 陣中日誌』, 54쪽; 방위연구소, 『第1軍 兵站監部 陣中日誌』, 68쪽.

8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543쪽.

따라서 일본군은 8월 7일의 「병참 감독부장 3등감독 甲斐敬直 의견서」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은화 및 지폐는 조선 국내에서 통용되지 않으므로…조선정부를 재촉하여 우리나라 은화 및 지폐를 국내 일반에게 알려 통용되도록 진력하기를 희망”하였으며,⁸⁵⁾ 그 희망은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어 8월 10일경에는 평양분견대를 파견하면서 “급양은 연도 및 임지의 조선관리에게 청구하여 조달할 것. 그를 위하여 그에 관한 조선정부의 공문을 귀관에게 송부함. 그 대가는 전부 본국 통화로써 지불한다는 약속을 동 정부에게 해 두었음. 그를 위하여 조선관리 수명을 귀관에게 동행시킴”이라는 훈령을 내렸다.⁸⁶⁾ 불과 3일도 되지 않아 일본군의 급양을 진군 연도의 조선관리에게 청구하고 그 지불은 휴대하기 편한 일본 통화로써 해결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시기, 부산에서 대구로 진군한 제5사단의 일부는 한전이 없어 인부를 징집할 수 없었고 그로인해 진군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일본 히로시마의 대본영에도 한전 결핍 상황이 보고되어 있어, 노다(野田) 야전감독장관은 후루타(古田) 부산병참감에게 “…하관은 그제 의견을 내어 외무성이 조선정부에 조회하여 동 정부에서 지폐를 발행하던지 혹은 증명서라도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전하였다.⁸⁷⁾ 그는 한편으로는 병참총감에게 전술한 바와 같이 한전의 불편성을 들어 일본정부가 조선정부에 은화 만 엔을 빌려주고 조선정부로 하여금 증권을 발행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9월 15일 병참감독부가 노다 야전감독장관에게 상신한 보고에 따르면, 일본군은 “한전 대용증권 발행의 건에 대하여…, 실제 통용에 대해서는 종래의 습관으로써 조선정부의 신용이 조금도 없어 인민은 결코 신용하지 않을 것임. …이 건은 단연히 그만두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⁸⁸⁾

따라서 그들은 일본은화 통용에 박차를 가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조선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제7조」에 따라 일본은화를 조선화폐와 마찬가지로 통용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일본군의 의도대로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운용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10월 6일 평양감사를 평양 병참사령부에 불러 은화유통에 관해 엄담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날, 고무라 외무서기관 역시 평양감사에게 “…은화의 통용을 엄달하고, 또한 오도리 공사에게 전보하여 인부의 모집에 응한 자의 조세를 면하고, 은화통용을 거부하거나 인부의 임금을 사복하는 자의 처형을 군 사령관의 명으로써 조선정부에 엄담하기로 하였다”고 전달하였다.⁸⁹⁾

사흘 후인 10월 9일, 조선정부로부터 은화 유통에 관한 수십 장의 영장(領狀)이 평양감사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곧바로 일본군에게 전달되었다.⁹⁰⁾ 일본군은 그 영장을 이용하여 각 병참소재지의 지방관리들에게 일본은화를 유통시킬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특히 의주에서는 10월 23일 조세를 일본은화로 납부할 경우에도 조선은화와 같이 통용되도록 조선민중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평양감사가 의주부에 전

8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5』, 51-52쪽.

86) 방위연구소, 山村健, 123쪽.

87) 방위연구소, 『第5師團 兵站監督部 陣中日誌』, 25쪽.

8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633쪽.

89)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71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 197쪽.

90)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127쪽.

하였는데, 의주병참부는 처음부터 일본은화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발권”을 실시한다는 강한 뜻을 보였고 10월말 경에는 의주병참부가 만족할만한 상태가 되었다.⁹¹⁾ 한편 원산에서는 8월 24일경에 이미 조선민중이 일본은화 1엔을 원하였다는 기술도 있다. 이는 원산에 당시 제1·18 국립은행이 설립되어 있어 환전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⁹²⁾

일본군은 일본은화의 유통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내의 일본지폐 통용을 목표로 일을 확대시켜 갔다. 12월 2일, 평양 병참감지부는 순안, 숙천, 안주, 가산, 정주 등 각 병참사령관에게 징발인부 임금의 반을 지폐로 지불할 것을 「통첩」하였고, 1895년 2월 18일 이후 일본군은 더욱 지폐유통에 진력하였는데 그 목적은 일본은화 유통방지에 있었다.⁹³⁾

일본군은 이와 더불어 일찍부터 한전 흡수에도 진력하였다. 예를 들면 일본상인을 조선국내 각지에서 행상하게 하여 한전을 흡수하게 하였는데, 9월 3일 서울의 쓰기무라(杉村) 공사관서기의 서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증권이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곧바로 일본 외무성과 군대 그리고 상인대표가 모여 협의하여 공용상인을 통한 한전흡수방법을 계획하였는데 일본군은 공용상인들에게 무임승선 등의 최대한의 협력을 하게 되었다.⁹⁴⁾ 이 일은 착착 진행되어 11월 11일 대본영의 다이세(大生) 부관은 의주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부대와 각 병참지에 「별지 갑·을」과 「명령서」를 통달하였다.

「별지 갑·을」은 당시의 육군 참모총장과 육군대신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다. 즉, “조선민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은 일본의 국가경제 뿐 아니라 군대에게 한전의 불편함을 덜게 하는 이익이 있고, 일본 공용상인을 자주 조선에 행상하게 하여 일본화폐를 조선에 통용케 하는 길을 열면 조선민중들도 자연스럽게 일본화폐를 신용하게 되는 이득이 있으므로 공용상인의 길을 열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 그들을 보호하라”라는 참모총장의 의견에 대해 육군대신이 “숙의하여 상인을 선발하여 행상케 하겠으며, …군사 수송에 방해가 안 되는 한 공용상인을 관용선으로 수송하겠다”는 뜻을 전한 내용이다. 「명령서」는 육군대신 대리의 육군차관이 이상의 내용을 조항으로 정리하여 각 부대 등에 전한 것이다.⁹⁵⁾ 제1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육군성은 군사상 한전이 필요하므로 일한무역상사로 하여금 화물을 조선국에서 판매케 하여, 상사가 그에 따라 얻은 한전을 육군성에 공급하도록 할 것. 고로 명령에 따라 송부하는 화물은 모두 군용품으로 삼아 수송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관용선으로 조선국에 수송할 것.⁹⁶⁾

육군성은 일본 행상인을 조선에 파견하기 위하여 일한무역상사를 설립하였는데

9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48』, 1254-1255쪽;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503-507쪽.

92) 방위연구소, 『제5사단 병참감독부』, 56쪽.

9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8』, 503-507쪽.

9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6』, 39쪽.

95)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300-304쪽.

9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302쪽.

일한무역상사의 물품은 관용선이 무료로 조선까지 수송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11월 22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이하 이노우에) 재한공사⁹⁷⁾가 부산과 원산의 일본영사에게 발송한 전보에 의하면 히로시마 운수통신본부는 한전 수집을 목적으로 3, 4명의 상인에게 옥양목 이외의 상품을 관용선에 싣고 조선의 3항(부산, 인천, 원산)에 보내는 특허를 부여하였다.⁹⁸⁾

5. 기타 조선민중의 갈등

1894년 10월 14일 이후 일본군의 재북진과 더불어 나타난 또 다른 갈등은 군수품 및 한전 등의 도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10월 28일 저녁, 평양에서 안주와 숙천에 송부한 한전 50관이 들어 있는 짐 두개가 말과 함께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군은 곧바로 헌병대장에게 통지하여 수색을 의뢰하였다.⁹⁹⁾ 그리고 11월 18일에 정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사단 제1치중감시대장이 평양과 숙천 간의 화폐분실 건에 관한 시말서를 회송된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난사건은 발생하였던 것 같다.¹⁰⁰⁾ 12월 중순경에는 가산에서 은화 분실 사건이 발생하여,¹⁰¹⁾ 같은 달 21일에 오가와(小川) 참모장은 제1군병참감에게 “각 병참부원들이 인부들을 엄중하게 조사하는 법을 설치하여 물품수수에 한층 주의하라”는 「별지」를 전달했으며, 같은 날 제1군병참감은 사카다(坂田) 병참감독부장에게 같은 내용의 「물품 수수 주의」를 명령하였다.¹⁰²⁾ 31일에는 의주병참감부로부터 각 병참사령관 앞으로 범인을 찾아내라는 전보가 발송되었고, 동시에 “만약에 전쟁의 작전이 연기된다면 그것은 병참부 책임이다”는 강력한 내용의 훈령도 발송되었다.¹⁰³⁾

이상에서는 그 범인이 일본인부인지 조선인부인지 알 수가 없다. 1895년 1월 1일의 의주병참감부 진중일지를 보면, 정미와 된장을 훔친 것은 조선민중이라는 기록이 나온다.¹⁰⁴⁾ 같은 달 3일 의주병참감독부가 평양병참감독지부에 화폐분실 건에 대하여 “책임자로 하여금 충분히 수색하게 하고 또한 평양감사 뿐만 아니라 인부 조장에게도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라”는 전보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조선인부의 행위임을 알 수 있다.¹⁰⁵⁾ 한편, 같은 날 가산병참사령부의 전보에 의하면 의주 병참부 소속의 일본인부 오카다(岡田半吉)란 자가 도망과 절도 사건으로 의주헌병부에 호송되어 가던 도중에 가산에서 도주하였다. 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일본인부에 의한 절도사건이다.¹⁰⁶⁾

1894년 10월부터 1895년 1월 7일까지 7건의 금전 분실 건이 발생하였다. 각 일본

97) 1894년 10월 중순 오도리공사는 귀국하고 이노우에가 재한일본공사로 파견되었다.

98)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1988, 380-381쪽.

99)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督部』, 156쪽.

100)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9』, 341-342쪽.

101)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385쪽.

102)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督部』, 335-336쪽.

103)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0』, 592-593쪽.

104)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1』, 8쪽.

105)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督部』, 101쪽.

106)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1』, 67쪽.

군 부대에 “각 병참사령부를 통행하는 일본인부와 조선인부를 주의할 것과 신분에 맞지 않는 금액을 지니고 있는 자는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1월 13일에는 평양 병참사령관이 의주병참감에게 “당지에서 군수품을 훔친 한인 3명과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자 2명을 포박하여, 그 중 죄가 무거운 자 2명은 사형에 처할 예정임. 지급으로 그 지도를 요함”이라는 전보를 보냈는데, 의주병참감은 즉시 “절도에 관한 처분 방법은 귀관에게 맡긴다”는 답을 보냈다.¹⁰⁷⁾ 15일에는 평양에서 조선민중의 집을 수색하여 2명을 포박하였다. 1월 20에는 숙천에서도 조선민중 절도자 1명을 포박하여 부사에게 인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¹⁰⁸⁾

1월 19일부터는 대대적으로 정주에서 선천에 이르는 연도 주변의 민가를 수색하였고, 그 결과 27명을 포박하여 일부는 중형에 처했으며, 도주 중인 김왕금에게는 사형을 결정하였다. 1월 9일부터 1월 29일 사이에도 3건의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⁹⁾ 일본군이 대본영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월 초순부터 2월 14일까지 사로잡은 조선민중 절도범은 69명에 달하였다. 같은 달 18일에 일본군은 안주에서 선유사 권영진에게 군수품 절도 조선민중을 엄형에 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¹¹⁰⁾ 일본군은 군수품 도난으로 인해 발생할 청일전쟁의 작전 지연을 염려하여, 조선민중 군수품 절도자에 대해서는 극형인 ‘엄형’ 혹은 ‘사형’으로 처리하였다.

조선민중에 의한 일본군수품 및 금전 절도, 도난 행위는 단순한 절도나 도난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군의 재북진 이후 계속된 조선인부 임금 감액과 더불어 심해진 것으로 보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일본군이 이에 대해 매우 엄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군수품과 금전이 청일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맺는 글

청일전쟁기 황해·평안도 지역은 일본군에게 있어 군수물품 수송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4년 9월 14일을 전후한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직후 일본군의 군수품 등은 곧바로 황해도 대동강 입구로 운송되어 육로를 통하여 의주가도를 타고 중국으로 운반되었다. 청일전쟁이 점차 중국본토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일본군 제2군은 직접 중국으로 파견되었으나 전쟁터와 가까운 황해·평안도는 병참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군 병참부와 조선민중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 황해·평안도 지역이다.

일본군은 조선병참화는 비합법적으로 시작되어 결국 그들의 강요에 못이겨 일본군이 의도하는대로 조선정부는 움직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병참부의 조선인부 징집 등과 관련한 조선정부의 관문 하달이 제1차로 그에 해당된다. 즉 조선정부의 관문 하달은 일본군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바로 다음 날인 1894년 7월 24

107)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1』, 119-120쪽, 234-235쪽.

108) 방위연구소, 『千代田史料 12』, 316-320쪽, 377쪽, 398쪽.

109)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監督部』, 171쪽; 방위연구소, 『陣中日誌 第1軍 兵站糧餉部』, 41쪽; 방위연구소, 『第1軍 兵站監部 陣中日誌』, 5쪽.

110) 방위연구소, 『第1軍 兵站監部 陣中日誌』, 183쪽, 246쪽, 340쪽.

일 인천 병참사령관 다케노우치 세사크(竹内正策)가 직접 조선정부의 김가진과 안경수를 만나, 일본군이 조선 각지에서 인마 등을 징집하는데 협조하고 조선관리를 일본군 병참부에 파견하여 징집을 돕게 하라고 강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8월 26일 조일공수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일본 측이 청일전쟁에 조선을 포함시킨 것을 확인 하였는데, 이것은 즉 일본군에 의한 인마징집 및 농민군 진압 등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 별도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청일전쟁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조청일전쟁이었음을 의미한다. 즉 제2차 동학농민전쟁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 조선민중과 일본군과의 관계가 아니라 청일전쟁 즉, '조·청·일전쟁'이라는 이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본군의 강요로 이루어진 관문통달 및 조일공수동맹을 근거로 일본군의 인마징집 등은 제도적으로 성립되어 일본군에게 합법적으로 이롭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징집대상인 조선민중은 간단히 응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농사일은 모두 마무리되어 할 일이 없던 조선민중에게 있어 일본병참부의 인부모집 등은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다소의 경제적 여유를 지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고 숙박을 요하는 먼 거리나 설날과 같은 전통 축제일을 전후하여서는 응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마징집은 자연스레 임금문제, 한전·일본은화 등 통화문제를 발생시켰고 결국은 일본 상인 문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통화 및 일본 상인 문제 등은 이후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의 기초가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임금 감액은 일본군의 군수품 및 금전 도난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일본군이 군수품 및 금전 도난과 절도에 대해 '엄형', '사형'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군수품과 금전 도난이 청일전쟁에 미친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던 것 같다. 도난, 절도 문제가 증가하는 같은 시기에 황해·평안도 지역 농민군의 대일본군 투쟁은 적극적, 조직적으로 발전하여 갔고 이에 대한 일본군의 진압 역시 점차 강화되어 갔다.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의 정보수집활동

박 맹 수(원광대)

1. 머리말
2. 주한일본공사관의 정보수집 활동
3. 일본군 참모본부의 정보수집활동
4. 자유당의 정보수집활동
5. 대륙낭인들의 정보수집활동
6. 신문사 특파원들의 정보수집활동
7.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봄부터 이듬 해 봄까지 전개된 동학농민전쟁의 실패 요인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실패 요인 가운데서도 근대식 무기와 전술을 앞세운 일본군의 개입, 그리고 개입한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 진압이 그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의 실상은 오랜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한일(韓日) 양국 연구자에 의해 그 실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강효숙, 조정달, 나카츠카 아키라, 이노우에 카츠오 등의 연구)

그런데,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과정을 살펴보면, 다수의 농민군 측 사상자 수에 비해 일본군 측 사상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농민군과 일본군 양자의 무기와 전술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무기와 전술의 차이 외에 농민군이 일방적으로 패배와 진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요인의 하나가 바로 농민군에 대한 일본군 측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 일본군은 농민군 진압 당시 군용(軍用) 전신선을 포함한 근대적 통신수단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농민군 진압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의 결정적 실패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수많은 농민군이 희생당한 요인의 하나인 일본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작전 수립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했던 주한일본공사관(駐韓日本公使館, 이하 공사관) 측의 정보수집 활동을 분석한다. 공사관은 경성, 인천, 부산 소재 영사관(領事館)을 중심으로 영사관소속 경찰, 일본 상인 및 유학생 등 다양한 채널을 구사하여 정보 수집에 나선 바 있다. 둘째 일본군 자체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개관한다. 일본군은 공사관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외교라인과는 별개로 참모본부(대본영) 중심으로 독자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 소속 주재무관(駐在武官)을 통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했으며, 필요에 따라서 해군 군령부 소속 군함(軍艦)을 파견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셋째 자유당(自由黨)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정당(政黨) 및 정파(政派)들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학농민전쟁기에 일본 내에서 가장 유력한 야당이었던 일본 자유당의 경우 당수가 직접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는 한

편, 특파원까지 파견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넷째 대륙낭인(大陸浪人) 그룹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분석한다. 대륙낭인을 대표하는 그룹인 천우협(天佑俠)은 일본군 참모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선 각지를 여행하면서 조직적으로 농민군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으며, 그 외 개별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선 대륙낭인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신문사 특파원들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동학농민전쟁기 조선에 파견된 특파원 수는 무려 1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외무성이나 참모본부, 각 정당 및 정파 소속의 특파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선 각지에 흩어져 견문한 정보를 외무성을 비롯하여 일본군 참모본부, 또는 각 정당 및 정파에 제공한 바 있다.

2. 주한일본공사관의 정보수집 활동

1)

농민군에 대한 주한일본공사관 측의 정보수집 활동은 시기적으로는 이미 1893년 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즉, 1892년 음력 10월 공주집회(公州集會)로부터 시작된 동학(東學) 교단의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이 내걸었던 기치(旗幟)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척왜양(斥倭洋)’이었기 때문이다. 도쿄에 있는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에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일건』(이하, 『보고일건』)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소장되어 있는데, 바로 그 파일 속에 1893년에 일어난 ‘척왜양’ 운동에 관해 수집한 다양한 정보 보고서가 1차 사료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보고일건』을 보면, 1893년 음력 1월 24일자(양력 3월 12일자)로 「재경성 제국공사 통상보고 제 9호: 동학과 포획되다-일종의 혁명당이라고도 한다-」라는 제목으로 ‘척왜양’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동학당(東學黨)’의 동향을 외무성에 보고하고 있고, 외무성은 이 보고를 양력 3월 29일에 접수하고 있다. 오이시 마사미(大石正巳) ‘조선국주차 변리공사’(朝鮮國駐劄辨理公使)의 이 보고가 바로 1893년 동학교도와 조선민중의 ‘척왜양’ 운동에 관한 최초의 공사관 정보 보고서이다. 공사관 보고는 일반적으로 ‘통상보고(通常報告)’ 형태로 외무성에 보고 되었으나, 중요사항의 경우에는 ‘기밀’(機密)로 보고 되었으며 (『일본외교문서』 제 26권, 414-420쪽 참조), 발신자가 공사(公使)일 경우에는 외무대신 앞으로, 발신자가 영사(領事)일 경우에는 외무차관 앞으로 보내졌다.

1893년 음력 1월부터 시작된 주한일본공사관 측의 ‘동학당’ 관련 정보수집 활동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기 내내 계속되었으며,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현재 방대한 양의 파일로 외교사료관에 남아 있다. 그 중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에 관한 정보를 가장 방대하게 담고 있는 문서 파일이 바로 한국 연구자에게도 잘 알려진 『한국 동학당 봉기 일건』이다.

그런데 위의 『보고일건』을 비롯하여 그 외 동학농민전쟁 관계 파일을 확인해 보면, 주한일본공사관은 공사관 자체로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산하에 있던 경성(京城) 영사관, 인천(仁川)영사관, 부산(釜山)영사관에서도 다투어 정보수집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일본공사관 및 각 영사관의 정보수집 활동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여유가 없다. 다만, 1893년 교조신원운동 당시 경성 영사관 영사(領事) 스기무라 후카시(杉村 濬, 1848-1906, 제 1차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임시대

리공사, 그 후임은 1895년 1월부터 4월까지 전봉준에 대한 심문을 담당했던 內田定槌(1865-1942)이다, 인천영사관 영사 노세 타츠고로(能勢辰五郎, 1857-1911), 부산영사관 무로다 요시후미(室田義文, 1847-1938) 등에 의해 수집된 정보 가운데 아직까지 한국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정보 보고서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주한일본공사관의 1893년 교조신원운동 관련 정보보고서 목록>

1. 제경성제국공사관통상보고 제 9호: 동학파 포획되다(명치 26년 3월 12일 보고)
2. 동 통상보고 제 11호: 동학당 건백서를 봉정하다(명치 26년 4월 1일 보고)
3. 동 통상보고 제 13호: 동학당에 관한 上諭(명치 26년 4월 20일 보고)
4. 동 통상보고 제 14호: 동학당의 건(명치 26년 5월 6일 보고)
5. 동 통상보고 제 15호: 동학도의 일(명치 26년 5월 18일 보고)
6. 동 통상보고 제 16호: 도어사 동학당에 설유를 가하다
동학당 해산 전보(명치 26년 5월 21일 보고)

<경성 영사관의 정보보고서 목록>

1. 공신(公信) 제 58호: 동학당 동요의 요지에 대해(명치 26년 4월 12일 보고)
2. 동 제 61호: 동학당의 건에 대해 탐정을 위해 순사 및 인민 파견의 요지 제출
(명치 26년 4월 20일 보고)
3. 동 제 63호: 동학당 관계 사건회보(명치 26년 4월 20일 보고)
갑호 거류인민에 대한 내유(명치 26년 4월 13일)
을호 동학당 동정 관련보고 얻기 위해 한성판윤에 서한(4월 14일)
병호 복명서(4월 16일)
정호 복명서(4월 17일)
무호 일본국 상려관 전건(계사 3월 2일; 음력-필자 주)
기호 동학당과 동요 탐정보고(4월 18일)
경호 복명서(4월 19일)
신호 공주지방 동학당 동정보고(4월 20일)
4. 동 제 64호: 동학당 동정 후보(後報)(명치 26년 4월 22일 보고)
5. 동 제 65호: 동학당 동정 실정 보고를 얻기 위한 한성부판윤과 왕복의 건
(명치 26년 4월 24일 보고)
6. 동 제 66호: 동학당 동정에 대해 충청도 공주 등지 지방 탐정서
(명치 26년 5월 5일 보고)
7. 동 제 74호: 동학당의 재연(명치 26년 5월 18일 보고)
8. 동 제 76호: 동학당 비등(沸騰)에 대해 진무 유시의 건(명치 26년 5월 18일 보고)

<부산영사관의 정보보고서 목록>

1. 공 제 72호: 부산성문에 동학당 통고문 첩부(貼付)에 대한 보고의 건
갑호: 통고문
을호: 부산진으로부터 각 마을 전령 초
(명치 26년 4월 27일 보고)
2. 공 제 100호: 동학당 동정에 대해 프랑스선교사로부터 전문(傳聞)의 건

(명치 26년 5월 26일 보고)

<인천영사관의 정보보고서 목록>

1. 문서번호 209: 동학당에 관해 인천의 실상 보고의 건, 부속서
(『일본외교문서』 제 26권, 425-429쪽)
2. 문서번호 210: 동학당에 관해 인천의 실상 보고의 건, 부속서
(『일본외교문서』 제 26권, 429-430쪽)

2)

위의 스기무라, 노세, 무로다 등 일본 영사관 영사들의 정보수집 활동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영사관 소속 경찰을 통한 정보수집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하 영사관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경성영사관의 정보보고서 「공신(公信) 제 61호」(명치 26년 4월 20일자 보고서)를 보면, 주한일본공사관이 1893년 ‘척왜양’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부터 이미 영사관소속 경찰을 동원하여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사관 경찰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은 이듬해 1894년에도 내내 계속되는데,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894년 양력 6월 8일자 3면의 「경부 순사(警部 巡査)의 파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일본) 경시청은 다음과 같이 경관 21명을 선발하여 오토리 공사 일행과 함께 조선에 파견하였다”라고 하면서 경부 다카사키 켄지(高崎堅治) 외 20명의 순사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 영사관 소속 경찰 21명은 오토리 공사가 대동한 육전대(陸戰隊) 488명과 함께 양력 6월 8일 인천(仁川)에 입항한 뒤 6월 10일에 입경(入京; 서울에 들어감)하여 곧바로 정보수집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영사관 경찰은 수시로 임무 교대 또는 추가 파견 형태로 조선에 파견되어 각지의 영사관에 소속되어 정보수집 활동에 임하고 있다.

영사관 소속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893년 음력 2월 광화문 복합상소를 전후하여 고조된 ‘척왜양’ 운동 때부터였다. 전술(前述)한 『보고일건』에 의하면, 경성 영사 스기무라 후카시는 1893년 양력 4월 20일에 「공신 제 61호: 동학당의 건에 대해 탐정을 위해 순사 및 인민 파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영사관 경찰과 경성 거주 일본인을 충청도 공주 지방에 파견하여 정보수집 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동일자 「공신 제 63호: 동학당 관계사건 휘보」 부속문서를 보면, 양력 4월 15일에 과천(果川) 일대에서 정보수집에 임했던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郎) 순사 및 나리스케 노부시로(成相喜四郎) 순사의 복명서(復命書, 4월 16일자), 4월 17일에 서울 한강 일대의 정황을 조사한 동 와타나베 순사 및 미야하라 이치로(宮原一郎) 순사의 복명서(4월 17일자), 역시 4월 18일에 과천을 거쳐 수원 일대의 정황을 조사한 동 와타나베 순사 및 가와바타 나오키(川幡直介) 순사의 복명서(4월 19일자) 등이 실려 있다.

한편, 동학농민전쟁기에 영사관 소속 경찰로서 농민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긴 대표적인 인물로는 경성 영사관 소속 경부(警部) 오기와라 히데지로(荻原秀次郎), 인천 영사관 소속 순사(巡査) 나리스케 노부시로(成相喜四郎), 경성 영사관 소속 순사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郎) 등이 있다. 오기와라가 수집한 정보 보고서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한글본, 110-114쪽)에 「남부민란지방시찰복명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

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 도쿄에서 간행되고 있던 『미야코신문』(都新聞) 1894년 양력 8월 2일자 1면과 동년 양력 9월 25일에 발행된 『풍속화보』(風俗畫譜) 제 78호 등에도 소개되어 일본 내에서 널리 알려졌다.

또한, 인천 영사관 소속 순사 나리스케는 전술했듯이 1893년 ‘척왜양’ 운동 때부터 정보 수집에 임하고 있었으며, 1894년에는 양력 6월 3일 경성을 출발하여 6월 6일부터 13일 까지 공주(公州), 6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전주(全州), 다시 6월 25일부터 26일은 공주 등에서 정보 수집을 한 후 6월 28일 경성에 도착하기까지 본인이 경유한 지방의 농민군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한 보고서를 남기고 있다. 그의 보고서는 「나리스케 순사 복명필기」라는 제목으로 외무성에 보고되어 전기(前記)의 『보고일건』이라는 파일 문서 속에 남아 있으며, 『미야코신문』 1894년 양력 7월 14일자 1면을 통해서 일반에게도 널리 소개되고 있다.

경성 영사관 소속 와타나베의 경우 역시 1893년 ‘척왜양’ 운동 때부터 정보 수집에 임하고 있었다. 동학농민전쟁기에는 주로 대원군(大院君)의 동정을 탐문하고 있는데, 그가 탐문한 대원군의 동정은 「와타나베 타카지로 구두복명 필기」라는 제목으로 일본 방위성 산하인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사편찬준비서류 (58) 동학당 상황』 속에 들어 있고, 외교 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동학당 봉기일건』 속에도 들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성 영사관 소속 순사 와타나베가 탐문한 정보가 외무성뿐만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 즉大本營(大本營)에 그대로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의 외무성-참모본부(大本營)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학농민전쟁 진압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할 것이다.

이상 3인의 영사관 경찰 외에도 다수의 영사관 소속 경찰들이 동학농민전쟁기 내내 조선 전역에서 농민군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외무성 및 일본군 참모본부(大本營)에 보고하고 있다. (향후 상세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3)

다음으로 주한일본공사관은 재조(在朝) 일본인 가운데 조선어(朝鮮語)에 능통한 일본인 또는 유학생(留學生) 등을 고용하여 정보 수집 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1893년에 ‘척왜양’운동이 한창일 때 경성 영사관 스기무라 후카시가 고용한 마츠나가 한지로(松永半次郎)와 사카이 헤이조(堺平造)라는 2명의 일본인이 벌인 정보수집 활동이다. 그들의 정보 수집 활동 내역은 전기(前記)의 『보고일건』 속에 「공신 제 66호 동학당 사건에 대해 충청도 공주 등 지방 탐정서」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탐정서에 의하면, 마츠나가와 사카이 두 사람은 1893년 양력 4월 15일 경성을 출발하여 16일 수원을 경유, 19일에 공주에 도착하여 21일까지 정탐활동을 벌인 후, 다시 22일 공주를 출발하여 24일에 경성에 도착하고 있다. 그들의 정탐 활동에 의하여 공주 일대 ‘동학당’의 동향이 속속들이 경성영사관을 거쳐 일본 외무성으로 보고 되었음은 위 『보고일건』이 증명하는 바다.

이처럼, 주한일본 공사관은 필요에 따라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나 유학생 등을 고용하여 정탐 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조선 각지를 다니며 행상을 하던 내지행상(內地行商)의 일본인, 또는 조선 각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로부터도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한글본, 53-59쪽)에 실려 있는 파계생(巴溪生)이라는 일본인이 정탐 보고한 「전라고부민요일기」(全羅古

阜民擾日記)이다. 파계생은 1894년 당시 전라도 고부군 줄포(茁浦)에 거주하면서 음력 1월의 고부농민봉기부터 음력 4월 11일까지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 동향을 매우 정확하고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파계생 외에 조선 각지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의 수는 1894년 말 기준으로 8,980명에 달하고 있었는데(다카사카 소지, 재조일본인과 청일전쟁, 『근대일본과 식민지』 5, 11쪽), 그들을 거주지별로 보면 경성 848명, 인천 3,201명, 부산 4,028명, 원산 903명 등이었다.(위의 논문, 11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보면, 이들 조선거주 일본인들이 농민군의 동정을 정탐한 내용들이 다수 실려 있다.

3. 일본군 참모본부의 정보수집활동

이 장에서는 참모본부를 비롯한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벌인 정보수집 활동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도쿄아사히신문』 1893년 양력 4월 22일자 1면, 4월 26일자 1면, 4월 28일자 1면, 5월 3일자 1면, 5월 14일자 1면, 5월 17일자 2면, 6월 4일자 1면, 6월 7일자 1면, 6월 16일자 2면, 6월 29일자 2면, 7월 4일자 1면, 7월 8일자 1면 등을 찾아보면, 1893년 조선에서 ‘척왜양’ 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군 최고지도부의 동향에 관한 중요한 기사들이 눈에 들어온다. 당시 일본군 참모본부의 참모차장인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8)가 동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선(朝鮮)과 청국(淸國)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기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총 12회 기사 중에 3편을 제외하고 모두 1면에 실릴 정도로 중요 기사로 취급된 카와카미 소로쿠의 조선, 청국 방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조야신문』(朝野新聞) 1894년 양력 4월 26일자 2면 기사를 인용한다.

카와카미 참모본부 차장

카와카미 중장이 조선(朝鮮)으로 향했다는 풍설이 있는 가운데 나가사키신보(長崎新報)는 한 가지 괴보(怪報)를 전했다. 그 괴보에 이르기를, 지난 16일 사츠마마루(薩摩丸)에 4명의 상인(商人)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모두 상등 선객으로 포람사덕(浦藍斯德; 블라디보스톡-인용자 주)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승선하고 있지만, 그 용모와 위풍이 심상한 일개 상인들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 변명(變名)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탐문을 했더니, 참모본부 차장 카와카미 소로쿠, 제 1국 국원 보병소좌 타무라 이요조(田村怡与造), 포병대위 오하라 텐(小原伝), 육군대학교 교원 모 등 4명이었다. 이것을 보면 동 중장 등이 조선으로 미행(微行; 몰래 감)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행(微行)’ 즉 비밀리에 조선으로 건너간 카와카미 참모본부 차장 일행의 목적은 한 마디로 일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는 청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전략적 시찰이 그 주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조선정부 지도자 및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청국 고위 관리들 만나 조선을 둘러싼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강화도와 인천에서 시작하여 서울에 이르는 한강유역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시찰하고,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군함 야에야

마함(八重山艦)을 비롯하여 주한 일본 공사관 및 각 영사관 관리들을 만나 정보 수집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카와카미의 조선 시찰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도교아사히신문』 1894년 양력 5월 14일자 1면 기사를 인용한다.

카와카미 육군중장 일행

카와카미 중장 등이 미행(微行)으로 조선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한 그대로이며, 동 중장 및 공병소좌 타무라 요시이치(田村義一), 보병소좌 이지치 코스케(伊地知幸助), 포병대위 시바 고로(柴五郎), 회계감독 사카다 이와조(坂田巖三) 4인은 지난 (4월) 26일 인천에 도착, 그 다음 다음 날인 28일에 육로로 경성으로 향하여 진고개(泥峴)의 영희정(永喜亭)에 투숙하였으며, 30일은 지나공사관(支那公使館; 청국공사관- 인용자 주)의 원유회(園遊會)에 초대를 받았다. 5월 1일 대원군을 운현궁에서 면담(面謁)하고, 5일 입궐하여 국왕 전하를 배알하였으며, 6일 용산진(龍山津)에서 강화협(江華峽)의 정족산성(鼎足山城) 기타 한강 연안의 고전장(古戰場) 순시 도중에 있었으며, 그 사이 원세개 씨를 비롯하여 조선 관민의 방문이 끊임이 없었다. 일행은 지난 9일 인천에서 켄카이마루(玄海丸)를 타고 천진(天津)으로 향했을 터이다.

여기서 카와카미의 조선 방문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기사를 도교아사히신문 1894년 양력 5월 17일자 2면 기사를 다시 인용한다.

카와카미 참모본부 차장 일행

(전략) 그간 인천 경성 간 체제 중에는 근방 각지 병요상(兵要上)의 형세를 정밀(精密)하게 답사를 했는데, 차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답사는 책상 위에서 하는 조사와는 달리 군사상(軍事上) 크게 발명(發明)한 바가 있었다고 한다.

‘병요상의 형세를 정밀하게 답사’함으로써 책상 위에서 하는 조사와는 달리 ‘군사상 크게 발명한 바’를 얻기 위한 것이 바로 카와카미의 조선 방문의 주목적이자, 카와카미 자신이 몸소 조선을 직접 답사, 즉 직접 조선 현지에서 정보 수집을 한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카와카미가 조선 방문 이듬해인 1894년에 히로시마에 설치된 대본영에서 동학농민군 전원 살육 작전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이노우에 카츠오(井上勝生) 교수의 연구에 의해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그의 농민군 전원 살육 작전의 배경에는 1893년 조선을 방문하여 사전에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893년 4월 카와카미의 조선 방문을 수행한 참모본부 요원들은 역시 이듬해에 벌어지는 동학농민군 전원 살육 작전 수행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 카와카미를 비롯하여 그를 수행한 참모본부 요원의 정확한 인적사항은 『구한국의교문서』 제 2권 일안(日案) 2의 388쪽에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음을 밝힌다.

인원 명단

참모차장	육군중장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참모본부 제 1국 국원	육군소좌	타무라	이요조(田村怡与造)
참모본부 제 2국 국원	육군포병소좌	이지치	코스케(伊地知幸助)
육군경리학교 교관	육군삼등감독	사카다	이와조(坂田巖三)
참모본부 제 2국 국원	육군포병대위	시바	고로(柴五郎)

2)

일본군 최고지도부 즉 참모본부 외에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것은 해군 측의 상비함대(常備艦隊)였다. 일본 해군은 이미 1876년 개항 이전부터 조선 해안 일대를 순항하며 해안선 측량(測量)을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75년 운양함(雲揚艦)에 의한 강화도 연안의 영해 침범 및 ‘운양호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주지(周知)하는 바이다. 1875년 운양함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 보고 및 ‘운양호사건’ 관련 보고서는 최근 일본 나라여자대학(奈良女子大學)의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명예교수에 의해 그 전모가 소개된 바 있다. (‘운양호사건’ 당시 운양함장 이노우에가 쓴 최초의 보고서 원본은 현재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1876년 개항 이전부터 일본 해군의 상비함대에 의해 시작된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은 1893년의 ‘척왜양’ 운동을 계기로 더욱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하 상비함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의 내용을 개관한다. 일본 해군 상비함대에 의한 정보수집 활동은 일본 측 『관보』(官報)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893년 일본 해군 상비함대의 정보수집활동 추이>

1월 3일	사세보진수부경비함	초카이(鳥海)	인천 출항, 전라 거쳐 부산으로
1월 20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1월 25일	상동	상동	부산에서 다케시키(竹敷)항 귀항
2월 2일	상동	상동	다케시키항 출항, 경상도와 부산으로
2월 8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3월 1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전라를 거쳐 인천으로
3월 9일	상동	상동	인천 기항
5월 30일	상동	상동	인천부에서 사격연습
7월 20일	상동	상동	인천 출항, 부산으로
7월 23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7월 24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사세보(佐世保) 항으로
4월 30일	요코스카진수부경비함	아타고(愛宕)	모지(門司) 출항, 원산진으로
5월 1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5월 6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원산진으로
5월 8일	상동	상동	원산 기항
6월 5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6월 8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인천으로
6월 10일	상동	상동	인천 기항
7월 5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인천으로
7월 14일	상동	상동	인천 기항
6월 24일	상비함대군함	다카오(高雄)	부산 기항
6월 26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거문도, 제주로
7월 10일	상동	상동	부산 기항

7월 11일 상동	상동	부산 출항, 나가사키(長崎)로
7월 12일 상동	상동	나가사키 귀항

이상과 같이, 일본 해군은 초카이(鳥海), 아타고(愛宕), 다카오(高雄)함 등 상비함대에 의한 정기적인 정보수집 활동 외에도 특별한 사안(事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함을 증파하여 정보수집 활동 외에 무력시위(武力示威) 까지 벌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1893년 ‘척왜양’ 운동기에 특별 파견된 야에야마함(八重山艦)의 활동이다. 야에야마함의 증파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현금 경성 채류 일본인은 거의 7백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혹시 참화(慘禍)를 당할 수도 있는데 인천에 정박 중인 경비함은 1척(초카이함; 인용자 주)뿐으로 이 군함은 소형(小型)이며 그 승조 인원도 적어서 유사(有事)의 날에는 충분히 보호를 제공할 수 없어 자못 어려운 일이 될 것이므로, 이번 기회(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 당시 격렬하게 전개된 ‘척왜양’ 격문게시 운동을 말함; 인용자 주)에 1척의 군함의 증파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므로 지급(至急) 파견해 주실 것을 희망함

1893년 양력 4월 10일 재경성 변리공사 오이시 마사미
(『일본외교문서』 제 26권, 416쪽)

이와 같은 사유로 주한일본공사 오이시로부터 증파 요청이 있자, 일본 해군은 즉각 야에야마함(八重山艦)을 증파하여, 동학교도들의 ‘척왜양운동’에 대비하는 동시에, 상비함대와 더불어 다각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게 된다. 『관보』에 나타난 야에야마함의 동정은 아래와 같다.

<야에야마함의 동정>

4월 13일	요코수카진수부경비함	야에야마(八重山)	요코스카(橫須賀) 출항
4월 17일	상동	상동	인천 기항
5월 23일	상동	상동	인천 출항, 나가사키로
5월 25일	상동	상동	나가사키 기항
5월 29일	상동	상동	나가사키 출항, 고베(神戸)로
5월 31일	상동	상동	구레(吳) 출항, 다도진으로
6월 2일	상동	상동	고베 기항
6월 3일	상동	상동	고베 출항
6월 5일	상동	상동	요코스카 귀항

특별 증파된 야에야마함은 1893년 양력 4월 17일 인천항에 기항한 이래, 동년 5월 23일 인천항을 출항하기까지 1개월 이상을 인천에 정박해 있으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 또한 야에야마함은 정보수집 활동 외에도 당시 ‘방곡령사건(防穀令事件)’ 담판을 진행하고 있던 오이시 마사미 일본공사의 담판을 위해 무력시위 등도 벌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에야마함은 지난 (4월) 12일 마츠오카(松岡) 외무참사관을 탐재하고 조선을 향해 급행하여 17

일 인천에 입항한 이래 지금 현재는 그곳에 있으며, 지난 30일(즉, 동학당이 폭발할 무렵)은 동항에서 전투준비(戰鬪準備) 전투연조(戰鬪練操) 및 육전대(陸戰隊)를 편제하여 대월미도(大月尾島)에 상륙하여 공포발화(空砲發火) 월차연습을 하였다.

(『조야신문』 명치 26년 5월 18일, 2면)

1893년 ‘척왜양’ 운동기를 전후하여 특히 활발해진 일본 해군의 정보수집활동은 1894년에 들어와 피크를 맞이하게 된다. 1894년에 일본 해군이 벌였던 정보수집 활동은 쿠로오카 다테와키(黒岡帶刀, 1851-1927) 함장이 지휘하는 츠크바함(筑波艦)이 1894년 1월부터 3월까지 벌였던 정보수집 활동이다. 츠크바함이 1894년 양력 1월부터 3월까지 인천에 정박해 있으면서 수집한 정보는 방대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명치 27년 1월, 2월, 3월 조선국 경비사건 군함 츠크바』라는 제목으로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와는 별도로 『군함 츠크바 조선과전중 경력보고 원 츠크바 함장』이라는 문서도 남아 있다.(츠크바함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이 외에도 일본군은 주한일본공사관에 배치된 육해군 주재무관을 통해서도 광범위한 정보수집에 임했다. 그 한 예를 『도쿄아사히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니이로(新納) 소좌의 인천 안착

깊이 조선 내지(內地)에 들어간 뒤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인(韓人; 조선 사람-인용자 주)에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니이로 해군 소좌가 어제 인천에 안착했다는 요지의 전보가 해군성(海軍省)에 도착했다고 한다.

(『도쿄아사히신문』 명치 27년 6월 24일, 1면)

위의 니이로 소좌란 1893년부터 주한일본공사관 소속 주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니이로 도키스케(新納時亮) 해군소좌를 말한다. 공사관에 소속된 주재무관은 외무성 지시가 아니라 일본군 참모본부(육군) 및 군령부(軍令部, 해군)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일본육해군종합사전』 참조) 독자적인 정보수집에 임하고 있었다. 니이로는 조선 내륙 깊숙이 들어가 정보 수집을 하라는 해군성의 지시를 받고 농민군의 동정을 포함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다 한 때 소식이 끊겨 조선 민중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나(동신문, 명치 27년 6월 20일, 1면), 6월 23일 무사히 인천에 안착했다. 니이로 소좌와 함께 주한일본공사관 소속 주재무관으로 활동한 또 다른 인물로는 육군 포병대위(나중에 포병소좌로 진급) 와타나베 테츠타로(渡邊鐵太郎)가 있다. 와타나베 테츠타로 육군 포병대위(포병소좌)의 정보수집 활동은 뒤에서 상술한다.

4. 자유당의 정보수집활동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와 참모본부 및 일본 해군의 상비함대를 중심으로 한 일

본 군부(軍部)의 정보수집 활동 외에, 일본의 정당 특히 동학농민전쟁기 최대의 정파였던 자유당(自由黨) 역시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 ‘척왜양’의 기치를 내건 교조신원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1893년에는 자유당 당수가 직접 조선으로 건너와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전쟁기에는 자유당 본부에서 특파원까지 파견하여 정보수집에 열을 올렸다.

1)

1892년부터 1893년에 일본의 제 4 의회에서 자유당(自由黨)을 이끌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과 예산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항했던 코노 히로나카(河野廣中, 1849-1923)는 1893년 조선에서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척왜양’운동이 벌어지자, ‘동학당(東學黨) 폭발에 관한 질문자료 수집’(조야신문 명치 26년 5월 6일자, 2면)을 위해 1893년 5월 2일 같은 당 국회의원 스즈키 반지로(鈴木萬次郎)를 대동하고 조선으로 향했다. 『조야신문』(朝野新聞)에 보도된 그의 조선행 행적은 다음과 같다.

<1893년 코노 히로나카 자유당 당수 일행의 조선 방문 행적>

- 5월 2일 켄카이마루(玄海丸)로 고베항 출항
- 5월 9일 인천항 도착
- 5월 10일 경성으로 향함
- 5월 11일 일본공사관으로 오이시 마사미 공사 방문 면담
- 5월 13일 운현궁으로 대원군을 방문 면담(통역, 國分象太郎 배석)
- 5월 16일 일본인 인천구락부 도착
- 5월 17일 인천 출발
- 5월 21일 나가사키 도착
- 5월 25일 오사카 상업구락부 간담회에서 강연

자유당 당수 코노의 조선 ‘동학당’에 관한 정보 수집은 이듬해인 1894년에도 계속되었다. 그 같은 사실은 일본 국회도서관 현장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코노의 동학관계 문서에 잘 드러나 있다.

조선 ‘동학당’의 동정을 비롯하여 조선의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유당은 1894년 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자유당 본부에서 특파원을 보내 농민군의 동정에 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즉, 자유당은 지방당원에게까지 격문을 보내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도쿄아사히신문』 명치 27년 6월 10일, 1면 참조), 6월 11일에는 ‘조선시찰원’ 다나카 켄도(田中賢道)를 특파하고 있다. 다나카의 조선행에 관한 기사는 『도쿄아사히신문』 명치 27년 6월 12일자 1면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다나카 켄도 씨의 출발

자유당의 조선시찰원 다나카 켄도 씨가 어제 11일 오후 9시 신바시(新橋) 발 기차로 출발하게 됨을 당하여 재경(在京; 東京-인용자 주) 자유당원은 동일 5시부터 코비키쵸(木挽町) 만안(萬安)에서 송별회를 열었다.

6월 11일 도쿄를 출발한 자유당 특파원 다나카 켄도는 다른 신문사 특파원들과 함께 비

고마루(肥後丸)를 타고 조선을 향해 출발,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날 밤인 6월 20일 각 신문사 특파원이 참석한 '선상회의(船上會議)에 출석하고 있으며(동 신문 명치 27년 6월 28일, 2면), 6월 25일부터 농민군의 동정을 비롯한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동 신문, 7월 5일, 1면) 이후 그의 보고는 자유당 기관지 『자유신문』(自由新聞)(동학농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행된 『자유신문』은 현재 도쿄대학교 명치신문잡지문고에 소장되어 있다.)에 연재되며, 자유당의 대조선(對朝鮮) 정책에 크게 반영되기에 이른다.

5. 대륙낭인들의 정보수집활동

대륙낭인이란 주로 메이지(明治)시대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할 때 그 첨병(尖兵)으로 활동했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대륙낭인을 대표하는 단체로는 현양사(玄洋社)와 흑룡회(黑龍會)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과 중국을 무대로 활동했다. 대륙낭인들은 일본군 최고지도부, 정치가, 재벌 등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아 조선과 중국 등지로 건너가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현지 공작원으로서 각종 정보수집, 지세(地勢) 조사 등을 하여 일본군이나 외무성, 각 정당 및 정파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농민군에 대한 대륙낭인(大陸浪人)의 정보수집 활동 사례로는 천우협(天佑俠)의 사례가 유명하다. 천우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강창일에 의한 치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강창일의 연구 참조) 동학농민전쟁기에는 천우협 외에도 다수의 대륙낭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외무성이나 참모본부, 또는 각 정파(政派)에 고용되어 조선 각지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

1)

천우협 외에 단독으로 조선에 들어가 농민군에 대한 정탐 활동을 벌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미우라 토쿠야(海浦篤弥, 1869-1924)이다. 우미우라는 1890년 12월 하순에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의 권유로 『조야신문』(朝野新聞) 및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 두 신문의 통신원 자격으로 조선으로 건너갔다. 그는 1883년 1월에 일시 귀국했다가 동년 11월에 재차 조선 경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1894년 양력 7월 20일(음력 6월 18일)에 전라도 일대를 순행하고 있던 동학농민전쟁 최고지도자 전봉준을 능주(綾州)에서 만나 필담을 나누었다. 그가 전봉준을 만나 필담을 나누는 사실은 일본의 지방신문 『토오일보』(東奧日報) 1894년 양력 8월 5일자에 이미 보도된 바 있으며, 우미우라가 전봉준과 면담한 내용의 수기(手記)는 「동학당시찰일기」(東學黨視察日記)라는 제목으로 『일본인』(日本人)이라는 잡지 제 18호(1895년 양력 2월 3일 발행)에 게재되었다. 이 「동학당시찰일기」에 의하면, 우미우라와 면담한 전봉준은 김봉균(金奉均)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체불명의 일본인과의 면담에 임했던 전봉준의 용의주도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학당시찰일기』는 나중에 우미우라 요시 편 『초재유고』(初齋遺稿)(1925년 간행)에 다시 실리게 된다. 그러면, 우미우라는 단독으로 전봉준을 면담하러 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대륙낭인들은 거의 대부분 외무성, 참모본부, 각 정파와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미우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육신보』(二六新報) 1895년 11월 15일자 「동학당의 진상」이라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이라는 정파의 의뢰로 전봉준을 만나러 갔다고

한다.

2)

우미우라 외에 농민군에 대한 정탐 활동을 벌인 대륙낭인으로는 성명 미상의 일본인이 있다.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의 『전사편찬준비서류 동학당 폭민 전』(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 暴民 全)를 보면, 일본인 모(某)가 보고한 「동학당여문」(東學黨餘聞)이라는 보고서가 실려 있다. 이 일본인 모는 대본영의 지시를 받고 있던 인물(『도교아사히신문』 1894년 10월 5일자 참조)으로써 「동학당여문」에 의하면, 제 2차 동학농민전쟁 즉 삼례기포 이전인 1894년 음력 8월 11일(양력 9월 10일)에 전주에서 전봉준을 만나고 있다. 그는 전봉준과 필담을 나눈 뒤 전봉준으로부터 소개장과 함께 서간 한 통을 전해 받은 다음, 다시 경상도 상주 능암리에 은거해 있던 해월 최시형을 찾아갔으나 최시형은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귀경한 후 양력 9월 21일에 「동학당여문」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일본인 모의 「동학당여문」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한 인물이 주한일본공사관 소속 주재무관인 육군 포병소좌 와타나베 테츠타로(渡邊鐵太郎)라는 사실이다. 와타나베는 1891년 음력 8월 23일에 경성의 일본공사관 주재무관으로 부임한 바 있으며(『구한국외교문서』 제 2권 일안 2, 235쪽), 당시 계급은 육군 포병대위였다. 그는 조선에서 ‘척왜양’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된 직후인 1893년 5월 2일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정황을 정탐하기도 했으며(위의 책, 387쪽),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공사관 소속 주재무관 해군소좌 니이로 도키스케 등과 함께 공사관의 정보 수집 활동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정보수집 활동에 임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대본영의 연락을 받아 위의 일본인 모로부터 「동학당여문」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하여 대본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오카모토 유노스케(岡本柳之助, 1852-1912)에 대해 약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오카모토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주범(主犯) 가운데 1인이다. 그는 이미 ‘시해사건’ 있기 1년 전인 1894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같은 사실은 『도교아사히신문』 1894년 양력 7월 6일자 1면의 「입한일록」(入韓日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입한일록」의 저자 니시무라 텐슈(西村天因; 『도교아사히신문』 특파원 니시무라 도키히코=西村時彦의 필명-필자 주)는 6월 27일에 오카모토를 만났다고 쓰고 있다.

6. 신문사 특파원들의 정보수집활동

동학농민전쟁기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던 일간지(중앙지 및 지방지 포함)는 대체로 200 종이 넘었으며, 이들 신문사가 조선과 청국으로 파견한 특파원 수는 129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들 특파원 가운데는 순수한 기자 출신 특파원도 있었지만,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륙낭인 출신의 특파원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특파원은 순수하게 종군(從軍) 취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군의 동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외무성이나 일본군 참모본부, 각 정당 정파 및 그 기관지에 정기적인 정보 제공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자유당 특파원 다나카 켄도(田中賢道)

의 사례이다. 그러나 특파원 신분으로 정보수집 및 제공에 임했던 사례는 다나카 켄도 1인에 그치지 않았다. 그 구체적 사례를 『도교아사히신문』 1894년 6월 28일자 부록 2면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히고마루(肥後丸) 회의의 결의

이 무렵 조선으로 향하는 히고마루편(肥後丸便)에 승선한 부하(府下) 각 신문 사원은 지난 20일(1894년 양력 6월 20일-인용자 주) 즉 인천 입항 전날 밤 배 안에서 회의를 열고 이번 조선사변(朝鮮事變; 제 1차 동학농민전쟁-인용자 주)에 대한 방침에 대해 종종 숙의를 한 후 결국 만장일치로 다음 3개조를 결의하였다

일. 이번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은 근래 일대 이변에 속하므로 이번에 인방제국(隣傍諸國)의 정태(情態)를 깊이 살펴서 끊임없이 정확한 보도를 제국(帝國; 일본-인용자 주)에 전달하여, 제국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광휘(光輝)있는 행위를 취하도록 한다.

일. 외교관 및 육해군의 일진일퇴는 국권(國權)의 신축(伸縮) 국익의 소장(消長)에 관계되므로 이번에 충분히 그 행위를 감시하여 제국의 광영(光榮)을 발양(發揚)하도록 할 것을 기하고자 한다.

일. 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일역(一役; 특파원의 임무-인용자 주)이 끝날 때까지 일의 형편에 따라 인천 경성 사이에 신문특파원 파출소 본부를 설치한다.

위의 결의사항을 보면, “정확한 보도를 제국에 전달하여 제국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광휘 있는 행위를 취하도록”하며, “외교관 및 육해군의 일진일퇴를 충분히 감시하여 제국의 광영을 발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 경성 사이에 신문 특파원 파출소 본부”를 둔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특파원들의 보도 목적이 제국 즉 일본으로 하여금 ‘광휘있는 행위’를 하게 하여 ‘광영을 발양’하는 데 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결의에 참가한 각 신문사 및 통신사 특파원은 아래와 같다.

<히고마루 회의 결의에 참가한 특파원 현황>

국민신문: 久保田米僊, 同米太郎

내외통신: 弓削田精一

대판조일신문: 西村時彦

동방협회: 福本誠

매일신문: 柵瀬軍之佐

부상신문: 鈴木經勳

시사신보: 杉幾太郎

우편보지신문: 遲塚金太郎, 前川九萬人, 住田淺吉

이육신보: 伊達九郎

자유당본부: 田中賢道

자유신문: 今西恒太郎

일본: 櫻田文吾

위의 결의에 참가한 신문사는 9개사, 통신사 1개사, 정파 및 정당이 2개로 나타나 있

고, 참가한 특과원 수는 15명에 이르고 있다. 15명의 특과원 가운데 『국민신문』의 구보 다 베이센(久保田米僊, 1852-1906)은 삽화가 포함된 기사로 유명한 인물로써 그의 기사는 후일 『일청전투화보』(日淸戰鬪畫報)로 간행되었다. 또한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의 니시무라 도키히코(西村時彦)는 「입한일록」(入韓日錄, 1894년 양력 7월 4일-7월 29일)을 『도쿄아사히신문』에 연재함으로써 유명해졌고, 그의 동생 니시무라 도키스케(西村時輔) 역시 특과원으로 경성에 주재하며 취재에 임했는데, 그 기사는 1895년에 『갑오조선진』(甲午朝鮮陣)으로 간행되었다.

7. 맺음말

1894년 봄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전역에서는 적어도 수십만의 농민군이 봉기하여 1년 이상에 걸쳐 전근대적 지배체제의 개혁을 위해, 그리고 그 같은 개혁을 방해하는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싸웠다. 음력 3월에 시작된 1차 봉기에 이어 음력 9월부터 시작된 2차 봉기에 이르기까지 농민군이 수행한 역할은 지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농민군의 봉기는 결국 일본의 개입과 일본군의 잔혹한 농민군 진압작전에 의해 패배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농민군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는 대부분 농민군 측의 열악한 무기, 그리고 전근대적 전략전술을 들었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농민군이 패배한 요인 속에는 기존연구가 지적한 무기의 열세, 전근대적 전략전술 외에도 농민군에게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그 활용능력이 전무(全無)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패배 요인의 하나이다. 반대로 일본군은 이 글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근대적 수단을 통한 정확한 정보수집, 그 외 인적 물적 수단을 총동원한 정보수집 및 활용을 통해 농민군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다.

3 부

지방지와 기념물에 나타난 농민전쟁

발표 : 김태웅(서울대)
박준성(역사학연구소)
토론 : 이영호(인하대)

해방 이후 地方誌에서 농민운동 인식과 서술

-- 壬戌民亂과 1894년 農民戰爭을 중심으로 --

김태웅(서울대)

1. 머리말
2. 시기별 농민 운동 인식과 서술의 변화
3. 지역별 서술 내용의 경향과 특징
4. 맺음말

1.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와 함께 지방지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해방 이전에도 지방 일각에서 전통시대의 읍지 관례에 따라 지방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지역을 분야별로 소개하고 일제의 통치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서술된 종합 地誌에 불과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편찬된 지방지는 지방민 스스로가 자기 지방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 그리고 중앙 위주의 관권 정치 등으로 점철되는 가운데 지방지 서술은 온전한 내용을 담을 수 없었다. 우선 정치적 격동으로 말미암아 지방지를 쓸 수 있는 인제가 매우 드물었다. 그것은 지방사에 대한 안목과 함께 전근대적인 읍지 서술 체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이 구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쟁통에 자료가 사라진 악조건 속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해야 했다. 그리고 관권 주도의 행정 체계에서 학계의 연구 성과와 지방민의 역사 의식을 담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박제화되고 획일화된 구성 방식을 재생산할 뿐이었다. 특히 지방사를 둘러싼 전문 연구자와 토박이 유력자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방사 연구의 진척을 막을 뿐더러 지방지 서술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단절된 학문적 전통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또 1980년대부터는 사회운동의 성장에 힘입어 19세기 민중운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지 서술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민중운동은 나라의 안정을 흐트리고 사회의 발전을 막은 반란으로 매도되지 않고 역사를 발전시킨 추동력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100년이 지났다는 물리적 시간의 경과에서도 오겠지만 20세기 후반 학계의 노력과 지방 지식인이 쏟은 각고의 노력들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중앙 학계의 성과에 자극을 받은 면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 지식인이 그동안 벌인 지방사 연구의 진척 속에서 지방지는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내면서 이른바 문화적 지역색을 발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과 현재의 지형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격동하고 지방 사회의 정치가 요동치면서 지방마다 저항과 보복의 악순환이 진행되었던 만큼 후대 지방 사회에서 농민운동 특히 1894년 농민전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의 연구 성과와 지방 지식인의 출신 구성도 서술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농민 운동에 대한 인식과 서술 경향을 시기별로 추적하고 지역별로 경향을 추출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듯이 성과와 함께 한계를 확인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자료 소장의 분산과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지방지를 검토하지 못하였다. 추후 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2. 시기별 농민 운동 인식과 서술의 변화

1) 해방 이후~5.16 군사정변 직전

해방 직후 지방지 편찬은 이전과 달리 매우 부진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이른바 郷土教育運動을 전개하면서 지방지 편찬에 힘을 쏟았던 데 반해 해방 이후 시기는 이러한 지방지에서 보이는 황국신민주의 경향을 불식시키고 신국가건설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흥군지』를 비롯하여 『남원지』 등이 편찬되었다. 『남원지』는 남원공립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향토연구반이 편찬한 지방지로서¹⁾ 여기에는 이전 시기와 달리 1894년 농민전쟁과 관련하여 김개남 부대의 활동 상황을 서술하였다. 이는 남원이 김개남의 주요 활동 무대인 동시에 『남원지』 편찬자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말살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이마저도 복원하지 못하면 난국에 처할 것이라는 문제 의식 아래 향토의 역사문화를 정리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동학군의 세력’을 서술하는 가운데 1894년 농민전쟁을 “우리나라 근세기 2트머리에 있어서의 평민들의 일대 혁명 운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박은식, 황의돈, 장도빈 등의 평민혁명설을 이어받은 것으로 지방지로서는 최초의 평가라 하겠다.²⁾ 이어서 김개남 부대의 활동상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당시 남원에 있어서의 동학군의 세력은 참으로 대단한 바 있어 병력 약 2만 명에 달하였고 그들의 군량은 근처의 마을에서 책임을 맡았는데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이 모양으로 늙은이 여자 농민들이 식사를 분별하여 가지고 때때마다 교룡산성까지 운반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지금의 향교리, 왕정리, 신정리, 화정리, 대산면, 왕침년 등은 그때 모두 동학군들의 양식을 대어준 마을들이라 한다.

그러던 중에 그들의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인 김개남이가 남원에 오게 되자 그들의 세력은 더욱 강하여 저서 장차 운봉을 엿보려고 준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서술은 학문적 연구에 입각하기보다는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구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남원지』는 김개남 부대와 접전을 벌였던 반농민군의 활동상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후대에 주로 알려졌던 박봉양보다는 박문달에 초점을 맞추어 여원치에서 김개남 부대에게 타격을 주었던 박문달의 활동상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여기서 『남원지』 편찬자들이 학계의 평민혁명설을 받아들이면서도 관군쪽의 활동상을 기술함으로써 인식보다는 사실 기술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술 방식은 유림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위주의 서술 방식도 6.25남북전쟁을 거친 뒤 향교 유림들이 지방지를 편찬하면서 일순 바뀌었다. 나주향교가 편찬한 『나주군지』(1955)에서 나주는 농민군과 민보군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곳이어서 농민 전쟁을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平東記事’ 항목을 두고

1) 이에 관해서는 줄고, <해방 이후 지방지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역사연구』 18, 156~157쪽 참조,

2) 이에 관해서는 김선경, <농민전쟁 100년, 인식의 흐름>, 『농민전쟁 100년의 인식과 쟁점』, 거름, 1994, 41~47쪽 참조.

향리들이 주도한 民堡軍이 농민군을 진압된 내용을 담고 있는 討平碑와 建功碑 내용을 그대로 신고 있다. 재래의 읍지 형식이어서 역사가 따로 서술되지 않는 가운데 충청, 효자 등을 신고 있는 편제 속에서 이 항목을 설정했음은 서원, 향교 임원들의 농민전쟁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지방 사회를 운영했던 유림들과 향리 자손들의 역사 인식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과 서술 경향은 여타 지방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서원과 향교 유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60년 4.19혁명은 농민 전쟁 인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훗날 신동엽의 <금강>으로 나타나지만 지방지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보인다. 우선 농민전쟁의 진원지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혁명 직후 金玉敏이 편저한 『議會史(정읍편)--향토지』는 이를 잘 보여준다.³⁾ 여기서는 지방자치제의 성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정읍의 개항과 함께 선조들의 위업을 좀더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정읍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전봉준을 기술하였다. 우선 전봉준을 “우리민족혁명의 선구자요 근세의 풍운아”로 묘사하고 있다.⁴⁾ 여기서는 “동학란”을 제외한 채 전봉준의 출생지 논란, 동학 입도 시기 논란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김개남과 손화중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동학교도의 피해가 무려 3만 여 명임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전봉준의 딸이 68세로 서울에 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서술 경향은 4.19혁명에 힘입어 民主發展史로서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전봉준에 대한 김상기, 황의돈 등의 연구가 참조되었으리라 본다. 특히 1936년에 張奉善이 편찬한 『井邑郡誌』의 ‘전봉준실기’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⁵⁾ 『정읍군지』의 저자인 장봉선은 1902년 정읍에서 출생하였으며 鰲北義塾에서 수학한 뒤 面書記를 지냈다. 그리고 21세에 所聲私立普通學校를 설립하여 교편을 잡기도 하였다. 그는 1933년에 정읍군지 편찬에 들어가서 3년 뒤인 1936년 『정읍군지』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최익현 사당, 송상헌 사당 사진이 수록됨과 함께 인물 초상,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최치원 초상과 전봉준의 사진이 실려 있음은 그의 항일의식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 1936년 간행할 때 일제의 검열로 삭제된 김상훈의 서문 일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曾往에 잇서는 조선의 지리, 역사보단도 支那의 그것을 숭상하여서며 현대에 잇서는 역시 조선의 지리, 역사보단도 일본이나 서양의 그것을 練修하고 잇습니다.

당시 이러한 군지에 대해 지방민들의 호응은 매우 컸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광고 내용을 보냈다. 따라서 1960년 정읍향토지는 이전의 지방지 전통을 이어받아 펴냈으며 여기에는 농민전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2) 5.16 군사정변 이후~ 1987년 6월 항쟁 직전

3) 김옥민 편저, 『의회사(정읍편)-향토지』, 1960.

4) “혁명”이란 표현은 이전 역사가들이 썼던 표현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지 동학란이라 불렀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이다. 아울러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혁명이라 호명하기 전에 썼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근대화 혁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4.19혁명’의 영향을 받아 썼을 가능성이 높다.

5) 이 책은 1988년 조카인 張詢河가 影印 간행하였다. 이 때 영인판 서를 쓴 정읍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 최현식은 1955년에 이 책을 처음 보았다. 그는 이 책을 현대본 체제의 향토지라 평하면서 이후 이 책으로 인해 갑오농민혁명사를 연구하게 되었노라고 술회하고 있다.

4.19혁명으로 부각되었던 농민 전쟁은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방자치체의 증지로 지방민의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관치적 지방지가 득세하면서 중앙의 획일화된 방침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지방마다 지역성이 갖는 특징상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1894년 농민전쟁을 5.16과 연계시켜 근대화 혁명으로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지방자치체가 중단된 시점인 1964년에 출간된 『전주시사』에서 1894년 농민전쟁을 ‘갑오동학혁명전쟁’으로 명명하면서 전봉준의 供招를 장황하게 소개하고 발발 배경을 서술하였다. 전봉준 공초가 지방지에 처음 소개된 것은 김용섭의 연구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한 ‘동학혁명군’이라는 표현은 동학혁명탑의 명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봉기와 발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리하여, 처음 고부군민의 자연발생적인 부패관리에 대한 항거는 동학교의 이념과 그 교도의 호응을 받음으로써 조직적인 근대농민혁명전쟁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진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일성록』, 『매천야록』 기사가 보이며 김시풍의 죽음에 관한 일화도 소개하고 있다. 김시풍 사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東學亂記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아울러 1894년 농민전쟁을 전봉준 공초에 근거하여 전라도 전체의 탐관오리의 폭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팔도를 일체로 하려는 제폭구민의 대이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전쟁의 전사라 할 1862년 임술민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는 전주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반면에 농민전쟁의 진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농민전쟁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는 전봉준이 입성했다는 점, 집강소의 중심 지역이라는 점이 감안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민전쟁을 전주시의 표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겠다. 이후 1974년에 간행된 『전주시사』에서는 농민전쟁을 크게 다루면서 ‘갑오동학혁명과 전주’라는 항목을 두고 서술하였다. 반면에 농민전쟁과 밀접한 민란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했거나와 민란이 농민전쟁 만큼 주목받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1971년에 간행된 『경주시지』에서는 경주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파악하면서 진주민란, 개령민란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민전쟁이나 임술민란에 대한 서술이 1980년대 이전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김제군사』(1978)에서는 역사 章이 있음에도 농민전쟁에 관한 서술이 없다. 그리고 『영덕군지』(1981)는 근대와 현대를 간략하게 기술하면서 이필제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음 상세한 서술은 보이지 않지만 몇몇 지방지는 학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순창군지』(1982)에서는 우리 고장의 동학지도자 항목을 두고 순창 접주를 소개하였다. 『고흥군지』(1982)의 경우, 고흥의 재봉기시 이 곳 출신인 동학영두인 유희도가 효시되었음을 서술하면서 현재 이와 관련된 동요가 내려오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동학혁명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의의가 크며 지방 민중이 중심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서술이 보인다. 그리고 『아산군지』(1983)에서는 아산의 동학 두령 안경규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에서 전개되었던 농민전쟁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개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온양향교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활빈당

이 의병으로 전화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평택군지』(1984)에서는 독일농민전쟁과 비교하며서 갑오동학란은 근대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첫 단계로서 내셔널리즘으로 파악하면서 기미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군 평택읍 합정리 최규경이 접주는 아니었지만 동학도를 지원했다는 점, 동학도 김승구는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이처럼 일부 지방지에서 개별 구술 자료에 입각하여 농민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면서 조금씩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거창군지』(1979)에서는 거창 민란을 서술하면서 樵軍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농민전쟁과 관련하여 거창 동학교도의 봉기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인물조에서 농민전쟁을 진압하였던 거창군수 鄭觀燮를 제일로 올리면서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임술민란 지도자를 모신 사당인 仁民社를 언급하고 있다. 평가보다는 사실 위주의 서술 방식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1983년 역사가이자 소설가인 이균영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광양군지』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그는 『영덕군지』(1981)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필제 주도의 난을 광양 민란과 연계하여 다루었으며 광양에서 활동하였던 동학농민들의 움직임, 제2차 봉기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에 나왔던 학계의 연구 성과를 대거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한우근의 『동학란 기인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강제언, 김용섭, 이광린 등의 저서들이 녹아 들어갔다. 물론 오지영의 『동학사』를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규장각 소장의 잡철책을 활용하여 광양동학농민 진압참여자들의 명단도 소개하였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지방지 편찬이 학계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 지방사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타 지방지 편찬에 영향을 미쳐 농민운동 서술의 새로운 전환이 되었다.

『남제주군지』(1986)의 경우, 1862년 제주민란을 비롯하여 이후 이원평 민란, 방성칠란, 이재수난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재수난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1988년에 발간되었지만 1987년 이전에 기획되었던 『시흥군지』(1988)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지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곳 출신인 이희승을 고문으로 두고 그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 편찬위원을 꾸렸다. 그리하여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에 학계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완재를 비롯하여 이수건, 임동권 등이 그들이다. 여기서는 ‘농민의 저항’을 별도의 절로 두었으며 ‘19세기는 획기적인 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그리하여 흥경래난을 비롯하여 1862년 임술민란,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을 서술하였다. 비록 서술 분량은 많지 않지만 이후 일어날 시흥농민항쟁의 전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어서 시흥농민봉기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는 중앙대 김호일이 집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규장각 자료를 비롯하여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활용하였다. 특히 김용섭, 정석종의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한국근대사를 내적 계기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3) 1987년 6월 항쟁~현재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는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역사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적인 역사연구단체가 설립되었다. 이 중 망원한국사연구실은 학술운동적 표방과 달리 오히려 실증적인 작업을 벌여 1988년 『1862년 농민항쟁』을 출간하였다. 이는 한국민중운동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만 하더라도 구호가 팽배했다면 이 작업은 연대기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개별 사료에 대한 꼼꼼한 고증 등에 바탕하여 임술민란을 단지 민중의 반란에 자리매김하지 않고 1960년 4.19 혁명 이래 한국사회경제사학계가 이루었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한

국 민중운동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개설 연구에 이어서 개별적인 논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영호, 송찬섭, 박준성, 김선경, 고동환, 오영교 등이 발표한 일련의 연구는 그 결과물이었다. 이후 1994년을 맞이하여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 연구소들이 내놓은 1894년 농민전쟁 연구물들은 그 연장선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 성과들은 지방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관련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홍천군지』(1989)에서는 ‘동학혁명과 의병봉기’와 ‘홍천의 동학혁명운동’ 항목이 설정되어 서술되었다. 특히 풍암리의 동학봉기를 서술하면서 동학민중의 외치는 소리를 담으려 하였다. 또한 『여주군지』(1989)에서는 개항 전후의 사회상황을 개설한 뒤 농민전쟁을 서술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갑오농민전쟁”이란 용어가 지방지로서 최초로 나왔다.⁶⁾

이어서 『용인군지』(1990)에서는 김선경, 김위현, 김창현, 박홍갑, 장득진 등 학계 인사들이 가담하면서 용인의 농민운동을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봉건적 질곡과 민중의 반봉건 투쟁을 언급한 가운데 용인, 죽산 농민군이 2차 기포에 참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죽산부사 이두황과의 전투를 기술하였다. 즉 농민군들이 정부군, 일본군, 지방보수양반이 연대한 진영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이후 1899년 농민항쟁으로 연결되어 용인 농민들이 조세부과에 항의하여 군수를 내쫓았음을 밝혔다. 특히 왕실 내장원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왕실의 지주제 강화 정책과 역둔토 문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기존의 농민운동 서술이 지녔던 일회적인 의미 부여에서 벗어나서 민중운동을 지역을 매개로 연속성을 밝히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지방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필제의 동학 봉기가 『문경군지』(1994)에 서술되었다. 이는 각주로 확인할 수 없짐만 윤대원의 연구 성과물이 반영된 경우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특히 여기에는 사료조사위원회와 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하여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명망가 위주의 개설적 서술에서 나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나아가 『1862년 농민항쟁』은 1994년 『진주시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에는 오랫동안 단성 사족을 연구하면서 진주농민항쟁 연구에 힘을 기울였던 김준형의 개별적 연구 성과가 반영되는 한편 『1862년 농민항쟁』의 문제 의식과 서술 방식이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진주농민항쟁을 이전 시기와 달리 매우 상세하면서도 19세기 지역의 사회경제구조 변동과 연계하여 복원하였다. 아울러 연장선 속에서 이 지역 농민전쟁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2000년대에 들어와도 이어졌다. 비록 1990년 중반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로 민중운동사 연구는 다소 주춤거리기 시작하였지만 이전에 일구었던 작업 성과는 지방지 서술에 영향을 주었다. 『역사도시 하남』(2001)의 경우, 광주농민항쟁과 환곡문제를 상세하게 다루었다. 여기서는 광주농민항쟁과 관련된 1차 사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1862년 농민항쟁』에서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여 광주 농민 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서술하였다. 물론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학계가 대거 가담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전에 축적해 두었던 내용상의 성과와 방법론의 진척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사』(2002)에서는 『1862년 농민항쟁』에 의거하여 1862년 울산민란을 서술하였다. 특히 내용 구성 역시 유사하여 직접적 계기, 전개 과정 및 봉건 정부의 대책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1875년 울산민란, 대한제국기의 울산 농민의 항조운동 순으로 서술하였다. 농민항쟁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지방의 역사 발전에 이바지하

6) 추후 정밀한 조사 작업을 통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

였음을 밝힌 셈이다.

또한 『논산시지--역사와 문화 유적』(2005)에서도 학계 연구자의 대거 참여 속에서 기존의 이러한 성과에 바탕을 두면서도 새로운 모색을 하였다. 여기서는 장영민의 연구 성과에 바탕하여 노성에서 농민군과 유림들이 충군애국이라는 유교적 명분을 매개로 반일 의병을 결성하려다 실패한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종전에 대립 일변도로 그려 왔던 유생과 농민군의 관계를 정국 변동 속에서 역동적으로 파악하려 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어서 제2차 농민전쟁과 논산대회를 서술한 뒤 1899년 강경교안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아울러 『나주시지』(2006)에서는 논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계 연구자가 대거 가담하였다. 그런데 1955년 『나주군지』와 달리 농민전쟁의 전개 과정을 유림의 눈이 아니라 농민의 눈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실로 50년 사이에 민란과 동학란에 관한 인식이 바뀐 것이다. 그것은 나주 지역 사회의 변동과 함께 학계 연구 성과의 반영이라 하겠다.

3. 지역별 서술 내용의 경향과 특징

지방지에서 농민운동 서술은 학계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점차 개설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기존의 당파적 이해에서 벗어남으로써 농민운동사는 지방사에 당당히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의 정서나 필자의 성향에 따라 여전히 농민운동사 서술은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 준다.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지역적 정서와 이해 관계에 따라 서술 초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계와 지역 향토사가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우선 농민전쟁의 진원지라 할 전라북도의 경우, 정읍과 전주에서는 농민전쟁의 의미를 자기 지역의 역사와 연결시켜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는 농민전쟁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발생하는 전국적 성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할 때 농민전쟁의 발단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주 입성 이후 집강소 시기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인식상의 문제는 박물관 건립 등을 둘러싼 양측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지역의 이해 관계와 농민전쟁의 역사화가 매우 밀접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다만 1894년 농민전쟁 이전이나 이후의 농민운동에 관한 서술은 대단히 취약한 편이라 하겠다.

반면에 지역 정서와 관련된 문제에서 서술 초점이 달라진 경우이다. 나주의 경우, 향교가 주도한 『나주군지』(1955)에 비해 학계가 깊이 관여한 『나주시지』의 경우, 민보군과 농민군이 치열하게 전투하였던 전장지로서 처음에는 농민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서술하였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인식에서 서술하였다. 이는 편찬 주체의 변화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주 지역 농민전쟁 연구가 축적되면서 역사적 진실이 당파적 이해를 압도한 결과라 하겠다. 성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역 역시 양반지주 및 향리와 농민군 사이에서 처절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지역 정서상 대단히 반농민운동 정서가 강한 곳이었다.⁷⁾ 그러나 『성주군지』(1996)에서는 임술란의 농민항쟁(성주민란)에서 서술하는 가운데 이윤갑의 연구 성과를 대거 활용하면서 『1862년 농민항쟁』을 적극 인용하였다. 이어서 1883년 계미항쟁, 1894년 농민전쟁을 서술하면서 농민운동의 내적 발전 과정을 사회경제구조의 변동과 연계하여 서술하고 있다.

7) 권대웅, <경상도 유교 지식인의 동학 농민군 인식과 대응>, 『동학농민전쟁기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한국근현대사학회 동학농민전쟁 115주년 학술대회, 2009.

그 밖에 문헌의 부족과 학계 연구 성과의 부진으로 지역의 농민운동을 복원하지 못하였지만 농민운동에 대한 인식이 전진적인 자세에서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보인다. 『청도군지』(1991)에서는 동학운동에 관한 문헌이 현재 없으나 참여한 것이 분명하다는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이는 농민전쟁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진안군지』(1992)에서는 동학이 진안에 먼저 전파되었고, 진안 농민들이 마지막까지 농민전쟁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 전봉준의 유일한 혈육인 김옥년 노파가 임종시에 전봉준의 유해를 부탁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농민전쟁과 진안의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그리고 진안이 교부와 거리는 멀지만 동학운동에 참여하여 근대화에 앞서 나간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농민운동을 이전과 달리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지만 지역적 정서를 감안하여 초점을 달리하는 경우도 보인다. 『안동시사』(1999)의 경우, 동학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을 서술하면서 초점은 영남 만민소에 두고 있다. 아울러 안동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제대로 안된 이유를 남인들이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방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는 무주의 경우도 그러하다. 『무주군지』(1990)에서는 전직 교장이 농민전쟁을 서술하였는데 여기서는 무주 지역의 수난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즉 동학 영수인 문성술이 처형되면서 그의 여당이 모두 귀순하여 평온을 찾았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진압한 거창군수 정관섭의 송덕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남원지』(1992)의 경우, 이전과 달리 농민전쟁에 대한 서술이 극히 소략해지고 김개남에 대한 평가 역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음 학계와 향토사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다. 우선 1970·80년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광주 등지의 대학에서 修學한 뒤 지방대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지방사 편찬에 관여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수학 시절에 고민하고 연구했던 농민운동 성과물을 지방사에 적극 편입시켰다. 그 결과 농민운동이 지방사 서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며 농민운동이 지방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음을 공식적인 지방지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들은 농민운동 연구의 불모지였던 지방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자료들을 발굴하였다. 나주, 원주, 안동, 청주 등지의 경우, 그 동안 묻혀 있던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아울러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정리해 왔던 향토사가들은 학계의 관심과 본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성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기 시작하였다. 정읍의 최현식을 비롯한 연구성파들은 학계의 연구 이전에 일찍부터 공을 들이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또한 최현식은 본인의 연구 성과에 바탕하여 『고창군지』(1992)에서는 ‘갑오동학혁명과 고창’이라는 절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의 성과는 학계를 자극하여 농민운동 연구를 발전시킨 촉매 역할을 다하였다. 또한 향토사가들이 발굴한 자료들과 성과물들은 지방지에 적극 소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향토사가들은 농민전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일부 유력자의 시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보인다.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당파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적 명망에 힘입어 비전공자임도 불구하고 농민운동을 서술함으로써 농민운동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인다.

끝으로 지방지에서 농민운동 서술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학계가 힘을 쏟은 결과이다. 1988년에 출간된 『1862년 농민항쟁』을 비롯하여 한국역사연구회의 『1894년 농민전쟁연구』 시리즈와 이이화의 성과물들은 농민운동 연구를 대중화하는 기반이 되었을뿐더러 농민운동의 역사가 지방사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862년 농민항쟁』은 논문집 형태가 아니라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한 뒤 대중적인 문체로써 역사를 이야기하는 농민운동

개설서이자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농민운동사의 지방화에 이바지하였다. 물론 초기 연구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향토사가들의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오류를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운동사 연구는 1994년을 지나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한국 사회의 혼미에 영향을 받아 길을 잃은 면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는 한국 지식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른바 시대적 분위기에 쉽게 감응되어 농민운동 연구를 쉬이 놓은 면도 없지 않다. 또한 농민운동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일회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역사 변동의 총체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사건이자 국면 변동의 분기점이며 구조의 폭발점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물론 이전의 수준을 극복해야 한다는 명제는 늘 유효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자료 발굴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과 함께 학계와 향토사가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농민전쟁 발발 120년인 5년 뒤를 내다보고 가칭 『증보판 1862년 농민항쟁』과 『실록 1894년 농민전쟁』이 기획되고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생략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박 준 성(역사학연구소)

1. 머리말
2. 주요 기념조형물의 추이
3. 유적 복원과 기념조형물의 문제와 과제
4. 맺음말

1. 머리말

이 땅 곳곳마다 역사의 현장 아닌 곳이 드물다. 지금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물론 발자취가 끊긴 곳에도 역사가 묻혀 있다.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앉았다 쉬어가는 느티나무 아랫자리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객관적 사실 모두가 역사로 기억되지 않듯이 역사의 현장 모두가 유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현장은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할 때 유적지가 된다. 기억되지 못하고 재구성되지 못한 현장은 유적지로 기념되지 못한다. 역사 유적지는 재구성된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던가, 어느 곳, 왜 그곳에서 그 일이 있었던 일인가, 누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가 중요한 질문의 대상이다. 1894년 농민전쟁은 시간으로는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한 제1차 농민전쟁, 전주성을 점령한 뒤 농민자치 시기인 집강소시기, 9월부터 다시 전개된 2차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며, 1895년까지 이어졌다. 공간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뿐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전국 규모로 일어난 가장 큰 민중투쟁이었으며 변혁운동이었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현장에는 곳곳에 기념물들이 세워졌고, 유적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조형물도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구성의 결과물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설립 주체의 역사관과 의도에 따라 조형물의 형상과 내용이 달랐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조형물 또한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농민전쟁 역사 현장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곳곳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 조형물 설립의 과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주요 기념 조형물의 추이

1) 1963년, 황토재 <갑오동학혁명기념탑>

황토재는 지금 탑이 세워져 있는 산등성이 꼭대기가 아니라 탑과 농학농민혁명기념관 사이로 난 고개였다. 이 일대에서 농민군은 1894년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으로 이루어진 관군과 맞붙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63년 정부 주도로 8월 25일 전주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에 기공하여 그해 10월 3일 세운 탑이다. 이 탑은 농민군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최초의 조형물이며, 농민군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이 되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수직의 화강암 기둥 윗부분에 전서체로 ‘제폭구민 보국안민’ 여덟 글자를 새겼다. 양 옆 보조 석물에는 앞쪽에 비문과 농민군 부조를 새겼고, 뒤쪽에 농민군 민요인 ‘새야 새야’와 ‘가보세’를 새겼다. 전체로 보아 중앙탑과 좌우 보조 석물 사이를 떼어 놓아 모양이 시원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보조 석물 좌우 대칭 중심에 자리잡은 중앙의 높고 육중한 화강암 수직 기둥은 귀위적이고 위압스런 기념 조형탑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전서로 새긴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구호는 가까이 갈수록 고개를 짓히고 올려다 보아야 할 자리에 새겨져 있고, ‘보’자는 ‘보국안민’할 때 쓰는 ‘輔’가 아니라 ‘保’로 잘못 새겼다.

황토재 싸움은 농민군이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한 기념 조형물 앞에 제단이 놓여 있는 것도 상징성이 떨어진다.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왼쪽 날개 돌에 새겨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명문’은 갑오혁명기념사업협회장 문학박사 김상기가 지었다. 내용은 갑오동학혁명이 ‘동학교문의 대혁명이 전봉준 선생의 영도아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고 하여 전봉준 중심의 영웅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5.16군사쿠데타 이후 ‘근대화론’의 영향을 담고 있다. 또한 농민군이 내걸었던 ‘척양척왜’의 구호에서 ‘척양’은 빼고 ‘척왜’만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세워진 우금재 ‘동학혁명군위령탑’ 만큼 경직되지는 않았으나 조형의 형상이나 비문의 내용에서 다분히 국가주의적 권위가 풍겨나고 있다.

그래도 날개 돌 뒷면에 새긴 ‘새야 새야’는 그 앞에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고, “가보세 가보세 울미적 울미적 병신되면 못가리”를 낭송하면서 농민전쟁의 역사를 되새겨 보게 한다.

2) 1973년,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치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위령탑을 세웠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1894년 10월 23일부터 25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민군은 수많은 목숨을 잃으면서 경군·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비문의 형상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보다도 더 숨막힐 듯한 좌우 대칭의 화강암 이중 받침대 위에 육중한 수직의 기둥이 우뚝 솟은 모양이다. 이러한 탑의 형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성기 모양으로 형상화된 남성중심주의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은연중에 수직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층 받침돌 중앙 손이 닿는 위치에 비문이 자리 잡고 있어 위령탑의 중심을 이룬다. 비문 내용에 탑 건립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있다.

“님들이 가신지 80년. 5.16혁명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10월 유신의 한 돌을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천만대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선양하라.....”

‘동학혁명’을 끝어다 박정희 정권이 그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군사독재의 시작인 '5.16혁명'과 폭압적인 '10월유신'을 정당화하였다. ‘동학혁명군’의 혁명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10월 유신에 대한 부정이며, 농민군의 저항정신을 순국정신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을 강조하였다. 희생당한 ‘동학혁명군’을 대상으로 탑을 세웠으며 목적은 유신체제에 국민들을 순응시키려는 것이었다.

농민군이 어떠한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싸웠는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반농민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도 드러나 있지 않다.

지금 위령탑 비문에 쓰여 있던 ‘5.16혁명’ ‘10월유신’ 박정희’ 글귀 부분은 알고 읽지 않으면 뭐라고 써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흔적만 남았다. 수많은 답사객들이 동맹이로 수없이 쪼아 그렇게 되었다. 역사는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로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동맹이로 쓴 ‘새로운 역사’ 때문에 이 비문은 두고두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3) 1987년, 황토현 전적기념관 <전봉준 장군 동상>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전두환이 같은 천안 전(全)씨라 전봉준장군 유적지정화를 위선(爲先) 사업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정권이 역사를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의 봄’에 김대중 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지역 민간단체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강제 해체시켰다. ‘1894년 농민전쟁’을 기념하는 지역 민간단체의 자율 활동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관주도로 유적정화사업을 벌여 저항과 변혁의 역사를 체제내화하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초 영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전선에서 전사한 지역민을 추모하려고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거리에 작은 임시 사당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형 기념물들은 거리의 사당에서 비판적이거나 저항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 공공기념관으로 바뀌었다.

기념관 바깥 쪽 문을 넘어 들어가면 마당 왼쪽에 1987년 10월 1일자로 세운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가 서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역사 유적지를 정화하였다는 비문 8트머리의 이름 석 자는 돌로 짚어져 있다. 비문이 깨어져 다시 세운 비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기념관 맨 뒤 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머리는 맨상투다. ‘압송당하는 전봉준’으로 알려진 사진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을 터이다. 어떤 상황의 사진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그 사진은 잡혀 ‘죄수’가 되었을 때 찍혔기 때문에 맨상투다. 그런데 동상의 머리를 맨상투로 만들었으니 몸체는 격문을 들고 외치는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고 머리는 죄수가 된 꼴이다.

5.6미터 되는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청동으로 주조하여 만든 2.7미터 높이의 전봉준

동상은 오른 손을 불끈 쳐든 모습으로 우람하게 우뚝 서 있다. 동상 뒤쪽에서 좌우로 날개처럼 동상을 감싸고 있는 농민군 부조는 높이가 동상 받침대와 비슷하다. 장군의 동상이 농민군 부조를 밟고 있는 꼴로 보인다. 전체로 보아 스스로가 농민이었으며 농촌 지식인으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했고, 결국 사형을 당한 농두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죽창과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상 받침대 뒤쪽에는 시행청이 '전라북도'이고, 조각한 사람이 김경승(金景承)이며, 1987년 10월 1일 완공했음을 알려주는 까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경승은 1915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는데, 동상제작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34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뒤, 1937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였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연이어 선전에서 입선 특선을 하였고 추천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김경승은 형 인승과 함께 친일 작가로 분류되었으나 이화여대 홍익대 교수를 지내면서 각종 기념조형물 제작을 독차지하였고 오랫동안 국전심사 위원에 심사위원장까지 거쳤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때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의 경력에 걸맞게 그가 만든 동상의 주인공들도 손꼽히는 위인들이었다. 남산 공원의 김유신 장군상, 안중근 의사상, 김구 선생상,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상,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 용두산 공원, 통영 남망산 공원의 이충무공 동상을 그가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4월 혁명 때 무너진 이승만 동상,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친일 행적이 있는 고려대 김성수 동상과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인천 송도중학교의 윤치호 동상도 그가 만든 것들이다.

동상 만드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하나, 그가 독차지하다시피하여 만든 동상들은 인물들의 행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비슷한 형상이다.

김경승에게는 엄혹한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온 몸을 던져본 삶과 사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냈던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에게는 1894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군의 투쟁의지, 농민전쟁의 의미,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실천과 경험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권력과 김경승의 권위는 쉽게 손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 의해 제작된 동상에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들을 닮은 형체만 남아 있다.

4) 1994년,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봉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문체가 많으나 옛집도 복원되고 동상이나 기념물도 세워졌다. 그러나 농민전쟁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지도자들만이 싸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이 노동과 투쟁으로 이루어온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려고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1994년 9월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세웠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농두회관 앞에 세워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893년 '혁명모의'를 했던 주산마을을 들리려면 고생할 각오를 단

단히 해야 했다. 대형버스를 타고 외길을 들어가다 작은 차라도 마주치면 한없이 ‘빠구, 오라이’를 해대야만 했다. 농민전쟁 100주년 즈음에 2차선으로 포장되었던가. 이제는 주산마을 가기가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고부관아가 있던 고부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정읍을 향해 1.9Km쯤 가다 입석리에서 오른쪽 중앙교회 가는 길을 따라 2.3Km 더 가면 주산마을이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관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여기 세워진 조형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지 않다.

가운데 주탑은 ‘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이라고 이름을 새긴 받침대 위 네모난 화강암 판에 쓰러진 동료들 일곱 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 모습을 얹어 파서 새겼다. 그림의 이미지는 80년대 민중관화와 걸개그림을 많이 따왔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이 본격화되기 바로 전, 6월 9일 최루탄 맞아 피흘리며 쓰러진 이한열 학생을 일으켜 안은 동료가 전두환 정권을 향해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진, 그것을 걸개그림으로 만들어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최병수의 ‘한열이를 살려내라’가 연상된다.

토막토막 따로 세운 1-2미터 크기의 32개 보조탑에는 ‘밥이 하늘이다’를 상징하는 밥그릇, 무명농민군의 얼굴, 농민들이 무기로 썼던 농기구를 새겼다. 화강암 돌기둥 위, 아래, 중간에 새긴 농민군 머리는 표정과 거칠기를 달리하여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주탑을 중심으로 보조탑들 사이사이에 공간을 둔 것은 그 사이로 가까이 다가가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안아도 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보라고 그런 것이다. 멀리 밀어내어 쳐다 보기만 하는 먼 역사가 아니라 조형물로 끌어 당겨 가까운 역사로 느낄 수 있게 한 배려이다.

그런데 주탑의 액자 틀 같은 직사각형 선이 답답하고, 보조탑 어느 기둥에도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없다. 모두 어른 남자 머리뿐이다. 남성중심, 어른 중심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오른 쪽 한 귀퉁이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건립기념비’가 외따로 세워져 있다. 비문은 “구월봉기는 일본군의 궁성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한 민족적인 거사였으며 나아가 민족의 自衛를 위한 민중의 항쟁이었다. 甲午先烈들은 그들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限을 품은 채 匪徒의 누명을 쓰고 방방곡곡 전장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처절하게 쓰러져 갔다.”는 내용으로 반침략의 성격과 일본군에 의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9월 봉기 이후의 2차 농민전쟁 또한 반봉건적 성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농민군을 탄압하고 학살한 반농민군 세력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정부군과 각 지방의 보수 민보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빼 놓은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있으나, ‘1894년 농민전쟁’ 역사 조형물이 1963년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시작하여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형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5) 2000년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완주군과 함께 역사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삼례

역사광장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지닌 기념시설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펴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에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해 냈으며, 조형물과 조경의 조화 등이 잘 이루어져 삼례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의 기념비 및 조형물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있음”, “다른 지역 기념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함”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광장 입구에서 볼 때 건너편 왼쪽에 있는 ‘대동의 장’은 굽은 팔뚝으로 움켜쥔 ‘쇠스랑’과 돌레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다. “민초 농민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된 의지의 기치, 또는 이상이 뜻대, 힘을 상징”하며 “누구든 소망을 담은 돌을 얹어 놓는 행위를 통한 무한다수 공동제작의 개념, 참여의식의 발현에 의한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하고 있다.

돌무더기가 무한다수를 공동제작에 참가시켜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한 조형의 발상은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대동의 장’의 돌무더기가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한 미완의 조형물이다. 미완의 조형물을 완성해 나가고 역사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는 뜻을 살릴 필요가 있다.

쇠스랑 조형물 오른쪽, 광장 중앙 건너편에 있는 ‘추념의 장’ 조형물은 “이름 없이 스러져 간 농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념하며 자아 존재와 역사와 우주, 즉 ‘나’ ‘동학농민군상’ ‘하늘’이 거울에 중첩 반추되는 영상 속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핵심인 인내천 사상을 인과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장으로서 경건의 돛”으로 세운 것이다. “이상세계에서 서로 일체화로 이루어진 동학농민군들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하여 현실에서 이르지 못한 그들의 한을 달래는 의미와 함께, 독립적 공간을 형상화하면서도 동시에 대기과 빛과 시야가 통과되어 주변 환경과 유기적 일체 공간을 이루는 투조 구조는 산화한 농민군들의 영령들에게 부여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징”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조각된 농민군 군상이 중앙의 거울에 비추고 그 위에 내 얼굴을 비추어 일체감을 느끼면서 추념하도록 한 의도다. 이 조형물의 핵심은 거울이다. 거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돌을 던졌는지 금이 갔다가, 아예 조각조각 부서졌다. 지금은 깨어지지 않도록 얼굴이 비칠만한 까만 돌로 바꾸었지만 농민군 군상과 함께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만큼 뚜렷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대동의 장’과 ‘추념의 장’의 표현 양식인 구체와 추상, 짙들과 조각난 거울,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조직표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역사광장과 조형물들이 ‘다른 지역 기념 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만하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가졌는지는 관점과 안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삼례역사광장은 광장이라는 공간의 조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동선이 사람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지 못하고, 대동의 장, 추념의 장 조형물들이 동학농민혁명 일반의 이미지를 형상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삼례봉기’의 특성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3. 유적 복원과 기념조형물의 문제와 과제

1) 조형물의 형상과 조형성

역사 유적지에 세워 놓은 기념 조형물은 설명문보다 형상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역사의 상징이다. 형태와 모양이 역사의 상상력을 촉발하며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기억을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역사 기념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가 많은 것이 수직의 높은 탑과 좌대 위의 동상이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근대적 수직탑의 원형은 1963년 세워진 '4월학생혁명기념탑'이다. 맥아더, 이승만 동상을 세운 김경승이 세웠다. 대칭형 부조벽 중간에 세기둥의 수직탑으로 이루어졌다.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이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는 '4월학생혁명기념탑'을 직접 모방한 형태이다.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운 높은 수직 기둥으로 이루어진 탑은 1800년대 유럽 군국주의의 산물로서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 권위주의의 형상이다. '받침대 위에 있는 사물'인 전통적인 기념물 형태가 파시즘이 선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기도 한다. 수직의 탑은 파시즘과 전쟁, 폭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1894년 농민전쟁 유적지에는 황토재의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우금치의 '동학혁명군위령탑'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동학농민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황룡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성 '동학혁명군위령탑',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동학혁명위령탑'이 있다. 이 가운데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빼면 규모나 형태, 형상이 다르긴 해도 대부분 수직의 탑으로 이루어졌다.

삼례역사광장에는 2003년 10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세운 '동학농민혁명봉기비'가 있다. 커다란 돌덩이 기둥에 비 이름 새긴 것 말고 어떠한 상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다. 엄격한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워진 반듯한 직각의 기둥형태는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성기의 형상을 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남근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던 시대의 '좃바위'와 비슷한 형상이다.

돌기둥 뒤편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고, 받침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의 조직체계와 간부 이름을 새겨 놓았다. 단체 사무실 벽이나 소개서에나 들어 있음직한 조직표와 이름을 영구불멸의 욕망으로 새겨 놓았을 것이다. 사무실 벽에 걸린 조직 표에도 이름까지 죽 써놓은 경우는 드물다. 아무튼 우리는 기념비 아래에 세운 단체의 조직표와 명단이 새겨진 또 하나의 '기념할 만한' 조형물을 가지게 되었다.

2) 역사의 사실과 현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에는 1981년 10월 전주청년회의소와 풍남청년회의소가 세운 **전봉준 장군 동상**, 1993년 5월 김개남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김개남 장군 추모비**, 1998년 12월 손화중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손화중 장군 추모비**가 있다. 그런데 덕진공원은 1894년 농민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역사의 사실과 무관한 곳에 조형물이 건립되면 역사의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아니라 농민전쟁의 유적지로 기념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이 적지 않다.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티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세운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있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진 정읍시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의 전봉준 공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다. 1997년 정읍시에서 조성하였다.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에는 **전봉준 장군 고택**이 있다. 1894년 고부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안핵사 이용태가 불질렀으나 다시 보수한 것을 사적으로 지적하였다. 전봉준 장군 고택 주변과 단소성역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고택 주변의 집을 헐어내고 잔디밭을 꾸몄다. 잔디밭 밖으로 철계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고택 마당에서 잔디밭은 바로 이어진다. 너른 잔디밭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고택 밖에 기념관을 세우고 잔디밭을 꾸미는 것과 고택 마당과 이어지는 잔디밭은 또 다른 문제다. 고택은 고택답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입구에는 1969년 4월 후손들이 주도해서 만든 ‘**동학혁명모의탑**’이 있다. 이 탑을 마을 안쪽에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처음 만들 때는 받침돌이 4단이었는데 옮기면서 5단으로 높였다. 새로 끼워 넣은 받침돌에 부조로 무궁화 꽃을 새겼다. 1894년 ‘동학혁명’과 무궁화 꽃은 별 관련이 없다.

3) 공간 배치와 교육 효과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세워진 황토현전적지 기념관은 아산 현충사 같은 사당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마당 중간에 있는 담을 지나 안쪽 오른쪽에 전쟁유물 전시장이 있고, 왼쪽 제민당에는 위압적인 양반같은 전봉준 영정이 보관되었다. 맨 뒤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 있다. 사당 형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걸맞지 않다. 공간 배치도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동상이나 영정이 전봉준 장군을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2004년 개관한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으로 이루어졌다. 전시관 벽면은 사진과 빼곡한 설명문으로 채워져 있다. 답사객 들의 반응은 전시관이 확대 복사한 책 읽으라는 공간 같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2층 복도를 따라 벽에는 이 광택의 <우리식대로 그린 동학농민전쟁사>를 확대 복사하여 여러 쪽으로 나누어 걸어놓고 있다. 원본 그림의 모양은 어떠한지,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설명도 없다. 복도의 폭에 맞추어 보기 편하게 전시해야 하는데, 좁은 복도에 그림이 커서 보기 불편하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기둥의 부조도 마찬가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진과 설명문은 안내문 형태의 작은 책자로 나누어 주고 기념관에 맞게 전시를 하는 편이 탐방객들을 현하게 할 것이다. 전시도 공간에 맞는 크기로 배치해야 하며, 전시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밝혀 주어야 한다.

삼례봉기 역사광장에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둘레에 광장 표지석, 부조물 5점, 봉기비, 상징 조형물 3점, 표지 명문석 4점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조형물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질 않아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할지 주춤하게 된다. 조형물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처음 광장을 설치할 때 기획한 공간 배치 밖에 새로운 조형물들을 편의에 따라 세우면서 나

타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토막토막 떨어져 산만한 느낌을 준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설명과 그림으로 새긴 4각 기둥의 부조물 5개가 세워져 있다. 기둥의 형상과 새겨진 내용과 그림은 괜찮다. 그런데 한 기둥 마다 사방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그림과 글로 새겨 놓았다. 입구에서부터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있는 석조 조형물 4점이 있다. 조형물의 형상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특성이 전혀 없으며, 일본군의 침입과 쫓기는 민중이 돋보이게 새겨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이다.

역사의 현장을 찾는 중요한 까닭은 역사를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면서 배우려는 것이다. 유적지 복원이나 기념사업, 기념 조형물 건립의 내용은 물론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의 공간 배치도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4. 맺음말

역사란 지금 여기서 그때 거기의 과거와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물 가운데 대표적인 매체가 책이고 글이다. 역사의 현장, 거기를 재구성한 공간이 유적지이다.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느끼고, 기리려고 유적지를 찾는다. 유적지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들은 형상과 상징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역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재구성된 현대사이기도 하다. 1894년 농민전쟁의 사실을 이해하고, 의의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려고 유적지를 복원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운다. 유적지 복원 사업과 기념 조형물에는 당연히 1894년 농민전쟁의 사실과 의의와 정신 담겨 있어야 한다. 근현대사의 다른 사건의 현장에 세워진 조형물과 차이가 없고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1894년 농민전쟁의 기념 조형물로서 해야 할 제 몫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894년 농민전쟁은 1월 고부농민봉기부터 1895년까지 전개된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서 모든 곳을 유적지로 복원하고 기념할 수는 없다. 기념할 만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된 유적지에는 1894년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의 일부이며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사건의 특성을 담겨 있다. 지역마다 유적지를 정비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울 때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은 물론 계절과 지역의 특성도 살려야 한다. 어디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비슷비슷한 조형물을 유적지마다 세우는 것은 낭비이다.

역사기행이나 답사를 할 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옛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천의 구란 말 옛 시인의 녀이로고'하듯이 산천도 변했다. 역사의 현장을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사실을 사실에 가깝게 역사를 복원하고 현장감을 높일 수 있게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 기념사업에서 언제나 고려해야 할 출발점이다.

역사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은 그곳에 그런 형상으로 있어야 할 이유를 담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역사의 유적지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느끼게 하려면, 유적지의 공간배치나 조형물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더

물게 하고, 보게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수많은 조형물들이 그런 몫을 제대로 담당하질 못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아야만 하는 동상, 숨 막힐 듯 위압적인 높은 탑, 의미를 담지 못한 돌덩이 세워놓은 무성의한 조형물들은 오히려 역사에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군이 수평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추구했던 정신에 견주어 볼 때 과거의 기억을 몇몇 지도자로 한정하고 미래의 상상을 통제하는 동상, 민중의 기억을 국가의 통제로 가두려는 수직의 탑은 1894년 농민전쟁 상징물로 걸맞지 않다.

1894년 농민전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유적지에 탑과 동상을 세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탑과 같은 형상의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좌우균형의 받침대 위에 높게 세워진 수직의 탑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 관에서 주도하는 조형물 조성 사업에서 지정된 크기의 '규모'를 요구하는 제한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조형물의 높이와 규모를 놓고 지역별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역사를 '크고 높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압살하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역사학연구소

서울 마포구 창전동 2-53 5층 역사학연구소

tel. 02-333-6345 <http://www.ihs21.org>

역사학연구소 2009년 심포지엄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 주최 | 역사학연구소
- 장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2층 세미나실
- 일시 | 2009년 11월 21일(토) 10:00-17:00